

진해기적의도서관 20년사

스무살, 기적을 이야기하다

목차

- 6 발간사 주홍진 진해기적의도서관장
- 9 축사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 10 격려사 구진호 창원시 도서관사업소장
- 11 환영사 김태석 진해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장
- 13 회고사 이종화 초대 진해기적의도서관장

01 우리의 간절함이 기적을 만든다

- 16 박상임 건립 실무자
- 19 이덕자 건립 위원

02 책나라 등대 불빛 따라 20년 - 자원활동가

- 22 책나라 등대 불빛 따라 20년
- 25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 27 진해기적의도서관
- 28 기적의도서관 자원봉사자에서 사서가 되기까지
- 30 나의 도서관 우리 도서관
- 32 기적의도서관 20주년

03 나의 도서관 우리 도서관 - 이용자

- 36 도란도란
- 39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
- 43 기적아, 스물 살 축하해
- 45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간직한 책 숲 놀이터, 진해기적의도서관

04 나와 함께 성장한 기적의도서관 - 어린시절 이용자

- 48 나에게 도서관이란
- 51 나와 함께 성장한 기적의도서관
- 55 그리움
- 57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기적의도서관
- 59 기적의도서관에게
- 62 행복을 나누는 네버랜드 진해기적의도서관
- 65 진해기적의도서관
- 67 기적을 낳는 곳, 기적의도서관
- 70 기적의도서관을 추억하다
- 72 미라클 키즈의 성장이야기
- 78 기적의도서관과의 작은 인연
- 81 17살, '도서관 아이'는 이렇게 놀고 있다
- 84 공간의 소중함
- 88 다시없을 행복한 추억, 미라클 합주단 봉사 활동과 그림책 출판

05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기적의도서관 - 수기·사진 공모전 당선자

- 92 최영미
- 96 서화정
- 99 정윤미
- 103 하나는
- 106 김화리
- 108 이나은
- 109 박태하
- 110 남민영, 이도, 이서율, 박영화, 이형자, 김리안, 박태하, 사귀공인, 이나은, 이미경, 박수빈, 김수경, 서화정, 이윤희, 김보경, 이슬, 이아린, 한예지, 정윤미, 조민철, 김지은

06 신기한 기적의도서관

- 122 2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 작가전(1~3월)
- 128 20주년 기념 행사 세미나(5월)
- 130 20주년 기념 행사 교류 프로그램: 순천 맞이(6월)
- 134 20주년 기념 행사 교류 프로그램: 제천 방문(7월)
- 145 20주년 기념 행사 교류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하룻밤(8월)
- 152 20주년 기념 행사 작가 강연회 및 음악회(9월)

부록 기적아, 스무 살 축하해

- 156 20주년 축하글 운영위원
- 159 20주년 축하글 이용자
- 160 진해기적의도서관 20주년 세미나 자료집

발간사

축사

격려사

환영사

회고사

꺼지지 않는 기적의 불꽃

주홍진 진해기적의도서관장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거나 사람의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기적이라 합니다. 이 거창한 이름을 쓰는 까닭에 기적의도서관에는 실제로 기적을 만드는 곳이 되었습니다. MBC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과 지자체, 시민단체, 마을사람들이 모였고, 선구자적 구심점이 되어주신 故)이이효재선생님이 기적의 불씨를 진해로 끌어와 마을과 개개인 삶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지핀 곳이 진해기적의도서관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도서관 근처 아파트로 이사와 도서관 아이들로 건강히 키웠고, 그 감사함에 도서관이용자에서 활동가로 다시 제 인생 버킷 리스트에도 감히 담겨있지 않았던 관장까지 제 삶의 기적을 만든 곳도 도서관입니다. 이처럼 기적의도서관이 지닌 가치는 아이들 성장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경험했고 이이효재선생님이 강조하신 도서관이 지역여성들의 성장을 위한 허브역할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 뿐 아니라 활동가선생님들 기적

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성장스토리가 20년의 기적의도서관을 밝히는 증거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하지요.

여기에 더하여 지역민 모두를 키우려면 기적의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해기적의도서관의 설립가치에 발맞춰 열정을 다하시던 초대 이종화관장님과 역대 관장님들, 직원, 활동가선생님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고 나누는 그 과정을 보며 지역아이들도 바른 시민의 자세와 건강한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자기 삶속에서 실천하는 자양분이 된 곳도 기적의도서관입니다.

지역 어른들께 올해가 진해기적의도서관이 20주년이라 말씀드리면 벌써 세월이 그리 되었나 하시며 자신의 기억 속 도서관 추억을 하나둘 꺼내놓으셨습니다. 자녀들 어릴 때 열심히 도서관을 다녔다. 진해의 자랑이다. 활동가로 참여했다 등등 기적의 불꽃이 지역민들의 기억 속에서 여전한 까닭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게나마 참여하고 느낀 즐거움과 보람, 조화로운 어울림 덕분이겠지요.

이제 20년 성인으로 성장한 진해기적의도서관의 어제와 오늘은 참으로 감사하고 다시 돌아봐도 모든 이들의 애정과 정성 덕분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다양한 미디어 환경, 직접적인 만남보다는 웹상에서 소통이 자연스러워진 시대입니다. 전통적인 도서관 활동에는 마을아이들이 도서관으로 오는 길에서 만나는 자연과 이웃들과 친밀함, 책의 물성이 주는 감촉, 함께 탐구하는 즐거움, 눈을 마주보며 서로를 보살피는 세대 간의 유대 등 오감 그 이상의 것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도서관 방향은 개인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와 지식을

친절히 얻을 수 있는 미래형도서관 환경을 구축해야함과 동시에 기존의 살아 숨 쉬는 도서관활동이 공존해야합니다. 두 가지 방향이 균형감을 지닌다면 분명 다음세대 기적의도서관 어린이들도 지난 20년간 어린이들이 느꼈던 행복감 그 이상의 큰 기쁨을 도서관에서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기적을 만든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준비한 20주년 수기집 출간을 빌어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주년 행사 및 공모전으로 어느 해보다 애를 많이 쓴 소중한 도서관 직원들, 행사 전반을 세세하게 살피며 마음써주신 김태석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 봉사하시는 것도 모자라 글 독촉을 받으신 전, 현 활동가 선생님들과 건립위원님들, 기적의 시작을 도왔고 지금도 여전히 든든한 지원군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안찬수 상임이사님과 간사님들, 기적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전국의 기적의도서관과 올해 20주년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더 없이 결속된 순천, 제천기적의도서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가능하게 지원해주신 홍남표 시장님과 구진호 도서관 사업소장님 그리고 진해도서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적을 기적답게 만드는 원동력은 아이들의 웃음과 호기심, 이곳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는 지역 어린이들과 가족 마을 전체 사람들의 힘입니다. 앞으로도 멋진 기적이 개개인 삶속에 이어지며 기적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저 또한 도서관 선생님들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축사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먼저, 진해기적의도서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수기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체험 수기 공모전 개최와 수기집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주홍진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힘입어 2003년부터 이곳에 자리 잡은 진해기적의도서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곳 도서관은 전국에서 3번째로 들어선 것에서부터 시작해 지난 세월 이름만큼이나 많은 기적(奇蹟)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디지털가속화, 코로나19 등 급격한 환경변화와 문화 충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시대 상황에서 도서관이 있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와 대화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창원 유일의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요람으로 자리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진해기적의도서관과 함께 한 일상'이란 주제로 수기 공모한 자료를 모아 발간한 이번 수기집이 도서관 역사의 하나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원특례시는 도서관을 시민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품격있는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해기적의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 수기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도서관 발전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

구진호 창원시 도서관사업소장



진해기적의도서관 개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지난 20년 동안 진해기적의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해 주신 분들과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으로 지난 2003년 전국에서 세 번째로 건립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소리 없이 책을 읽는 조용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진해기적의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이 눈으로 책을 읽고, 소리로 책 속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린이, 장애인 등 다양한 분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서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고마움이 더욱 두드러진 곳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수고가 일방적인 듯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봉사의 보람과 기쁨 때문에 봉사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개관 20주년이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수고와 헌신을 기리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응원을 함께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기적의도서관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며, 더 많은 시민들의 생활에 스며들어 책을 읽고, 책과 함께 삶을 나누는 행복한 공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환영합니다

김태석 진해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장



제가 진해기적의도서관을 처음 만난 건 2009년입니다. 당시 업무 관련으로 도서관이 운영하는 ‘북스타트’를 참관하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감과 함께 일본의 도서관들이 운영하는 ‘북스타트’도 견학했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내 아이들 어린 시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읽어주곤 했지만, 글은 커녕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또 놀이를 하는 모습에 ‘아, 이런 거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론 좀 늦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진해기적의도서관에 꾸준히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재잘대기도 하고, 엄마가 소리 내어 책을 읽어주기도 하는,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도서관과는 다른, 낯선 풍경이었지요. 그리고 이종화 전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도서관을 설립하고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매주 라디오를 통해 나오는 다정한 목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관장님을 통해, 이이효재 선생님을 알게 되고, 병석에 계신 당신을

찾아 뵈 건 영광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와 여성운동의 큰 족적을 남긴 그분을 바로 만나다니요. 이 선생님의 생애를 담은 책에 저를 위해 응원의 글을 쓰신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몇 년이 또 흘렀고, 주홍진 관장님을 비롯한 초기의 자원봉사자들과 도서관에 기여하신 분들도 만났습니다. 3년 전엔 운영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몇 번이나 고사했지만, 결국 분에 넘치는 직책을 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떤 걸 판단해야 할때 모르는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운영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결국 우린 20주년을 맞이하게 됐고,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있기 까지 노력해 주신 분들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지요. 이 글로 대신함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덕분에 진해기적의도서관은 성년이 됐고, 이제 더 밝은 미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회고사

이이효재 선생님이 사랑하신 진해기적의 주춧돌들

이종화 초대 진해기적의도서관장, 창원특례시의원



먼저, 스무살 성년이 된 진해기적의도서관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튼튼한 주춧돌들이 자리를 잡아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춧돌을 놓으신 분이 바로 이이효재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여성학의 대모이시며 양성평등 사회로의 문을 열어 주신 이이효재 선생님이 진해기적의도서관을 유치하신 것은 ‘진해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이 중학교만 졸업하면 진해를 떠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당신의 연구조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선생님은, 진해기적의도서관 자원 활동가로서 무척 행복해 하셨습니다. 평범한 엄마들이 도서관 활동가로 성장해 가고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평생 원하시던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되는 민주주의가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시기 때문이었겠지요.

선생님은 노무현대통령께도 감사해 하셨습니다. 출세하면 모두 서

울로 가고 은퇴를 해도 서울에만 머무는데 노무현대통령께서는 퇴임 후 바로 고향으로 내려오셔서 벼농사를 지으며 고향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진해기적의도서관을 설계하신 정기용 선생님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그 공간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섬세하게 설계하신 정기용 선생님이 노무현대통령님과 함께 진해기적을 방문하셨을 때도 대통령께서 머쓱해 하실 만큼 정기용 선생님을 더 반기셨답니다. 그리고 도정일 교수님(책읽는사회문화재단 이사장)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를 창안하고 실현하셨기에 대한민국에 독서문화를 바꾸고 도서관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진해기적이 시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기적을 가꾸고 다듬어온 자원활동가들 역시 선생님은 무척 자랑스럽게, 대견하게 여기며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사랑하신 주춧돌입니다. 그런 주춧돌들이 진해기적의도서관을 지키는 든든한 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민의 사랑방으로 ‘아이들의 꿈 터’로 잘 가꾸어지기를 염원하며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01

우리의 간절함이 기적을 만든다

기저귀 도서관을

꿈꾸며

2002년 MBC의 “느낌표”라는 인기 프로그램 중 “책, 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코너가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즐겨보던 나는 도서관이 부족한 영세한 도시에 ‘책 읽는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책사회)’에서 전국에서 어린이도서관 10개소를 무료로 지어서 운영에 따른 소프트 프로그램까지 보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로 좋은 시책이고 진해에 유치하면 좋겠다고 생각 했지만 당시 나는 도서관과는 거리가 먼 ‘아동청소년 담당계장’을 맡고 있어서 그냥 흘려들었다. 아마도 그 당시 시장님께서도 그 방송을 보셨거나 누군가로 부터 들으신 모양이었다. 하루는 나를 호출하시더니 갑자기 그 도서관을 우리시로 따오라고 지시를 내리셨다. 도서관의 업무는 하나도 몰랐던 상황이라 ‘그 업무라면 도서관에 지시하시면 되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오더는 결국 내가 맡게 되었다.

다른 직원들은 본인의 업무로 바쁘지라 혼자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 우선 “책사회”에서 어떤 도시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검토하였고 통합전 진해시는 동양방송에서 지어 기증한 진해시립중앙도서관 (현재 자리는 아이세상장난감 도서관)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도서관의 열악한 상태를 강조하고 도서관을 지을 부지를 국공유림과 상의하여 찾아내어 영유아 통계를 바탕으로 (舊)진해시에 꼭 도서관이 지어져야 한다는 기획안을 작성하였다. 그 기획안을 들고 서울의 “책사회”로 무작정 쳐들어갔다. 그렇게 그 사무실에서 진해에 꼭 도서관이 필요한 이유와 타당성을 설명하고 일어서려는데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진해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만 가지 생각을 하며 꼭 도서관을 유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돌아와서 급히 (故)이이효재 선생님과 (故)이종화 선생님을 필두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적의도서관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양극장’ 앞과 각 학교를 통하여 (舊)진해시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건립위원회 주관으로 일주일동안 실시하였다. 약 2만여 시민들이 서명한 용지를 책으로 묶어 “책사회”로 보내고 (故)이이효재님과 이종화님 등 민간 건립추진위원분들과 함께 “책사회”를 다시 방문하여 우리의 간절함을 한 번 더 전달하였다.

순천시가 제 1호 기적의도서관 건립지로 선정되는 과정이 TV 방송으로 방영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책사회”에 전화하기를 여러 번, 드디어 다음 주 방송 때 제천과 진해가 선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선정 과정을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서 시장님과 어린이들과 함께 시청하면서 얼마나 기뻐던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도서관 진립과정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방송국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선정 후에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 도서관 유치를 얼마나 염원했는지를 담아 촬영을 하여야 했다. 2003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양일간 MBC 느낌표 방송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시민들의 이벤트를 기획해야 했기 때문이다.

진해를 잘 소개하고 시민들의 염원도 담고 진해만의 특색을 담고자 각 행사를 기획하고 각 학교와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나 한사람의 힘은 미약하나 옳은 일을 하고자 도움을 요청하니 한마음 한뜻으로 학교와 기관, 군부대 등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었다. 혼자였으면 할 수 없었을 일을 모두가 함께 이룬 것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때 도움을 주신 모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도서관 설계과정에서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자라나는 어린이의 꿈을 상징하며, 도서관 입구는 미로를 찾아가듯 호기심을 자극하고 어린이들이 다락방에 앉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듯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 등등 설계서의 의미를 들으며 행복한 꿈을 꾸었던 곳, 기저귀를 찬 영아들도 자유롭게 와서 놀 수 있는 곳. 그 기적의도서관이 우리 모두의 힘으로 그 터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런 좋은 의도로 마련된 기적의도서관이 향후 그 당초의 목적을 잊지 않고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해 본다.

ps. 본인 기억의 오류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기적을 만든다

진해기적의도서관이 벌써 20돌을 맞았다. 마창진 세 개의 도시가 통합되기 전, 진해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는 진해 지역 여성들과 지역의 문제들을 내어 놓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의논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다. 어느 날, 진해에도 기적의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이효재선생님의 제안을 듣고 그 자리에 모인 김병로 전 시장님과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고 진해기적의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은 기적의도서관이 들어설 부지를 지정하고 공문을 만들어 관계 기관과 부처를 다니며 준비를 했고 민은 기적의도서관 건립을 원한다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서명을 받는 스스로들이 놀랐던 것은 너무나 빠른 시간에 엄청난 양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사회를 맡아, 현재 기적의도서관이 있는 자리에서 착공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을 때 많은 시민들이 너무나 기뻐하며 그 행사를 즐겨워했었다.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지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이이효재선생님은 기적의도서관 건립을 위해 자문을 해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기적의도서관을 이용할 사람들의 입장에서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쏟으셨다.

무슨 마음이었을까?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이효재선생님이 계시고 열정 가득한 시민들의 마음이 모인다면?

우리의 간절함이 모여 기적이 이루어진 진해기적의도서관은 교육과 문화 소외지역이라 거주를 꺼리던 진해 지역에 진해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기적의도서관 20년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적의도서관이 얼마나 지역사회를 변화시켰는지를 이야기 한다. 일하는 엄마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자녀를 데려다 주면서 머무르게 된 도서관에서 자원활동을 함으로써 자녀의 성장 뿐 아니라 세상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자원봉사자 등.

이이효재선생님과 함께 첫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나에게 기적의도서관은 책읽는 사회가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셨던 선생님의 말씀을 늘 새길 수 있는 공간이며 마을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인도하는 나침반 같은 곳이다.

기적의도서관에 머무르거나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이 너무 감사하다. 20년의 세월 동안 한 점 한 점을 함께 찍고 선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움과 마음이 잘 연결되어 다양한 색깔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처음처럼 나도 늘 함께.

02

책나라 등대 불빛 따라 20년

자원활동가

책나라 등대

불빛 따라 20년

느티나무가 노래를 하는 도서관 뜨락에 햇살이 다소곳 내려앉았습니다. 배롱나무가 실실 웃는 사이로 씨앗을 물고 날아가는 박새의 날갯짓이 귀엽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지혜의 뜰에 있는 나무와 새들을 볼 때마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책 속에 한 장면, 한 장면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해기적의도서관은 저의 40대, 50대를 고스란히 몸담아온 공간입니다. 저는 사서도 아니고 도서관 소속 직원도 아니지만 지난 20여 년간 1주일에 한 번, 혹은 서너번 책을 빌리러 가기도 했지만 자원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어쩌면 진해기적의도서관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기까지, 사람으로 치면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웃고, 울며 키우고 지켜보았습니다.

진해기적의도서관과의 인연을 이야기 하려면 먼저 도서관이 생겨나기 전부터 거슬러 가야 합니다. 진해는 저에게 낯선 고장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살게 된 조용한 진해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며 아이에게 필요

한 책을 사러 부산까지 갔습니다. 도서관이 멀리 있어서 아이를 업고 가기도 힘들었지요. 둘째가 태어나서는 도서관 버스가 집 근처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한 책은 턱없이 부족했죠.

저는 책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엄마들의 모임이 ‘동화 읽는 어른’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내 아이에게 좋은 책을 읽고 싶은 마음에서 들어갔지만 활동을 하면서 점점 내 아이에서 우리 마을의 아이, 우리 마을의 아이에서 모든 아이들을 위한 책이 필요하고, 모든 아이들이 마음 놓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를 위한 기적의도서관을 지어 준다는 것을 보고 우리 모임에서도 기적의도서관 유치를 위한 서명을 받으려 다녔습니다. 서명지가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힘든 것이 녹아버리는 느낌이었죠. 우리 모임 뿐 아니라 이이효재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결국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진해에 유치하게 되었을 때 우리 회원들 모두 아이들과 열싸안고 기쁨의 합성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힘들여 유치한 도서관이기에 자원활동가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열심히 자원활동가 교육을 받으면서 또 한 번 도서관에서 자원활동을 하기에 잘 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벅차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개관을 앞두고 ‘느낌표’ 사회자 유재석씨와 여러 스텝들과 함께 진해투어도 했던 추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그리고 개관을 하기 전, 반짝거리는 새 도서관이지만 바닥부터 열람실과 책상, 소파, 창문 등이 더욱더 반질반질해지게 닦으며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개관을 하고,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

있고, 뿌듯한 마음에 등대 아래서 한참을 감격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해 처음 했던 활동은 ‘그림책 읽어주기’입니다. 작은 ‘얼라들’ 방에서 모두가 다 같이 제가 읽어주는 그림책을 보면서 웃고, 즐거워하며 좋아해주실 때 말할 수 없는 벅찬 마음이 들었죠.

이렇게 함께 서로 공감해주고, 좋은 그림책을 통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행복이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자원봉사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해를 거듭 할수록, 그림책을 함께 보는 모든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저에게 들어주시는 봉사를 해주신다는 생각에 울컥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림책 읽어주기, 추천도서 확인하기,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원활동하기, 등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에 신나게 함께 하다 보니 20년이 되었고, 이제는 어린이 기자단 아이들과 도서관에 관련한 기사를 써보고, 다양한 견학을 통하여 아이들이 좀 더 넓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도서관의 프로그램이나 이용자들의 눈높이도 달라지고, 기능이나 활동영역도 다양하게 변해 왔지만, 여전히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곳이고,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책읽기를 경험하는 곳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어두운 밤바다에서 등대불빛이 늘 길을 밝혀 주는 역할을 하듯이 도서관은 아이들 마음의 길을 밝혀 주는 곳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어제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진해기적의도서관으로 향할 것입니다.

여기서 언제까지나 책임어주는 할머니로 아이들의 마음에 환한 불빛을 밝혀 줄 수 있는 자원활동가로 남고 싶습니다.

작가 소개 김미라 아동문학가

2023년 경남문학 신인상 동화부문 <부서진 조각달>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아름다움이란 분명 존재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보려면 다른 것을 보지 않아야 해요. 그래야만 볼 수 있죠.

제가 기적의도서관에서 봉사한지 15년은 된 것 같네요. 진해에 이런 어린이 도서관이 생긴 자체부터가 행복이자 아름다움이었죠. 그곳에서 처음 그랜드피아노를 옮겨 연주도 할 수 있었고 2층 복층에서 보는 책은 정말 저에겐 말할 수 없는 여유와 행복이었죠.

이 공간이 주는 행복과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나뉘는 매개가 음악활동이었어요. 특히 북 스타트(6개월~12개월 영아대상) 프로그램에서 아기들과 양육자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는 연령 제한과 육아 때문에 연주회 참석이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에게 라이브음악을 들려주는 소중한 시간이지요. 더불어 오랜만에 악기를 잡으신 선생님들과 처음 연주해보는 악기들

로 저의 편곡이 이뤄지는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실험무대이기도 했죠. 자
유로이 듣는 엄마와 아기 그리고 봉사하시는 자원 활동가 천사선생님들,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무언가를 느끼고 모두가 무언가를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잠시 일상에서의 탈출일 수도 있고요. ^^

북 스타트에서 활동했던 성인실내악단인 아이리스 외에 초등부터 청
소년, 성인들에게 악기를 배우는 기회와 연주활동이 가능한 미라클 합주
단 봉사도 바쁜 주말 짬을 내어야했지만 저에게 다양한 편곡의 기회를 제
공했어요. 작곡이었음 더 좋았을 테지만요.ㅎ

이처럼 제게 소중한 봉사인 미라클 합주단의 제일 큰 가치는 참여하
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음악으로 세상에 봉사하는 기회도 되었지만 잠
재된 자신만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이 친구들이 커
서 음악과 함께 성장하는 게 얼마나 삶의 큰 지혜였다는 걸 활동을 통해
알아갈 것이라 희망해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 그 중심
에 모든 것을 수용하는 도서관이라는 공간, 그리고 나와 모두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정말 저에겐 보석같이 값진 15년의 지나온 삶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선물한 온전한 행복과 보람은 지금의 저를 남겼습니다. 그
래서 더욱 감사하답니다.

진해기적의도서관

기적의도서관이 개관하던 2003년에 저희 가족은 독일에 살았어요 아직
언어가 낯설고 아는 이가 없을 때 마을도서관은 우리가족의 친구이자 놀
이터였어요. 아직 주민증도 없는 외국인에게 초등1, 유치원생까지 도서
대여증을 만들어주고, 모든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참여할수 있어 감동이
있어요.

귀국하고보니 기적의도서관이 귀한 취지로 열려있어 큰 기대를 안고
달려갔지요. 독서미술치료,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내는 음악책 수업 등이
기억나네요 특별히 경력단절된 엄마세대의 능력, 진심, 아이사랑이 프로
그램 구석구석에 담겨있어 더 알차고 실용적이었지요. 저희 가족이 도서
관에서 받고 누린 감동을 잊을 수 없어 저는 추천도서팀에서, 아이들은
기적안에서 책과 함께, 책친구들과 함께 거닐고 뒹굴고 나누며 즐겼습니
다. 삶의 터의 중심이 된 기적의도서관은 책의 내용이 주는 지식과 지혜뿐
만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오는 위로와 도움, 공간이 주는
힐링, 만나는 사람 사이에 전해지는 책찾는 사람 간의 유대 등 저희 가족
에게 내린 종합선물세트였지요.

기적의도서관 자원봉사자에서 사서가 되기까지

언제 기적의도서관에 처음 방문했는지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진해라는 낯선 곳에서 아이들과 하루를 보내기 위해 진해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장복산을 유치원 삼아 부지런히 올랐지요. 그러다가 기적의도서관(?) 이야기를 듣고 간 곳이 바로 기적의도서관이었답니다. 4살, 6살 아이들 데리고 책도 읽고 프로그램도 참여하던 어느 날 ‘3기 자원봉사자 모집’ 보고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맡은 봉사는 ‘추천 도서 팀’ 이름에서 바로 아시겠지만, 도서관에서 선정한 추천 도서를 아이가 읽고 제가 앉아 있는 곳에 오면 아이와 함께 책을 다시 한번 읽고 도장을 찍어주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추천 도서 팀에서 북스타트팀에서 도서관에서 하룻밤 등 각종 도서관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도서관이 주는 재미에 흠뻑 빠지게 되었답니다.

아이들도 점차 자라고 제 손이 덜 가는 시기 11살, 12살 되던 2013년

대학 새내기로 문헌정보과에 다녔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도서관의 화려한 면만 보았다면 대학에서는 도서관의 뼈대와 속살을 보게 되었지요. 대학 졸업 후 사서 자격 취득 후 초등학교 도서관에 기간제 사서로 근무하게 되었을 땐 ‘이제 진짜 사서가 되었구나’하고 속으로 만세를 불렀지요.

그러나 막상 학교에 근무해 보니 사서로서의 저의 역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느끼게 되었지요. 그래서 다시 학생이 되었지요. 학교 근무, 가정, 아이들, 공부까지 하루 24시간이 그렇게 부족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은 흘러 논문도 쓰고 졸업도 했답니다. 그리고 결심 한 가지 ‘절대 다시는 공부하지 않겠다!!!’ 그만큼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학교도서관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가장 좋은 시간은 학생들과 책에 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 두리번두리번하는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책을 추천해 주면 그중 한 권을 골라 대출해 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와서 재미있었다며 ‘또 추천해 주세요’ 하지요. 그렇게 몇 번 도서관을 방문하면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자신이 읽었던 책을 친구에게 추천해 주는 모습을 보면 ‘사서가 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진해라는 낯선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전업 엄마가 도서관 이름도 자세히 모르고 갔던 기적의도서관을 만나 사서가 된 이야기였습니다.

나의 도서관

우리 도서관

참 오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몰랐습니다.

20년 우리 도서관이 벌써 스무살이 됐습니다. 저는 기적의도서관 이 문을 열고 몇 달 후에 이 어린이 도서관에 강 한 번 둘러보러갔다가 훌 딱 맘을 뺏겨버렸습니다. 금방 이 도서관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7년

저만 도서관에 빠진 게 아니고 우리 집 식구들 모두 그렇게 됐습니다. 도서관에서 책만 읽는 게 아니고 저처럼 그들도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들도 친구들을 데리고 왔고 이 에너지 넘치고 재미있고 즐거운 곳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도서관을 사랑했고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보르헤스의 말처럼 도서관은 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 아름다운 도서관에서 책이 주는 힘으로 위로받고 치

유 되었습니다. 그곳은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고 또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1시간의 독서로 치유되지 않는 슬픔이란 없다는 건 참말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제게 용기와 힘을 주고 많은 것을 가르쳐 준 도반이었고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과 무모하다싶을 만큼 어려운 과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것을 나누겠다”는 착한 마음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 도서관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시간의 힘은 진정 위대한 것이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아이들도 더 모여 들었습니다. 우리도서관은 동네 쉼터고 사랑방이고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와 규칙이 있어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곳은 늘 열라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놀랍고도 신기한 마술 같은 장소였습니다.

내 기억 속의

야무진 한 알의 도토리 같은

사랑하는 우리도서관

땅 속 깊이 뿌리내리고 하늘 높이 가지를 뻗어 따가운 여름햇살이 살을 태울 듯 달려올 때 두터운 그늘을 드리우는 아름드리 참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소중한 도서관이

이제 스무살이 됐으니

200살 아니 그보다 더더 오래오래 대대손손

이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해기적의도서관 20주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적의도서관

20주년

바쁘게 사는 생활 속에 잠시 멈춰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아, 나의 아들이 19살이니 거의 도서관 나이와 비슷하다. 부산에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100일이 지났을 무렵 진해로 이사 왔다.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라는 인상이었다. 아이 키우기에 참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다 근처에 기적의도서관이 있는 것을 알고 11월생인 아들이 첫돌이 지난 즈음 기적의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다. 같은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은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아이가 많이 자란 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지내는 엄마들이 많았다.

난 평소 아이에게 책읽어주는 걸 즐겨했다. 밤이면 늘 1시간씩 책읽어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어린이 도서관인 기적의도서관을 자주 이용했다. 둘째도 태어나고 거의 10년은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를

하느라 나의 시간은 없었다. 아이들이 커나가며 나도 내 인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좋아하는 영어공부를 틈틈이 하며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 없을까 고민했다. 부산까지 영어지도사 자격증 따기 위해 부지런히 다니기도 했고, 동화구연지도사 자격증도 따며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땐 학교에서 책임어주는 어머니 활동도 했고, 기적의도서관에서도 할 만한 일이 없을까 찾다가 북스타트 자원활동가로서 일을 하게 되었다. 나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실 남 앞에 나서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북스타트 자원활동을 하면서 아기들과 엄마들 앞에서 유치한 웃을 입고 강충거리며 춤추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짹 짹 놀라기도 했다.

그렇게 거의 10년을 북스타트 자원활동가로서 활동을 하며 자신감과 용기를 얻어 다양한 분야로 나아갔다. 영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여성회관에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진해 근대 문화역사 해설가로 활동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기적의도서관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지역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여성운동, 그리고 평화운동까지 펼치셨던 이이효재 선생님을 기리는 길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이이효재길 해설사도 겸하고 있다. 매일 매일 이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10년 넘게 경력단절이 된 내 처지를 보며 암담하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하던 시절에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했고, 또 기적의도서관을 알게 되었다.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나의 능력을 발견하고 활짝 펼치며 살 수 있다는 것에 기적의도서관에게 감사함을 보낸다.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도서관이 되길 바란다.

도란도란

마음을 치유하고 채워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눈높이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나 각자의 눈높이에 맞추기란 참 쉽지 않다. 그러다 방법을 찾았다. 지나온 유년기를 재충전하니 효과는 놀라웠다. 따뜻한 돌봄은 불안한 마음도 담담히 변화시킨다.

“말벗” 봉사로 만난 성인 장애인도 예외가 아니다. 여린 마음을 살짝 품어주니 더 활발하고 밝은 모습을 보였다. 덕분에 2018년부터 성인 자립장애인과 비장애인 10여 명이 카페에서 차(茶)모임을 통해 둔감해진 감정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느낌을 인식하고 표현하기 힘든 이들과 만나니 소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귀 기울였다. 그래서 함께 그림동화를 몇 줄씩 더듬거리며 소리 내서 읽고 느낌도 공유하며 언어화했다. 그때 함께 읽었던 『블루데이북』 속 동물들의 다양한 표정과 짧은 글을 통해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란 용기가 생겨 모두 함께 외쳤다.

“긍정의 힘으로 세상의 빛이 되자! 도란도란 파이팅!”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화책을 함께 읽으며 어눌했던 표현은 자연스럽게 좋아졌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만의 공간이 늘 아쉬웠다. 동화를 읽으며 속마음을 나누기엔 카페는 늘 어수선했다. 언제나 쉽게 방문할 편안한 공공시설을 찾다 마침 재단장을 끝낸 기적의도서관에 무작정 찾아가 의뢰했다. 다행히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오후 도서관 공간인 도란도란 방을 편히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밝고 아늑한 방에 둘러앉아 여유롭게 “함께 읽는 그림동화”는 모두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특별히 기적의도서관은 늘 낮선 경계로 힘들었던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는 고요한 쉼의 공간이 됐다. 서투르고 실수해도 친절하고 너그럽게 아이들 눈높이 응대에 익숙한 직원들 덕분에 우리도 한결 편안한 공간이 됐다. 도서관 이용이 편해지니 용기내서 책도 대출하고 찾아보며 활동도 넓혀갔다. 야외활동도 가능한 도서관 마당에서는 각자 안 쓰는 물건들도 교환하는 소소한 나눔도 가졌다. 나무 아래 모여 앉아 숨겨진 재능도 발휘하며 떠들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도 있어 좋았다. 기적의도서관은 움츠렸던 여린 마음들을 감싸준 열린 품이다. 동화책 한 권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었다.

20년 전 진해에 “기적의도서관”이 처음 생긴다는 소식에 지역민 모두가 전율했다. 전국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도서관이 정말 개관하자 설레던 맘으로 나도 방문했던 추억이 새롭다. 50이 넘어도 그림동화를 읽다 보면 맘 깊은 순수가 파릇이 돋는 묘약이 된다. 동심으로 돌아가야 삶의 험한맛이 채워진다. 여전히 기적의도서관은 모든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풍요로운 요람이다. 해안을 가지고 이곳에 기적을 만들어내신 참 스

승이신 이이효재 선생님과 건강한 울타리 되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한다.

기적은 진행형이다. 빛글 용사와 한빛등대는 참 귀한 보석이다.

2023. 7. 25.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

아이가 어릴 때 살았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다. 군부대 인근에 군인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내가 살았던 곳에 군인가족들이 대거 임시거주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민간인 가족인 우리가 그 사이에 있으면서 군가족 내의 질서와 예의를 모르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

행사며 모임에 얼굴을 비추지 않고 선배 가족에게 깽뚫하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한번은 아이와 함께 승강기를 타자마자 위층에서 내려온 중년 부인에게 대뜸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다.

“자기, 몇 기야?”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로 살면서 어디에도 소속이 없었던 나는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그 질문에 불쑥 이렇게 답하고 말았다.

“북스타트 12기 인데요.”

적어도 육사 내지는 해사 몇기란 답을 기대했던 중년부인은 뜻밖의

“도란도란”은 자립장애인과 함께 의논해서 지은 차(茶) 모임 으로 시작해서, 현재 기적의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으로 이어가고 있다.

대답에 머쓱해하며 그간의 오해를 풀었고 나는 무엇보다 나의 소속을 말하는데 ‘북스타트 12기’가 떠올랐다는 것이 스스로도 놀랍고 재미있었다. 맞다. 나는 진해기적의도서관에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2개월간 진행한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12번째로 수료한 ‘북스타트 12기’ 엄마 중 하나였다. 북스타트를 통해 알게 된 그림책의 힘과 공동육아의 멋에 매료되어 10여명의 엄마들과 도서관에서 책과 뽕굴고 또 들과 산을 누비며 한참 신명나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유아차를 끌고 산책하기 좋을 만큼 걸어 도착하면 아이들 눈에 꼭 맞는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이 펼쳐진다. 아이는 내가 여기 왔다고 ‘방명록’에 지렁이 기어가는 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굵적이고 그 앞을 지키고 섰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신 손자 보듯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주머니 속 사탕을 내민다.

아이는 당연히 받는 사랑으로 여기고 우리집 안방처럼 ‘얼라들방’과 ‘책나라’를 오가며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볼 그림책을 신명나게 넘기고 본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입장하는 친구들을 주인처럼 맞이하고 그렇게 날다람쥐처럼 도서관 곳곳을 누비며 자랐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나중에는 엄마도 아이도 도서관이 놀이터가 되고 쉼터가 되는 매일이 되었다.

‘북스타트와 공동육아’

그렇게 멋도 모르고 시작한 일이었다. 낯설고 힘든 육아를 또래 엄마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마냥 즐거웠고 도서관이 모임터가 되다보니 자연스레 그림책이 중심이 되고 엄마들 각자가 재능을 내어놓아 책놀이를 진행해 노는 것이 보람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품앗이 가족들과 단풍나무 숲이 멋들어진 진해 생태

공원으로 소풍을 갔다가 우연히 산책을 나오신 이이효재 선생님(여성학자이자 운동가이신 선생님은 퇴직 후 진해에 내려와 도서관 운동을 하고 계셨기에 진해기적의도서관에서도 몇 번 뵈었고 ‘도서관 할머니’로도 유명했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다.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는 일이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하는 일이니까요.”

그땐 ‘도서관 할머니’로서 아이들을 워낙 예뻐하시니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는 우리들을 격려하는 말씀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도서관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은 물론 함께 성장하는 우리 자신을 마주하며 이이효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우리들 중 일부는 다양한 책놀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지역 어린이들을 만나 책읽기 지도를 하거나 또 도서관까지 올 수 없는 어린이들을 찾아가 책을 읽어 주는 자원 활동을 했다. 더 나아가 진해 곳곳의 어린이들이 우리가 받았던 행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진해시립도서관 자리를 이전하고 생긴 빈 공간에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무모한 도전을 일삼기도 했는데 결국 3년간 64차례의 거리 집회와 7천 여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내어 지금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 도서관’ 건립에 까지 이르렀다.(이 엄청난 일은 진해기적의도서관 북스타트 대장 선생님이신 배동순 선생님의 용단과 집념으로 가능했으며 도서관 건립이 약속되던 날, 선생님은 강원도 북상골로 신선처럼 떠나셨다.)이 정도면 도서관 엄마들이 제대로 일을 냈고 또 우리가 도서관에서 받은 혜택을 제대로 갚은 셈이다.

도서관에서 아이를 키우며 함께 성장한 우리들은 스스로를 ‘심마니’라 불렀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게 위해 아이들을 학습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책읽을 권리와 행복할 권리를 가지며 도서관과 같은 안전하고 좋은 울타리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십년 뒤, 이십 년 뒤 아이들은 천천히 자신의 힘과 내공을 믿으며 ‘산삼’과 같은 좋은 청소년으로 또 깨어있는 시민으로 자랄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심마니들의 이 같은 도서관 운영 철학은 초대 이종화 관장님의 실천과 노력으로 가능했으며 그분은 우리들을 ‘진짜 엄마’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우리들의 스승이자 멘토셨다.)

그런데 지금 ‘진해기적의도서관 건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도서관에서 함께 자란 아이들을 둘러보니 누가 더하고 덜할 것도 없이 참 멋지게 성장하고 있었다. 도서관 엄마들이 ‘심마니’라면 도서관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금따는 아이들’이라 불렀는데 20년 뒤 지금, 그들이 책에서 삶의 지혜와 지식을 얻고, 이웃과 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꿈을 위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도서관 생활을 통해 배운 ‘금같이 귀한 가치들’이 근간이 되었음을 확신한다.

그래서 지금도 진해기적의도서관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을 ‘심마니’들과 ‘금따는 아이들’을 응원하며 감히 그들에게 이 인사를 전한다.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는 일이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하는 일이니까요.’

기적아,

스물 살 축하해

안녕, 기적아!

우리가 만난 지 어느새 20년이 되었네. 자주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 잘 알지? 아마, 나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 모두 나와 같은 마음 일거야.

기적아, 니가 우리 동네 아이들과 함께 노는 모습을 봤는데 넌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어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한결 같니?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땀을 뻘뻘 흘리는 무더운 날에도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를 반겨줘서 고마워.

요즘 무척 더워서 니도 힘들지? 니가 있는 거리를 오며 가며 니 모습 보니까 올 여름 폭염에 힘들어 보이더라. 소나기라도 한바탕 내린다면 좀 시원할텐데. 친구들 불러모아서 수도꼭지에 호스 연결해서 니 온몸이 시원하게 물을 쫌~악 뿌려주고 싶은 마음이야.

기적아, 스무 살을 맞이한 니 기분은 어때? 니도 우리처럼 기쁘고 행복하니? 니 한테는 20년지기 친구들이 많겠네. 엄마 손 잡고 아장아장 걸어왔던 친구들도 이제 니랑 같이 성인이 되었겠네. 그 친구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궁금하지? 니 스무 살 생일에 친구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해 주고 싶어? 내가 보기에는 친구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야. 예전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 주고 니랑 함께 그렸던 자기 꿈과 미래를 위해서 기운 내라고 전해주면 고맙겠어. 어쩌면 애들한테 니가 기운내라고 말 안해도 니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운을 낼 것 같다.

기적아, 너를 돌보는 분들이 니 스무 살 축하해 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것 알지? 1~3월 어린이 작가전, 2~4월 수기 및 사진 공모전, 5월 13일 20주년 기념 세미나 했지, 9월에는 기적이 사랑한 작가 강연회와 10월에는 음악회와 바자회하고 12월에는 20주년 기념식, 수기 출판기념식, 기념 영상 상영 등 앞으로도 축하 행사가 줄줄이 남아있으니 니도 우리랑 함께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어.

기적아, 그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고 그 품에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줘서 고마워. 지금처럼 우리 곁에 오래오래 있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너의 스무살 생일을 축하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간직한 책 숲 놀이터,

진해기적의도서관

울창한 아파트 숲속에서 살던 우리 아이들은 진해 할머니 집에 놀러 가는 날이 제일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진해기적의도서관에서 책 읽으며 시간 보내기였습니다.

처음 진해기적의도서관을 만난 날은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2006년 4월 어느 날 벚꽃 만발한 도서관 가던 길, 그 속에 작고 예쁜 도서관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와락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여느 도서관처럼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소곤소곤 읽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북적거리는 대도시 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적의도서관이 있는 진해로 이사 오자. (아이들이 크면 다시 가려고 했던 옛집은 추억 속으로 남겨두고, 진해가 너무 좋아 현재도 도서관 옆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 결정은 당연히 진해기적의도서관이 위치한 주변에 집을 구했고, 이사 온 첫날부터 도서관은 우리 아이들 놀이터였습니다. 서가 가득

한 책들을 보는 것만도 행복했는데, 유아부터 초등 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은 어찌나 많았는지 수업 참여하고 유료중 모으는 재미도 아이들에게겐 엄청 컸었나 봅니다. 주말이면 미라클 연주로 아이들의 눈과 귀를 녹여 감성을 키워주셨고, 시간이 지나 우리 큰아이는 미라클에서 연주 봉사하는 아이가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인이 되고, 성인이 곧 되어가는 시점에서 바라볼 때 멋진 어른이며,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릴 때부터 진해기적의도서관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학습해온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착한 인성을 뒷받침해 준 밑거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추억과 소중한 기억이 많은 우리 아이들.. 가끔 휴게실에서 살짝살짝 친구들과 선생님들 몰래 간식도 먹고, 덤거나 비 올 때도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고, 숙제도 하고 문제집도 풀며 같이 성장해 준 진해기적의도서관이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해기적의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혜택도, 해마다 도서관 생일날 주신 선물들은 아직도 애용중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아이들은 이용할 수 없지만, 저희 어린이집 친구들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며 책과 친구 되어 자연스럽게 놀이로 가까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도 북 스타트 수업 적극 홍보 중이며 많이들 등록하셨습니다. 진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사랑했던 진해 기적의도서관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30주년 50주년까지도 파이팅입니다.

P.S 진해기적의도서관아!

우리 예린이, 태은이의 책 숲 놀이터가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 생일축하해. 우리 귀엽고 예쁜 꼬마친구들 많이 데리고 놀러갈테니 또 만나자.

04

나와 함께 성장한 기적의도서관

어린이절 이용자

나에게 도서관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의 역사는 생각보다 더 길지도 모른다. 문자가 없던 시절, 기억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벽화를 새긴 동굴도 도서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후로 점토판, 파피루스, 죽간과 종이까지 기억을 남기는 방법들은 변화했지만 도서관은 그 모든 기록들을 우직하게 보관해왔다. 이 기억과 기록들을 도서관이 지켜주었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수 세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생을 바쳐 깨달은 지식과 지혜를 한 자리에 앉아서 다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살았던 시대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지루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나에게 도서관은 어떤 공간보다도 생동감이 넘치는 장소다. 관중들이 열광하는 스포츠 경기장도, 행복한 경험을 선사해 주는 놀이공원도 무서우리만치 공허한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책이 있는 도서관은 매 순간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책들을 활짝 펼쳐

정독함으로써 잠들어 있던 기록을 깨우는 것이다. 그렇게 도서관의 고요 속에 귀 기울여 보면, 분명 그 속의 기억과 추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도서관이 늘 쥐 죽은 듯 조용해야 하고 책만 읽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접어두길 바란다. 예로부터 도서관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세계 각지의 지식들이 유통되는 도시의 중심지였다. 기적의도서관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해왔기에 나도 책을 읽기 위해서만 이곳을 찾은 것은 아니었다. 나의 추천도서를 직접 공유하거나 이달의 책으로 선정된 책을 읽고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고, 조리 있게 내 생각을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교실을 하며 알지 못했던 과학 지식들을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각종 영어, 건축, 목공 등 다양한 수업을 하며 내공을 쌓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등의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어머니도 북스타트나 책 정리와 같은 봉사활동을 해오셨기에 나도 청구기호를 쉽게 익힐 수 있었고, 이 경험은 내가 학교에서 도서부로 활동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도서관은 나의 유소년기와 청소년기를 함께한 필연적인 공간이다. 어릴 때부터 책을 읽으며 2차원의 문자가 3차원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경험을 해 온 나에게 책들이 가득한 도서관을 마다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도서관에는 모든 지식이 공짜다. 단지 그것을 담을 그릇만 가져오면 된다.'라는 말처럼 그저 책이 있기에 즐겁게 놀기 위해 도서관을 갔을 뿐이지만 나의 그릇을 책 속의 이야기와 지식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재미와 양보다는 내용과 질에 눈이 가기 시작했고, 그동안은 느껴보지 못했던 감명이라는 감정을 느끼며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비록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나에게 기적의도서관은 책과 나를 연결해 주는 가장 편하고도 즐거운 장소다. 책장의 책들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은 그 원리는 몰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나와 도서관에 차분히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기분이 든다.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생각을 나눌 때나 한 자 한 자 소리 내어 책을 읽을 때면 나와 도서관에 그 순간을 차곡차곡 저장하는 기분이 든다.

지금까지 여러 도서관을 다니며 ‘나에게 도서관이란?’이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꽤 있는데, 그때마다 ‘도서관은 동지다’, ‘도서관은 열쇠다’ 같은 대답들을 한 것 같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나에게 도서관은 나무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아무 대가 없이도 나의 선생님이자 마음의 양식이 되어주었고, 기억과 기록을 저장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식물도 기억을 한다고 하지 않는가.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 작은 묘목이었던 나무에 가지가 생겨나고, 잎이 돋아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며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다른 이의 생각을 읽으며 새로운 기억이 새겨진다. 책을 읽는 사람들의 따스한 손길과 행복한 표정을 마주할 때 비로소 생기를 찾는 나무, 영원히 성장판이 닫히지 않는 나무. 나는 이 나무가 앞으로도 생기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

나와 함께 성장한

기적의도서관

올해 초, 대학교 입시가 끝나고 나니 숨 쉴 틈 없이 바빴던 제 삶 속에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시간도,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없이 고등학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인지, 입시가 끝나자마자 찾아온 여유는 조금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 기적의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는 멘토를 맡아볼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숙제로 주어진 수학 문제집을 풀 때 어려운 문제가 있어 답지를 몰래 보며 베끼는 정도로 수학엔 큰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영재원을 다니고, 인터넷 강의와 수 과학 서적을 접하며,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해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어느새 수학 과학을 사랑하는 대학생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긍정적인 영향 덕분에 행복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반대로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제가 자신 있는 분야인 수학을 소개하는 멘토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은 토요일 오전에 2시간 정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각자가 들고 온 수학 문제집을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칠판에 그 문제를 적고 어려웠던 이유를 소개하면 멘토, 멘티 모두가 풀이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멘티들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편한 마음으로 수학을 주제로 멘토와 다른 친구들과 놀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활동명을 ‘기적에서 놀자’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 약간의 떨림과 긴장을 안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 4명이 앉아있었고 각자 자기소개를 마친 후 대화를 나누어보니 멘티들은 수학을 꼭 배워야 하는 필수 과목 정도로만 여기는 듯했습니다. 따라서 수학은 ‘세계를 설명하는 언어이자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흥미로운 도구’라는 제가 느꼈던 수학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중학생 멘티의 첫 질문은 물이 차 있는 원기둥에 반지름이 있는 구슬을 넣었을 때 수면의 높이가 얼마나 높아지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잠긴 물체의 부피만큼 부피가 늘어나는 유체의 성질을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이지만, 모든 학문이 그렇듯 처음 보는 개념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개념에 대한 낯설음을 해소하면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그날의 활동 주제를 그 수학 문제를 현실 세계에 시각화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원기둥 역할을 할 적절한 컵을 찾고, 물을 채우고, 구슬을 대체할 막대사탕의 알맹이를 찾아 문제 상황을 만든 뒤 물리량(구슬의 반지름, 컵의 반지름, 수면 높이 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멘티들과 논의했습니다. 원형인

컵의 반지름을 어떻게 정확히 측정할 것인지, 원에서 원의 중심을 작도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수면의 높이를 재고자 컵 속에 자를 넣었을 때 변화하는 수면으로 인한 오차를 어떻게 보정할 것 일지 등등 수학 문제를 현실에 옮겼을 때 발생하는 오차 요인과 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물리량 측정을 마친 뒤, 수학으로 계산한 이론값과 실제로 측정된 실험값이 비슷한 수치임을 알았을 때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이후 이론과 실험값의 차이가 발생했던 오차 요인에 관해 토론하고, 이 문제가 고등학교 수준으로 확장되면 구슬을 시간에 따라 서서히 넣었을 때 변화하는 수면의 높이를 적분을 이용해 함수로 나타낼 수 있음을 소개하다 보니 2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훌쩍 지나있었습니다. 활동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처럼 복잡하게 진행했던 과정이 과학 연구와 많이 닮아있으니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수학 문제는 상황의 단순화를 위해 수많은 가정을 내포하고 있으니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문제 상황에서 어떤 가정을 두었을까? 아! 이 문제가 현실이었다면 이렇게 고려할 게 많은데, 이 가정을 두어 많이 쉬워졌구나! 이 정도는 내가 풀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라는 태도를 가지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겁부터 먹으면 시야가 좁아져 해결이 잘 안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멘티 아이들이 하나 둘 씩 추가로 들어오면서, 12월부터 2월까지 거의 매주 아이들을 만나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늦잠을 자서 약간 지각한 적도 있고, 모든 수업을 아이들에게 문제집에서 벗어나 현실에 시각화하며 흥미롭게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었기에, 또, 더 많은 것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싶었기에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수

업이 끝나고 멘티들로부터 받는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말과 편지들은 쌀쌀한 겨울의 공허함을 뿌듯함으로 채우기에 충분했고, 앞으로도 이 활동을 확장해서 지속해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소중한 활동을 마치고, 제가 자라면서 받았던 긍정적인 신호들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갓난아기 시절 어머니 품에 안겨 도서관에서 했던 북스타트프로그램(손유희 때 했던 ‘손을 흔들어~ 하나 둘 셋 넷’이라는 박자를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내 장난감들에게 새 주인을 찾아줬던 도서관 바자회, 수과학 스토리 텔링 활동, 영어동화읽기 활동,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잊을 수 없었던 도서관에서 하룻밤, 나만의 작물을 키울 수 있었던 도시 농부 활동, 도심 지역에 사는 새들을 쌍안경으로 관찰하는 탐조 활동 등 새삼 많은 활동에 참여했음을 상기했습니다. 기적의도서관에서 단순히 책을 읽는 것 외에도 이렇게나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기적의도서관에서 항상 멘티로서 좋은 영향을 받던 제가 이젠 누군가의 멘토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아기때부터 도서관과 함께 성장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공유하며 누군가에게 등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감격스러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적의도서관은 만남과 배움의 장소인 동시에 성장과 사회 환원이 공존하여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매개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과 어른, 남녀노소 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두를 위해 항상 더 좋은 프로그램, 책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계신 관장님, 선생님들과 자원활동가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그리움

내 기억속의 기적의도서관은 그리움이다. 엄마께서 매주 토요일 마다 나를 기적의도서관에 데리고 갔다고 하셨는데 너무 어릴 때라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친구들과 앉아서 한자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고, 재미있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난다. 악기소리가 나서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면 언니 오빠들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었다. 바이올린이 배우고 싶어서 유치원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하고 할아버지께 바이올린 사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난다. 초등학생이 되면 바이올린 연주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기적의도서관 바이올린 팀인 미라클 합주단이 잠시 쉬어서 등록하지 못해 많이 아쉬웠다.

어떤 날은 기적의도서관에 가면 할머니가 책을 읽어주셨는데 난 그 시간이 제일 좋았다. 그 곳은 아기 방이라 내 또래 아이들이 없어 조금

부끄러웠지만 할머니는 내게 나가라 말씀하시지 않았다. 또, 할머니가 워낙 재미나게 책을 읽어주셔서 이야기 속에 푹 빠져들었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항상 아쉬웠다. 줄 서서 도장 받고 도장이 채워지면 선물을 받았던 기억도 난다. 추천도서 책 선생님이 내가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대충 읽었는지 확인하려고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대답을 잘해서 칭찬을 받았다. 나는 도장을 받으러 갈 때 마다 책을 잘 기억하려고 엄청 열심히 읽었던 생각이 난다.

초등학교 삼학년 때인가 조심조심 2층 서가에 올라갔는데 와 여기는 내가 못 보던 책들이 많이 있었다. 무슨 책이 있나! 책꽂이를 찬찬히 살피는데, <오체불만족>이 라는 책이 있었다. 오체불만족. 책제목이 어려웠다. 책을 빼서 보니까 팔다리가 없는 어떤 아저씨가 휠체어에 앉아 있어 깜짝 놀랐다. 내용이 궁금해서 그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저씨가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나는 세상에 이러 사람도 열심히 사는데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2층 서가는 나에게 보물 창고였다. 해리포터도 이곳에서 만났고 프랑켄슈타인도 이곳에서 만났다.

이건 비밀인데 난 기적의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간 기억보다 바나나 빵이 먹고 싶어서 갔던 기억이 더 많다. 엄마는 내가 배고플 때 간식 사 먹으라고 항상 2000원을 줬는데 바나나 빵 아저씨는 늘 정해진 양보다 바나나를 한 개씩 더 넣어줬다. 언제나 웃으면서 맛있는 바나나 빵을 구워주던 아저씨가 제일 그립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기적의도서관

기적의도서관에서 나는 책 한권을 펼치면 어디로든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기적의도서관 옆인 석동초등학교에 다니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도서관을 마치 놀이터처럼 다니곤 했다. 다양한 책뿐만 아니라 디지털 컴퓨터에서 들려주는 전래동화를 듣기도 했으며, 도서관 합창부에 들어가 취미 생활을 하고, 어린이 기자단에 들어가 기사를 쓰는 방법도 배웠다.

기적의도서관을 집만큼 들락거리며 다양한 활동들을 체험하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며 다양한 분야의 배경지식을 쌓고, 사회성을 길러질 시기에 다양한 친구들과 활동하며 정서적 발전을 도울 수 있었다. 이것은 내가 사회 생활을 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되었던 나의 강점이 됐다.

대학생이 된 나는 여전히 밴드부에서 음악을 하고, 신문방송학과에서 기사를 쓰며, 밤마다 책을 읽는다. 어렸을 때 기적이 도서관이 만들어

준 나의 생활방식은 어른이 된 지금도 내 삶에 가득히 묻어 있다.

어릴 적 나는 책 읽는 게 너무나도 좋았다. 기적의도서관에서는 책을 5권쯤 빌릴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침대위에 책을 가득 올려 두고 책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매일 5권의 여행을 마치고 했다. 어떤 책에서는 모르는 나라로 여행을 가고, 어떤 책에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어떤 책은 나를 흥미진진하고 무섭게 만들었다.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기승전결을 자연스럽게 익힌 덕분에 복수전공을 하고 있는 영화영상과에서 다양한 장르의 단편 영화를 제작할 때에도 시나리오의 기승전결을 어렵지 않게 적을 수 있었다.

책은 초등학교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한다. 삶에 지치거나 힘들 때 혼자 책을 읽으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다. 기적의도서관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이런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성인이 된 요즘도 종종 기적의도서관에 가곤 한다. 유아, 초등, 책 뿐만 아니라 자기개발, 수필 등 성인이 된 후에도 찾을 수 있는 많은 책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적의도서관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도서관에 와서 내가 얻었던 귀중한 경험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기적의도서관에게

안녕, 내가 가장 사랑하던 공간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 너가 20살이 라니 믿기지가 않아.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았구나? 어렸던 내게 너무나도 커 보였던 너였기에, 너가 품고 있는 수세기의 이야기들 덕분에,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었나봐. 도서관에 살다시피 했던 나여서 그런지, 너의 모든 공간 곳곳에 추억들이 가득 떠올라. 자원 봉사자 선생님들 눈을 피해 몰래 2층에 올라가 책을 읽기도 했고, 도서관 옆 키재는 공간에서 엄마랑 키가 얼마나 컸는 지 재보기도 하고, 자원 봉사자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으며 나도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 하기도 했었어.

난 계절이 바뀌는 순간을 너로 인해 체감했던 거 알아? 계절마다 바뀌는 도서관의 테마들에 담긴 계절의 색들이 너무 다채로워서, 다음 테마는 무엇일지 기대하며 그렇게 계절을 기다렸던 것 같아. 어렸던 나에

게 너가 내 하루의 전부였거든. 들어봐. 아침 일찍 도서관에 도착해서, 몰래 선반 아래 숨겨뒀던 책을 찾아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컴퓨터 쪽 구석 자리에 비집고 앉아서 책을 읽으며 오전을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책을 정신 없이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사람으로 꼭 찬 널 발견할 수 있지. 때를 틈 타, 자원 봉사자 선생님들 눈을 피해 어른들만 올라갈 수 있는 2층 자리로 올라가서 책을 마저 읽었어. 이땐 좀 조심해야 했지. 그렇게 책을 읽다, 책 읽어주는 시간만 되면 후다닥 제일 앞 자리를 선점해서 반짝이는 눈으로 이야기를 듣고, 가끔 날이 선선할 때는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해서 상품들도 따고, 그렇게 신나게 즐기다가 슬슬 집 가기 전 집에서 읽을 책들을 야무지게 골라서 두둑이 챙겨 들고 나서곤 했어. 이 하루 동안 내가 마주한 이야기들이 몇 개인지 아니?

덕분에 내 별명이 책벌레였어. 벌레는 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덕분에 책과 관련된 상들은 전부 내 차지였어.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집에서 너로 향하기 까지의 거리가 MP3로 좋아하는 노래 3곡만 들으면 금방이었던 거 알아? 딱 기분 좋게 걸어가는 발걸음의 끝이, 이름도 정말 기적처럼 ‘기적의도서관’이더라. 맞아. 널 만난 건 기적이었던 것 같아. 어쩌다 책이 내 인생에 당연해지고, 어느 새 우리 가족이 진해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은 가족으로 뽑힌 것 까지 말이야. 너 문지방은 아마 내가 절반은 다 닳게, 아니다, 이건 너무 과장 같으니, 5%는 닳게 했을 거야. 우습게도 나의 매년 목표는 '이 도서관에 있는 책 전부를 읽어야지'와 같은 다짐이었어, 그 덕분에 정말 다양한 책들을 읽게 되었지. 위인전을 읽고 지금은 말하기에 낯부끄러운 꿈을 다짐하기도 했고, 추리 소설을 읽으며 여러 번 헛된 추리를 하기도 했어. 그땐 어떻게 그렇게 책에 푹 빠져 살았었던 걸까.

널 떠올릴 때면, 그때의 내가 생각나서 좋아. 지금은 한 권의 책을 골라 읽으려면, 베스트 셀러인지, 무슨 내용인지, 작가는 누구인지 등을 고민하곤 하는데, 그때의 나는 산뜻해 보이는 색의 표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책을 골라 읽기도 하고, 제목이 귀엽다는 이유로 읽기도 했거든. 나만 읽고 싶은 책인데, 누가 빌려갈까봐 몰래 선반 위에 올려 두기도 하고, 방석 뒤에 숨겨두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숨겨둔 책을 읽을 생각에 설레기도 했었던 내가 그리워지는 요즘이야. 요즘의 나는 이제 너보다 더 큰 사회를 마주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너가 스무살이 되었듯, 나 역시 나의 스물 너머를 준비하고 있지. 너의 영향으로, 꾸준히 가슴 속에는 말하기 낯부끄러운 꿈을 품고 소설의 작가 마냥 드문 드문 즐거운 상상을 하기도 해.

이 편지를 너가 읽을 때 쯤이면, 가을이려나. 가을에는 단풍이 예쁘다는 핑계로 널 보러 가야겠다.

알록달록한 단풍잎보다 더 다채로운 기억들을 나에게 남겨줘서 고마워. 널 생각하며 편지를 쓰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니, 정말 행복했던 기억만 가득 했나봐.

20살 축하해. 누군가에게 또 기적을 선물하고 있을 너의 20살이 기대가 되네!

행복을 나누는 네버랜드

진해기적의도서관

유년시절 우리 집 인근의 진해기적의도서관은 나에게 아주 크고 재미난 것들로 가득한 놀이동산이었다. 그 곳에서 나는 매번 시끄럽게 뛰어다닌다고 혼나던 아이 중 한명이었다. 손엔 항상 와이(WHY) 책과 그리스로 마신화 만화책을 쥐고 말이다.

언제나 학교를 마치면 도서관 공원에 들어가 뛰어놀다 지치면 휴게실에 들어가 코코아 한잔을 마시며 도서관 투어를 시작했다. 재미나고 흥미로웠던 게 많았던 도서관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기적과 같은 공간이었다.

그때도 진해기적의도서관에는 책 읽고 생각나누기 라는 추천도서 프로그램이 있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고 책읽기엔 흥미가 없었던 나에게 책 읽고 생각 나누기는 추천도서를 핑계로 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내 하루를 책과 함께 공유하며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중학생이 된 나는 조금은 차분해진 모습으로 책을 정리하는 봉사자로 도서관을 가게 되었다. 키가 조금 커졌다고 도서관이 작아진 기분이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추천도서 읽고 생각 나누기 봉사자로 몇 년 전부터 활동하고 계셨던 엄마 덕분에 함께 아이들의 이야기와 생각을 들어줄 수 있는 추천도서 선생님이 되어 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어릴 적 느꼈던 따뜻한 마음을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봉사활동에 임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에 집중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낮을 가리던 아이들도 밝은 얼굴로 먼저 인사를 하며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었고, 수줍은 얼굴로 내 손에 사탕을 꼭 쥐어 주고 가는 고사리 손에서 작은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봉사활동이 되었다. 덕분에인지 주말 오후 봉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가족 봉사단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나로 인해 따뜻한 추억이 생긴 아이들도 커서 자신의 행복을 사람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커졌다.

이렇게 진해기적의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온 행복한 시간들 덕분에 나는 큰 고민 없이 사회복지학과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고 졸업 후 첫 직장으로 나의 재능을 사회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부모님과 언니와 나는 가족봉사단으로 진해기적의도서관에 매주 주말을 함께 보낸 지도 벌써 7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아마 우리 가족 모두가 진해기적의도서관에 스며들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진해기적의도서관은 이와 같이 나의 유년기와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는 추억의 장소이자 내 삶의 원천이 되어준 아주 고마운 곳이다.

나의 어린 시절 행복한 추억을 선물해준 진해기적의도서관이 직장인이 된 지금까지도 행복을 나누는 봉사로 이어지듯, 진해기적의도서관에서 많은 아이들이 꿈을 만들어가고 같이 성장하며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해기적의도서관

아마 많은 독서가에게 도서관은 각별한 장소일 것이다. 나 역시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근처의 도서관에서, 혹은 근처에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안정감을 느끼곤 했다. 수많은 타인의 이야기로 뻘뻘하지만 시끄럽지 않은 곳. 혼자이면서도 혼자이고 싶지 않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곳. 내가 나로서 받아들여지는 곳.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일 수 있는 곳. 도서관은 늘 내게 그런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진해기적의도서관은 내게 특별하다. 어쩌면 내가 도서관을 편안한 곳으로 느끼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이곳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어린 시절의 많은 부분을 진해기적의도서관에서 보냈으니까. 이곳에서 나는 평생의 친구가 되어줄 이야기를 만나기도 했고 시시껄렁한 이야기에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진해기적의도서관이 특별한 이유는 이곳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누군가로부터 환대받는 경험. 어딘가에 받아들여지는 경험. 그러니까, ‘여기가 네 자리야’ 하는, 어떤 승인을 받는 경험. 그것이 어린 사람이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나는 어른이 된 지금에서야 어렵듯이 체감한다. 바깥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책 읽는 어린이’이기만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것. ‘어린이 도서관’으로서 진해기적의도서관이 내게 준 그 경험이 나의 많은 부분을 만들고 또 지켜주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게 나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다. 도서관은 모두를 위한 곳이니까. 그것이 도서관의 가장 멋진 점이니까.

‘노키즈존’의 시대에 너무나도 손쉽게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어린이들에게, 진해기적의도서관이 소중한 환대의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이십 년간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기적을 낳는 곳,

기적의도서관

어릴 적 진해기적의도서관 옆에 살았던 나는 어머니와 함께 도서관을 자주 방문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활동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나에게 기적의도서관은 단순히 책이 많은 곳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었다. 특히, 중학교 때는 도서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는 어머니께서 운영하셨던 7세-8세를 대상으로 한 ‘노래로 배우는 한자 프로그램’에 도우미로 참여하여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였다.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내가 도서관 속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얻었던 지식뿐만 아니라 나눔의 가치까지 어린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또한 도서관에서의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는 고등학교 교사라는 꿈을 이루기까지의 소중한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나는 도서관에서 재능기부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책 제자리에 꽃겨

나 정리하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 편집 및 정리하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다.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으면 혼자나 친구들과 함께한 학생들, 얼마나 아빠 손을 잡은 꼬마아이들 등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동네에 기적의도서관처럼 이렇게 큰 도서관이 위치한다는 것이 행운임을 느꼈다. 아마도 도서관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기적의도서관을 하나의 쉼터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드나들며 행복하게 독서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도서관에서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독서논술 프로그램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이 프로그램에서 나는 평소에 즐겨 읽지 않았던 시사나 역사 관련 책들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읽었고, 해당 독서와 관련된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 및 논술을 해보았다. 독서논술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할 기회를 얻었고, 책에 대한 흥미와 애정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이렇듯 진해기적의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후 활동에 대한 안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힘을 써왔다. 이러한 노력은 내가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할 기회를 주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었다.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한번 씩 영화상영을 하였는데, 영화가 상영되던 도서관 강당은 나와 친구들이 함께 영화를 보며 우정과 추억을 쌓았던 장소 중 하나이다. 해리포터나 마틸다 등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상영될 때면 나는 영화를 보고 난 후 도서관에서 직접 책을 찾아다시 읽어보았다. 원작 소설을 읽은 후 영화의 줄거리와 비교해보며 영화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를 찾아보고, 소설을 쓴 작가의 다른 책들

을 찾아 읽어보기도 하며 도서관에서의 영화감상 활동은 단순한 여가활동으로 남지 않고, 나로 하여금 더 많은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

교사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면 학생들에게 독서활동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낀다. 그리고 매번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독서활동에 흥미를 붙였다면 지금까지 독서활동이 이어져 왔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든다. 내가 어린 시절 많은 도움을 받고 늘 이용했던 도서관을 다른 아이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면 기적의도서관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를 책임질 새싹들의 터전이자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것이다. 진해기적의도서관이 오랫동안 제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독서활동을 할 수 있는 안식처이자 희망의 장소로 남기를 바란다.

기적의도서관을

추억하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지난날을 회상하며 ‘그때 그랬었지’라며 희미하게 미소 짓게 만드는 특별한 공간이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도서관이 내게는 그러했다. 이 코너 저 코너를 기웃거리며 조금 읽다 다시 꽃아 넣고를 반복하다 드디어 ‘그 책’을 만나 가장 편안한 자세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읽었다. 고요하면서도 따뜻한 공기, 기분 좋게 눈부신 햇살과 함께 말이다. 이제는 그 당시 내가 무엇을 읽었었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지금에서야 돌아보면 그 때 내가 읽은 건 문화였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어린이에게 시험공부, 입시 대비를 위한 딱딱한 것들만이 책이 아니라고, 책이라는 것도 즐거움을 준다는 메시지를 진해기적의도서관이 말하고 싶지 않았나 싶다.

그런 의미에서 진해기적의도서관은 내게 특별한 도서관이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 다니지 않는 이상 문화 체험의 기회가 없던 어린 내게, 넘치

도록 풍요로운 경험을 선물해줬다. 마치 사랑하는 조카가 편식하지 않도록 다양한 맛집으로 이끄는 이모처럼 말이다. 기적의도서관은 때로는 중학교 형, 누나들의 멋진 음악회로, 때로는 또래들과의 독서토론이라는, 내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귀중한 경험을 선사했다. 그것은 일상이라는 익숙한 경계 속에 있던 어린 내게 노크를 하며 이 밖도 즐겁다고, 이 밖도 재밌는 게 많다고 손짓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너도 이 넓은 밖에서 유영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 것 같다.

어른이 되어 다양한 지역의 도서관을 다닐 기회를 얻었지만, 그 어디도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진해기적의도서관이 가지는 의미는 각별하다고 생각한다. 어린이들이 부담 없이 있을 수 있는 도서관, 어린이가 책과 문화를 사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도서관이기 때문이다. 아이들 웃는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요즘, 더더욱 이러한 20년의 ‘기적’이 기쁘게 느껴진다.

미라클 키즈의

성장이야기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초등학교 재학시절 오후 10시만 되면 잠자리에 들기 바빴던 제가 진해에 ‘기적의도서관’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MBC [느낌표]라는 프로그램 중 책읽기 프로그램을 처음 시청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손에 이끌려 공터에서 이뤄졌던 착공식에서는 ‘공터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라는 어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기적의도서관이 개관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깨끗한 시설과 그 당시 독특했던 외관과 인테리어가 제 이목을 끌었습니다.

“사춘기 소녀의 꿈을 일깨워준 소중한 기적의도서관 행사”

기적의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사서, 도서관 캠프, 작가와의 만남 및 다양한 문화공연 등 여러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사서 프로그램은 책과 도서관이라는 존재가 다소 이질적이었던 저에게 책과 친

해질 수 있는, 그리고 도서관에서 타인을 도우며 배려심을 길렀던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훗날 제가 여러 해외경험과 학원생활에서의 밑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책 한권을 읽고나서 저에게 와서는 일종의 독서검사를 받았는데, 조그만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이리저리 책을 설명하는 것도, 본인이 책을 읽고 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모습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진해지역에서만 거주했던 저에겐 특히 문화공원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피아니스트 ‘이루마’와 마술사 ‘이은결’의 공연은 아직도 제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을 정도로 감명 깊었습니다. 피아니스트의 공연을 보며 처음으로 클래식이라는 음악장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벨소리를 ‘Kiss The Rain’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술 공연을 보면서 그의 쇼맨십에 감탄했고 다음에 저런 문화공연을 기획하고 싶다는 장래희망 또한 마음속 일부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외에도 ‘진해기적의도서관’이 독서토론, 인형극 등 코로나 시대 이후로 문해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에게 책과 가까워질 수 있고 책을 통해 외부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 앞으로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라클 키즈, 세계를 탐험하다”

저의 해외생활 첫 시작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직전 겨울방학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우연히 1달간 인도 배낭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TV에서만 보던 이질적인 문화를 느끼며 1달 동안 20kg에 육박하는 가방을 메고 여행하다 보니, 학창시절 ‘기적의도서관’에서 읽었던 ‘한비야’작가

님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ODA 및 국제구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는 ‘월드비전’을 통해 2명의 해외아동후원 중입니다.

인도에서의 경험 덕분에 외국어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고등학교 시절 소극적이었지만 영어만큼은 수업시간에 열심히 발표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내 방송으로 희망자에 한 해 ‘Speaking Class’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저는 인터뷰장소로 도착해 있었습니다. 인터뷰 순서는 제가 제일 마지막이었고 긴장한 채로 인터뷰를 마친 후 담당선생님께서 교내에서 영어회화는 제일 유창하다며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어 더욱 어학공부에 매진했고 그 결과 ‘외국어 대학교’에 진학해 더 큰 사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진학한 대학교에서는 해외 체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2012년에는 한달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2013년에는 ‘인도’ 지역에 현지조사를 떠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았습니다. 당시 현지인들의 ‘fast fashion과 slow fashion 사이의 선호도 조사’라는 현지조사를 진행했는데, 생각과 달리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도인들은 전통의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요르단의 결혼문화’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현지에 파견된 같은 팀원들은 이슬람 금식기간인 ‘라마단’기간과 겹쳐 힘들었고 저는 그들과 시차를 맞춰가며 밤새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했기에 고단했지만 즐겁게 연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2014년에는 해외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2016년 2월, 대학졸업 시기에는 학교내 해외취업 희망자들을 위해 특강에 참가하여 인도취업을 위해 노력했습니

다. 지금 생각하면 다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젊음의 패기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 및 공기업을 중심으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마침내 ‘KOTRA(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뉴델리 무역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맡았던 업무는 국내기업의 현지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업무였습니다.

다양한 행사를 틀에만 맞추어 하다 보니 더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약 2년간의 ‘뉴델리무역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국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진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검정고시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약 1달 간 진행한 후 동남아의 중심 허브인 ‘싱가폴’로 떠나게 됩니다. 일전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인도에서 잠깐 싱가포르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의 좋은 기억과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접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갔지만, 우연치 않게 ‘두바이’에 지사가 있는 ‘싱가폴’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약 1달간의 싱가포르 생활을 청산하고 이번에는 ‘두바이’로 떠나게 됩니다.

‘두바이’에서는 전시, 마케팅, 홍보, 이벤트 등 성장을 위해서는 뭐든 시도해봤습니다. 20대의 젊은 패기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는 전혀 힘들지 않았고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외롭긴 했지만 그때마다 좋은 친구들이 하나 둘 생기게 되었고 본업에 충실하니 주변에 좋은 인맥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세제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 두바이 생활은 1년으로 정리하고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돌고 돌아 교육업으로”

어린시절부터 영어에 관심이 많았고 타인을 가르쳐줄 때 희열감을

느낀 저였기에 언젠가는 교육사업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 세계를 강타한 사건에 오히려 저에게는 전화위복이 된 셈이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조금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처럼 다양한 해외생활을 한 사람들이 지방에는 특히 몇 없다고 생각하기에 저와 접할 아이들이 저로 인해 다양한 해외생활을 하고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목표가 생기니 자연스레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유행하던 ‘론다 번’의 ‘시크릿’이나 ‘캘리 최’의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웰빙킹’이라는 책에서 보면 비전보드를 통해 꿈을 이루고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통해 그 꿈을 현실로 만든다는 구절이 실제로 제 인생에서도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생은 현재 학원 개원일 기준 약 5배 증가했으며 현재는 제 지난 20대의 경험을 살려 ‘해외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유학원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겨울, 다시 저의 첫 해외생활의 시작이었던 1달 배낭여행 프로그램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대를 돌이켜보면 ‘후회없이 잘 살았구나!’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후회없이 여러가지 경험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뒷배경에는 ‘기적의 도서관’활동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의 나, 그리고 미래의 여러분, 우리 모두 미라클”

대학시절 갑작스레 자퇴하고 미국으로 떠난 선배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미래에 대한 여러가지 고민 중 요식업에 뜻을 가지고 학교 및 지역도서관에서 여러 책들을 읽으며 미래에 대해 그려보곤 했다고 합니다. 개그맨 ‘고명환’씨는 여러가지 사업실패 후 책에서 정답을 찾아가

며 현 사업을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교과서나 고등모의고사 및 수능 영어지문에서도 책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현명한 해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구절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진해기적의도서관’은 모든 이들에게 이런 귀중한 경험을 제시하기 위해 어린아이 시절부터 다양한 독서 및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겪었던 여러가지 경험들이 현재의 제게 큰 자양분이 되었듯, 지금의 저는 미래의 제게 더 큰 자양분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기적의도서관 프로그램’ 및 많은 독서를 통해 미래의 기적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의도서관과의

작은 인연

안녕하세요 기적의도서관 개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적의도서관과 저 사이에 작은 인연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연은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TV에는 책책책 책을 읽습시다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진해에도 기적의도서관이 건립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친구들과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뻐할 새도 잠시 방송국에서 초등학교 부근을 지나가는데 저희의 모습을 촬영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얼른 노란색 종이로 비행기를 접어 육교로 올라갔고 카메라를 향해 힘껏 날렸습니다. TV에 나오는 저를 보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웅기종기 모였고 당시 3초 만에 제 모습은 지나갔지만 그 또한 기쁘다며 하하 호호 웃으며 즐겁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이 개관한 이례에 이곳은 저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도서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편안하고 자유로이 책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에 반해버렸거든요. 한 번 기적의도서관에 방문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읽곤 하였습니다.

어느새 기적의도서관 나이가 두 자릿수가 될 만큼 시간이 흐르고 저도 꿈을 이루어 유치원 교사가 되었습니다. 제 직업은 기적의도서관과 또다시 인연을 맞이하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인연은 기적의도서관에 인형극을 보러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공간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할 생각을 하니 설레기도 하고 제가 더 들뜨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도서관은 세월이 흐른 것이 무색할 만큼 그 자리 그대로에서 저를 반겨주는 듯했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것이 미안할 만큼 기적의도서관은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로 더욱 견고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아이들도 기적의도서관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좋았다고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적의도서관을 통해 책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 꾸러미도 나누어 주시고 재미있는 행사와 책들도 가득 하니 아이들은 오는 게 즐거울 수밖에요. 저희들은 이곳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도서관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저의 아지트였던 곳이 이제 아이들에게도 또 다른 아지트로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기대 이상으로 좋아하며 행복해하는 표정을 짓는 아이들을 보니 함께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을 몇 번 더 방문한 후 아이들은 교실에서도 책을 손에 놓지 않고 읽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매주 매달 친구들이 흥미 있어 할 책들로,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책과 관련된 새로운 독후 프로그램을 만들며 아이들과 자신만의 생각을 넓혀갔습니다. 저에게도 또 다른 도전이었고 행복한 바쁨에

허우적대기도 했지만 뿌듯함이 더 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연은 창원 문화도시 뜨신 편지 촬영에서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따숨 봉사회는 받은 편지를 마음과 응원을 담아 익명으로 답을 보내 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뜨신 편지를 받는 우체통 중 하나가 바로 기적의도서관에 있답니다. 영상은 받은 뜨신 편지들을 모아 답장을 쓰는 것에서 시작하여 도서관 곳곳과 방문한 분들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비행기를 잡고 날리며 촬영이 마무리되었는데 초등학교 때 제 모습과 겹쳐지며 잠시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저의 추억 상자를 열어보고 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이렇게 개관 20주년 수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글 솜씨이지만 저 이 정도면 기적의도서관과 인연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인연을 통해 20주년 수기집에 한 페이지를 담을 수 있게 해주신 주홍진 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말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회원분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도서관 관계자분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진해기적의도서관에 많은 방문과 아낌없는 이용 부탁드립니다. 기적의도서관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기억이 되길, 이름처럼 희망과 기적이 샘솟는 도서관이 되길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살, ‘도서관 아이’는 이렇게 놀고 있다

어릴 때 읽었던 그리고 아직도 내 책장에 꽂혀있는 채인선 작가의 ‘도서관 아이’. 도서관을 좋아하는 엄마를 따라 아기 때부터 도서관을 제집처럼 누비며 세상과 만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웠던 주인공 ‘솔이’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다.

미래의 과학도를 꿈꾸며 재능과 끼, 놀라울 정도의 스펙과 이력을 가진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늘 당당하고 여유로울 수 있는 건 ‘도서관 아이’로 자랄 수 있었던 귀한 경험들 때문이다. 그림책 속 ‘솔이’가 ‘도서관 아이 1호’라면 나는 ‘도서관 아이 몇백 호’즈음은 되겠지만 우리나라 곳곳에 더 많은 ‘도서관 아이’의 탄생을 바라며 ‘진해기적의도서관 20주년’을 맞아 ‘나의 도서관 이야기’를 적어 본다.

호랑이가 온다고 해도 우는 아이에게 ‘꽃감 줄게. 울지마라’로 했더니 울음을 푼 그쳤다는 옛이야기처럼 어린 시절 도서관은 나에게 딱 ‘꽃감’

같은 존재였다. 실제로 난 올다가도 엄마가 ‘도서관 갈까?’ 하면 신발부터 신던 아이였다. 마냥 책이 좋았던 책벌레여서가 아니라 도서관 입구를 지키고 계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따뜻한 눈 맞춤이었을 수도 있고 관장님의 화수분 같은 사탕이었을 수도 있고 그림책을 마주하면 한없이 따뜻했던 엄마의 냄새였는지, 아니면 함께 놀 수 있는 또래들이 늘 거기 있어서였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서서히 깊게 스며들었던 좋은 경험과 편안함이 늘 나를 도서관으로 이끌었던 것은 확실하다.

나는 내 아이뿐 아니라 이웃의 아이도 함께 잘 키우겠다고 의기투합한 도서관 엄마들 덕분에 ‘배꼽 친구’가 무엇인지 아는 ‘공동육아’를 경험하며 자랐다.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과 든든함 속에서 관계의 즐거움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배웠고 함께여서 못할 것이 없는 용기와 자신감은 신기한 세계와 모험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를 이끌었다.

말로만 들었던 벼룩장터에 어릴 때 사용했던 내 물건들을 늘어놓고 팔았던 일, 파닉스가 뭔지도 몰랐던 꼬맹이 시절 영어 대사를 외우며 요정 옷을 입고 무대를 누볐던 일,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친구들과 그림책 주인공이 된 것처럼 노래하고 춤췄던 일, 이 외에도 미지원단에서 외국 친구들과 했던 풋볼 경기, ‘알콩달콩 도서관’ 방송 통신원 활동, ‘금파는 아이들’로 노래했던 중창단 활동 등... 선행학습을 쫓으며 학원가를 전전공공했다면 절대 얻을 수 없었던 산교육을 나는 도서관에서 누렸다.

지금도 나는 학교에서 다양한 도전을 일삼고 있는데 예컨대, 과학연구와 부산과학관 교육 봉사를 하는 Phi-Zone, Physi-KYPT 동아리 활동, 학교 과학축전을 준비하는 KSA 추진위원회, 록 밴드인 ‘스터전’ 활동, KSA TIMES 기자 활동, 학교 사안에 대해 회의를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생활자치부 활동 등은 도서관 아이로 지냈던 술한 경험의 발로이며 도서관에서 놀았던 대로 지금도 나는 잘 놀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서관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건 ‘책’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친구를 선물한 곳이기 때문이다.

대여섯 살쯤 그림책을 가리는 앞머리가 성가셔 긴 머리카락을 가위로 사정없이 잘라버렸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때 망연자실한 엄마 앞에 낭랑하게 머리카락이 그림책을 못 보게 하잖아요’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나는 그림책을 좋아했다.

나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자란 친구들도 그러했는데 우리는 도서관 앞마당에서 손톱이 까매지고 등에 땀이 흥건하도록 뛰어놀다가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삼삼오오 도서관 서가에 자리를 잡고 해가 지도록 책을 읽었다. 또 놀다가 심심하면 도서관에서 준비한 다채롭고 신나는 책 놀이를 즐겼고 또 사탕과 젤리가 가득한 관장님 실을 기웃거리며 놀았다.

그렇게 공기와 물처럼 자연스럽게 익혔던 책임기는 지금도 나의 가장 행복한 취미 중 하나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의 관심과 호기심을 채워주고 또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비타민 같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도 나는 나를 소개하는데 ‘진해기적의도서관’을 빼놓지 않는다. 도서관은 나에게 미래를 꿈꾸게 했던 ‘책 놀이터’이자 ‘상상 공작소’였으며, 친구와 놀이가 가득한 ‘동네 골목’,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좋은 어른들의 모임’,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하는 ‘21세기 마을 공동체’, 깨어있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라게 했던 ‘바른 시민 인큐베이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길을 잃어 부딪히게 되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고 나아가게 할 ‘지혜의 등대’임을 믿기 때문이다.

공간의 소중함

나는 공간의 소중함을 매년 깨닫는다. 내게 가장 중요한 공간은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그 공간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나는 그 공간에서 무엇을 얻어 가는지가 중요하다. 이외에도 그 공간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지, 그 공간에 머물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또한 내가 머물 공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요즘은 어떤 장소를 가더라도 돈이 든다. 카페, 숙박시설, 놀이공원, 음식점,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도 지불하기 부담되는 금액이 필요한 공간들이 많은데 하물며 적은 용돈을 받는 아이들은 어떨까.

학생들에게는 집과 학교, 학원 외의 휴식 공간, 학습 공간, 건강한 도피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적의도서관서관은 한여름 시원한 곳에 들어가고 싶을 때, 학교나 학원 공부는 하기 싫지만 새로운 배움을 얻고 싶을 때, 친구들과 다투고 동네에서 친구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찾

던 공간이다. 내게는 도서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곳이다.

나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든 공간

학창시절 기적의도서관서관에서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은 적이 있다. 이 글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이라면 언젠가 한번쯤은 꼭 읽게 된다. 이 글을 읽고 나를 가장 크게 지배한 감정은 분노였다. 단순히 경제적 지배층과 빈민 사이의 불평등을 넘어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을 되새길 수 있었다.

대학진학 때문에 상경한 후, 대학이 소재한 용산구에 도착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용산참사’였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으며 느꼈던 분노가 그 지역을 단순히 주거지로 보지 않고 재개발 지역 임대인과 철거민 사이의 불평등과 철거민들의 고통이 존재했던 곳으로 바라보게 했다.

같은 글을 읽더라도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는 결국 읽는 사람의 가치관이 결정한다. 가치관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과도 같은데, 어떤 음식을 만들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준비하듯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가 정해져야 목표를 향한 모든 과정을 준비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글을 읽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은 어떤 책을 읽으며 성장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나는 진해기적의도서관 유치를 위해 힘쓰신 이이효재 선생님의 뜻을 이어 받고 선생님께서 평생을 바쳐 추구하신 ‘평등·평화·공동체’를 위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한국YWCA연합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전 세계의 여성 청년들을 만나 서로가 받은 차별에 공감하고 아파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했다. 기적의도서관서관은 나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든 공간이다.

나를 당당한 사람으로 만든 공간

며칠 전 토론대회를 준비하는 조카가 “나도 이모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평소 사람들과 대화할 때나 발표할 때 어떻게 그렇게 떨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당당하게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제에 대한 내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글이나 말은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결국 말 잘 하고 글 잘 쓰기 위해서는 논리정연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독서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교내 도서관을 찾고 입시 중에도 계속해서 책을 읽게 된 건 어린 시절 기적의도서관서관에서 꾸준히 책을 읽었던 덕분이다. 나는 미취학 아동 시절부터 어른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꼭 서점에 들렀다. 진해에 있던 ‘학예서점’ 문턱이 닳을 정도로 자주 방문했는데 사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 고르는 데에만 3,40분이 걸렸다. 결국 고르지 못해 여러 책을 끌어안고 있으면 엄마가 오늘은 딱 한권만 사고 돌아가자고 할 정도였다.

그런데 집 근처에 기적의도서관서관이 생겼다. 읽고 싶은 책이 많아 사고 싶은 책도 많았던 나는 책을 사지 않아도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게 됐다. 시간만 생기면 기적의도서관서관을 찾았다. 아직도 ‘학교 가는 길’이라는 음악을 들으면 기적의도서관서관에 있던 도서 검색용 컴퓨터가 떠오를 정도다.

이렇게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을 들인 결과, 말하고 글 쓰는 것이 두

렵지 않은, 오히려 그것들을 즐기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준 기적의도서관이란 공간이 나를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진해를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 공간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요즘 도시에서 점점 도서관과 서점이 사라져가면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많이 줄었다. 책을 찾고 싶으면 결국 번화가에 있는 대형서점에 찾아가거나 인터넷 서점에서 전자책을 구매하는 수밖에 없어졌다. 물론 책을 사는 데 쓰는 돈이 아까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기 곤란하고 비용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뿐만 아니라 한번쯤 읽어보고 싶지만 소장하고 싶지는 않은 책들을 구매하는 것도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도서관은 귀한 공간이다.

최근 특정계층에 대한 혐의로 인해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많은 이들이 머물 공간을 잃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설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들고 마당에 돈을 지불하겠다 해도 사람을 받지 않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진해기적의도서관이 모든 계층이 가벼운 마음과 걸음으로 찾고 머물 수 있는 공간, 다른 공간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들에게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진해를 여러 방면에서 풍요롭게 만드는 공공의 공간으로 영원히 남아주길 소원한다.

다시없을 행복한 추억, 미라클 합주단 봉사 활동과 그림책 출판

내가 쓴 동화책에 대하여

: 내가 나고 자란 고장 '진해'의 골목길에서 마주친 역사, 사물, 지리, 문화, 관광 등과 관련하여 그 곳이 품고 있는 체취와 온도를 느끼고, 상상력을 더해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주인공 두더지가 마을에 살아가며 주워 둔 보물을 매개체로, 고양이 친구와 함께 진해 구석구석 의미 있는 곳을 탐방하고 소개하는 그림책입니다.

진해 곳곳의 아름다움과 숨어있는 장소의 의미를 어린 아이들이 두더지와 함께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하며 느낀 행복한 기억

: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까지 미라클 합주단의 일원

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은 살아가면서 다시 겪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미라클 합주단은 혼자 즐기던 악기 연주와 달리 다른 사람들과 합을 맞춰 악기를 연주하며 소리가 더욱 풍부해졌고 아름다운 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즐기는 소리, 아이들이 엉덩이를 찔룩이며 흥얼거리는 소리까지 어우러져 한 공간에서 한 마음이 되어 음악을 즐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도서관에서 음악회를 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모두를 즐겁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습니다.

진해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이건 어디서 주웠어?> 홍성우 글/ 이정민, 정한룡 그림/ 창조와 지식 2019

기적이다

우리의 만남은 기적입니다. 기적의 아이와 엄마로 도서관에서 더불어 자라 숲을 이루며 성장하고 있지요. 땅이 품어준 씨앗이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는 것처럼. 나이테를 하나씩 늘리며 단단해지고 여물어 갑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고 봄이 일어선다는 입춘을 맞이할 무렵. 들은 귀 밝은 엄마들이 삼삼오오 진해기적의도서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혼자하는 육아보다 어우렁더우렁 함께하는 책 육아가 아이를 더 옹글게 키운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북스타트 58기’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우리들은 후기모임인 꼬몽꼬몽(꼬마 몽키)과 58기, 59기가 어울려 만든 룰루랄라 친구들(룰루랄라 신나게 노는 행복한 아이들)로 모임을 이어가며 공동육아 책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진해기적의도서관에 모여 아이들과 책 놀이를 진행했고, 육아 고민도 함께 나누며 우리는 구순한

사이가 되었지요. 서로의 아기를 그느르는 것이 더불어 사는 기쁨이라는 것을 아니 나이와 상관없이 너나들이하는 동무가 되었습니다.

‘독서는 책으로 떠나는 여행’이라 했던가요. 정말 아기들에게 그림책은 삶이자 여행이었습니다. 그림책은 늘 살아 움직였어요. 그림책에 토끼가 나오면 직접 토끼를 보고, 실제로 만지고, 토끼가 좋아하는 당근도 먹고, 토끼풀 향기 맡고, 토끼가 움직이며 내는 소리까지 들으며 오감이 만족하는 놀이를 즐겼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영글어 갔고, 한 뼘 한 뼘 생각의 키도 자랐지요.

여행은 움직이는 독서라 했습니다. 육아와 일상에 지친 어느 날은 도서관을 벗어나 다른 고장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두 손 들고 환영했습니다. 아기들에게 기차도 보여주고, 여행도 즐기면 좋겠라며 모든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아기와 여행하기 딱 좋은 만한 장소를 함께 고르고, 기차표를 예약했지요. 한편에선 여행지에서 즐길 놀잇감을 준비하고, 먹거리를 찾기도 했습니다.

창원중앙역을 향해 달려오는 기차가 아스라이 보이기도 전에 꽃바람이 먼저 소식을 전했습니다. 봄 냄새를 뭉클뭉클 실어다 주는 초록 가득한 사월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풀들은 바람에 넘실넘실 고개를 흔들고, 아기들은 뱅그르르 원을 그리며 돌았습니다. 아침을 여는 새들의 지저귀음을 따라 웅알웅알 노래를 부르고, 얼굴에는 노란 민들레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고즈넉한 산에 안겨 있는 듯 편안한 인상을 지닌 밀양역. 예보에도 없던 봄비에 우리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엄마들의 마음을 모르는 아기들은 그저 신이 나 폴짝폴짝 뛰며 봄비에 젖어 들었지요. 다행히 밀양역 앞에는 지붕이 살짝 드리워진 공연무대가 있었습니

다. 우리는 비를 피해 무대 위로 올랐지요. 아이들과 놀이하기 위해 앉을 자리를 마련하려 밀양 종합관광안내소의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혹시 아기들이 앉을만한 자리를 빌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정을 들은 밀양 종합관광안내소 직원은 자리 대신 커다란 박스를 여러 개 구해주시며 즐거운 여행이 되라는 포근한 인사말을 건넵니다. 참 따뜻하고 감사했습니다.

지나가는 비였는지 비는 금세 그쳤습니다. 박스에 웅기종기 모여 앉은 아기들은 기차에 대한 그림책을 읽고, 기차놀이도 했지요. 까맣고 긴 고무줄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에 아기들은 입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우와~” 탄성을 자아냈고 고무줄을 하나씩 이을 때마다 반짝이는 눈동자가 이모의 손끝을 따라갔습니다. 기다란 기차가 완성되었지요. 고무줄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우렁찬 아이들의 목소리가 밀양역 앞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밀양을 상징하는 대표 민요 ‘밀양 아리랑’ 노래를 부르며 고무줄 기차가 움직이면 나무들도 봄비를 떨쳐내며 함께 타고 싶다고 손을 흔드는 듯했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구성진 목소리를 따라 아기들의 어깨도 연신 들쭉였습니다. 아기들도 엄마들도 한판 신명 나게 놀이를 즐겼습니다.

도서관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이렇듯 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룰루랄라 신나게 함께하는 중이지요. 우리의 꽃등인 진해기적의도서관. 왜 그곳이 기적의도서관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들을 이어주는 곳,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지는 곳, 상상의 나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 더불어 성장하는 곳임

을. 우리가 도서관에 모인 것도, 함께 놀이를 시작한 것도 지금까지 꾸준히 함께한 것도 모두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적의도서관으로 갑니다.

진해기적의도서관이

맺어준 인연

‘그여자 그리고 나’

2021년 3월부터 시작된 그림책 깊이 읽기 수업은 운명적 만남 시작이었다. 성인대상 수업인데 그림책이라는 주제가 나에게 친근감으로 다가왔다. 당시 나는 사남매 엄마이고 아이들 덕분에 그림책을 자주 접하고 있었다. 그림책이라는 분야에 관심은 있었지만 짧은 글이나 단순한 그림속에서 이상한 울림이 뭔지 궁금하기도했다.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해서 바로 선착순접수하고 수업을 기다렸다.

새로운 배움과 또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은 기대되기도 하지만 떨리기도 했다. 그 걱정은 잠시 시간이 지날수록 수업도 사람들도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림이나 글에 소질이 없지만 가까워지고 싶었다. 12주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관장님의 추천도 있었고 마음은 있지만 부담되기도 했다. 고민 끝에 우리는 독서동아리 ‘그여자’ 풀어 얘기하면 그림책여행자

를 결성했다. 거의 매주 다양한 그림책을 소개하며 읽어주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주로 내가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역할을 하다가 누군가 읽어주는 그림책은 그림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야기속으로 빠져든다. 그렇게 벌써 2년이 지나가며 많은 생각과 또 함께함에 감사하다. 그림책이 낯선 우리들을 그림책의 세계로 빠지게 만든 세은선생님은 최고의 스승이시다. 우리는 책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삶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기도 했다. 다양한 책만큼 서로 다른 배경속에 자란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엄마이지만 그림책이 좋고 공부도 하고싶고 성장을 꿈꾸는 우리들은 작은 도전을 하나씩 이어가고 있다.

작년부터 영어필사를 하고 낭독하기를 시작해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읽고 싶지만 혼자서 완독하지못해 안타깝고 그러나 궁금한 책들을 주말 제외하고 평일날 온라인으로 만나 낭독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책속에 그림책에세이도 함께 읽으며 그림책과의 끈을 이어간다. 못한다고 생각한 것들은 어쩌면 두려움으로 시도조차 안하는 것이었다. 내가 아닌 타인의 시선이 무서웠을지도 모른다.

오랜동안 아이만 키워온 엄마라는 위치가 자신의 이름을 잊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지고 있다. 엄마보다 나에게 조금 더 집중한다. 내가 좋아하는게 무엇인지 잘하는게 무엇인지 시도해보고 찾고 있다. 머리로 아는것과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다르다.

처음엔 어려운 것도 하다보면 시간이 지나면 덜 어려워진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하는 말이 있다. “노부담 노무리” 부담갖지말고 무리하지마세요. 좋아서 해야 오래 할 수 있고 모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

다. 각자 사정에 따라 잠시 충전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 취업에 성공한 분도 있지만 꾸준히 함께하는 1기 동기들이다.

앞으로 그녀들이 서로에게 선한영향력이 되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지 기대된다. 2년 사이 나에게도 고비 아닌 고비도 있었다. 모임을 그만둬야하나? 고민했다. 마흔이 넘어 찾아온 다섯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으며 그 아기가 벌써 18개월이다. 그리고 올해 다시 대학생이 되어 공부를 하고 있다.

그여자 독서동아리 덕분에 이전보다 더 자주 도서관을 이용하며 아기도 도서관 프로그램 북스타트에 참여하게 되고 아기랑 동반해 참여가 능한 프로그램을 더 살펴보게 되었다. 거기다 동기들이 뚜벅이인 나를 배려해 차량서비스까지 제공하니 정말 감사하다. 아기가 울고 떠들어도 덜 눈치가 보이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라는 점이 더 발길을 이끈다. 가까운 곳에 기적의도서관이 있어서 좋다. 자주 이용하니 이름을 알고 반갑게 인사해주시는 관장님부터 사서선생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아이와 나의 같은 추억

나에게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공간에 대한 추억이 있다. 바로 도서관이다.

쨍쨍 내리쬐는 햇볕 속 나의 엄마는 어린 나와 동생의 손을 잡고 버스로 30분 걸어서 15분동안 오르막길을 걸어야 하는 그곳을 자주 데리고 가셨다. 방학이나 쉬는 날이면 종종 우리들을 데리고 유랑아닌 유랑길에 오르셨다. 그 높은 곳에 있던 도서관은 어른이 된 나에겐 더 이상 높아보이지 않지만 어린 나에게는 헉헉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아침을 먹고 나와 도서관에 도착하면 비로소 내 세상이 펼쳐진다. 내 키보다 훨씬 높은 책꽂 많은 사람들, 뿅 소리를 내면서 복사가 되는 복사기 이곳이야말로 별천지 아닌 별천지였다. 그렇게 신나게 구경을 하고 나면 구내식당에서 우동을 사주시곤 하셨는데 그 맛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이였다.

점심을 먹고 도서관서 신나게 책을 보며 놀다보면 올라올때 보단 훨씬 쉽고 재미난 내리막길을 걸으며 집으로 돌아온다.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진하게 자리잡은 이 추억은 어른이 된 나에게 있어선 소중한 것이다.

중고등학생이 되어선 스스로 도서관을 찾으며 어느때 내가 빨강머리앤이 되어있었고 제인에게처럼 역경을 이겨낸 근사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있었다. 때론 삼국지 속 조자룡을 보며 무예를 익혀볼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했고 법정스님의 책을 읽으며 글이란건 사람을 움직이는 대단한 것임을 느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역시 도서관속 나의 모험과 휴식은 계속 되었다. 생각해보면 나의 어린시절부터 도서관이란 곳은 나와 함께 커나가고 있는 장소였다. 풍족하지 못한 환경 속 도서관과 책은 내가 향유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자 경쟁력이었다.

어른이 되었고 경제 생활을 하게되자 편하게 내가 원하는 책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도서관과는 조금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기억 속 도서관은 항상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들을 만나게되었다. 아이의 존재를 알게된 후 도서관을 다시 다니게 되었다. 태교 프로그램도 있었고 수업도 있었으며 태교라는 이유로 시원한 도서관에서 책을 편히 읽기 시작했다.

그러고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에게 첫선물인 북스타트를 해줄 수 있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번 북스타트를 하러 나가는 날은 그 전날부터 마음이 너무 설레었다. 엄마가 처음인지라 아이를 돌보는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고 육아서 대로 되는 일은 반 정도? 육아는 정말이지 좌충우돌 돌발상황이었다. 북스타트를 하면서 하루라도 위안을 받았고 아이 역시 신기함에 즐거워했다. 나에게 있어 도서관 북스타트는 쉽표이자 위안이

었다. 북스타트를 하러가면서 도서관에서 내가 보고 싶은 아이 동화책을 빌려 일주일간 실컷 읽었다. 북스타트 마지막 날이 어찌나 아쉽던지. 다시 돌아간다고해도 나는 열심히 북스타트 신청 버튼을 누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이들은 커가고 아직도 열심히 크는 중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말로 풀어낼 나이가 되었다. 그동안 집에서만 열심히 책을 구매해서 보여주자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느껴서 과감히 큰애를 위해 6개월 짜리 작은애를 들쳐 업고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다. 6개월짜리 아가는 처음보는 장소에 눈이 휘둥그레, 큰애는 집보다 훨씬 많은 책들의 어마한 위용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하여 아이들은 제2의 나의 어린시절 추억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나는 토요일만 되면 도서관에서 반나절 이상 머무른다. 큰아이는 도서관 수업을 듣고 작은아이는 열심히 도서관 탐색 모험을 떠난다. 서가에서 자기가 관심있는 책을 꺼내고 바닥에 펼쳐놓고 읽어달라고 말하기도 한다. 토요일의 도서관은 재미있는 일이 가득인지라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수업도 듣는다. 아이의 아빠도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일상 속 휴식을 취한다. 그렇게 신나게 도서관에 있다 살짝 지루해지려고 하면 신발을 신고 도서관 앞 마당으로 뛰어나간다. 나무도 있고 풀도 있으며 꽃도 있는 아늑한 공간이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많은 새들이 있다는 걸 배워가고 있고 세상은 재미있고 신기한 일들이 가득하다는 걸 배워간다. 가끔 일정 없는 일요일도 잠시 도서관 나들이를 나오는데 토요일의 생기발랄함과 다른 차분한 분위기에 아이들도 색다른 느낌을 가지는 모양이다. 평일에도 생각나면 잠시 들르는 도서관이다.

아이들에게 어디갈까 물어본 적이 있다. 그때마다 도서관은 아이들의 대답 순위권에 올라와있다. 큰아이에게 도서관은 지금 로봇박사 테오

를 만나서 장래 로봇박사의 꿈을 키우게 해주는 곳이 되어가고 있으며 작은 아이에게는 째째(아이의 언어로 새)를 눈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마음껏 책을 빼고 구경하고 멍멍이 어흥이 인형을 만끽할 수 있는 익숙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도서관을 갈 때 아이들의 아빠도 되도록 같이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아빠는 이 공간 속 아이들과의 경험이 너무나 값지다고 한다.

도서관은 나의 유년시절을 차지하는 추억 속 큰 공간이었고 지금은 아이들과 남편에게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다.

어느 글귀를 읽은 적이 있다. 인류에게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은 펜의 힘이라고. 그 펜의 힘을 기르게 해주는 시초가 책이 있는 도서관이 아닐까 싶다. 거창하게 말하자면 그러하고 소소하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즐거움을 도서관에서 찾을수 있지 싶다.

일상에 스며들어 아이와 나의 추억의 교점이 된 도서관,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

인생 두 번째 꿈을 함께 해 줄 기적의도서관

갑자기 아이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다. 아이가 열이 나니 어머니가 오셔야 할 것 같다. 급하게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간다. 허겁지겁 주차를 하고 아이 학교로 가는 길에 신호등을 기다린다. 동시 신호가 되는 신호등이라 그런지 초록불이 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새삼스레 상점의 간판들을 구경하다 나도 모르게 생각에 빠져든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다일까?’

그렇다. 내가 꿈꾸던 삶은 이것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안정적인 직장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 그저 열심히만 살아왔는데, 언제부턴가 밀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나도 인간 하나은으로서 땅을 굳건히 딛고 살고 싶어졌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뭘까?

10살 하나은이 꾸었던 꿈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

나는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던 꼬마였다. 왼쪽으로 돌아누워 책의 왼쪽 페이지를 읽고, 또 돌아누워 반대쪽 페이지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에게 책 빌려주는 것을 좋아하고 빌려준 책을 못 받으면 속상했다. 책을 읽으면서 꿈을 꾸었고, 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배웠다. 책을 많이 읽었기에 공부도 곧잘 했던 것 같다. 여전히 삶에 물음표가 생길 때 제일 신뢰하는 방법은 관련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다. 그래! 일단 책을 다시 읽어보자!

그래서 그랬을까?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고 벚꽃그린빌아파트로 이사오게 되었는데, 왠지 처음부터 이 아파트가 좋았다.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도 좋고 딸이 다닐 학교가 가까운 것도 좋았지만, 솔직히 도서관이 가까이 있어 더 좋았던 것 같다.

기적의도서관은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질서가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오고 가는 분위기라 더 편안했다. 어릴 적에 텔레비전에서 본 기억이 슬쩍 나기도 했다.

그렇게 오랜만에 기적의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보기 시작한 것이 벌써 6개월이 넘었다. 책을 한 권, 또 한 권씩 읽어나가면서... 다시 조금씩 나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내가 책을 안 읽고 지내는 그 오랫동안 도서관 시스템은 어쩔 이렇게 발전했는지! 24시간 책을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창원 시내 다른 도서관의 책을 빌릴 수 있는 타관 대출 시스템이라든지!

지금은 민음사 세계문학들을 읽고 있는데... 나도 언젠가는 이런 책들을 써 보고 싶다는 생각에 들뜬다. 어떤 책을 읽으면서는 그 넓고 깊음에 감탄하면서도 좌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을 보면서는 나도 언젠가 이

런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공상에 빠지기도 한다.

지금과 같은 도파민 과다 분출의 시대에 읽어도 재미있는 소설들이라면 그때는 얼마나 인기가 있었을까? 아, 소설가들의 위대함이란! 나도 정말 재미있는 책을 써 보고 싶다.

이런 꿈을 꾸면서 나는 오늘도 기적의도서관에 간다.

신기한 기적의도서관

우리도서관은 신기해요.

도서관은 책도 많고, 어항에 물고기, 기린인형, 강아지인형도 있어요.

동물원인가 모르겠어요?

우리도서관은 신기해요.

도서관에서 미술수업, 텃밭가꾸기 수업, 책수업을 들어요.

학원인가 모르겠어요?

우리도서관은 신기해요.

도서관 관장님실에서 독후화도 그리고, 책도 만들고, 쥬스랑 초콜렛도 먹어요.

카페인가 모르겠어요?

우리도서관은 신기해요.

친구랑 나는 다른 초등학교를 다녀요.

나는 냉천초등학교, 주원이는 장천초등학교, 시은이는 동부초등학교를 다녀요.

도서관도 초등학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서관은 신기해요.

토요일에 새로운 영화를 보여줘요. 무서운 영화, 재미있는 영화, 깜짝놀랄 영화.

영화관인가 모르겠어요?

신기한 우리 기적의도서관 매일 가고 싶어요~

기적의도서관

기적의도서관은 사계절 같아요

기적의도서관은 봄 같아요

내 마음 속에 예쁜 꽃을 피게 해주거든요

기적의도서관은 여름 같아요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그늘이 있거든요

기적의도서관은 가을 같아요

쨍쨍히 떨어진 낙엽도 예쁘게 보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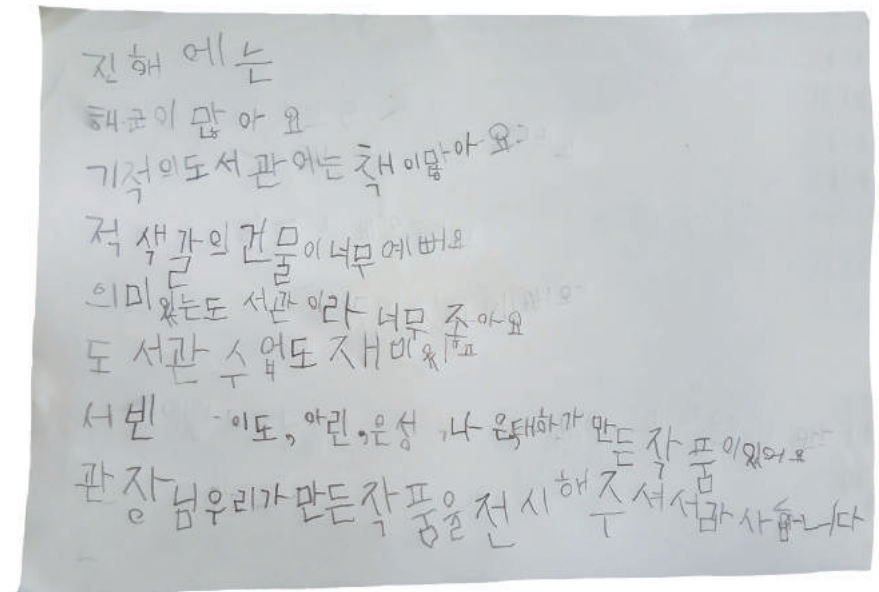
기적의도서관은 겨울 같아요

하얀 눈이 내린 다른 세상 같거든요

그래서

기적의도서관은 사계절이에요

진해기적의도서관





도서관은 참새 방앗간 | 남민영



기적의도서관 소파 | 이도



도서관은 놀이터 | 이서율



기적의도서관에서 자라요 | 박영화



기적 꿈나무들의 꿈은 비누방울을 타고 | 이형자



우리집 보물 리안이와 함께한 기적의도서관 | 김리안



기적의도서관이 좋아 책이 좋아 | 박태하



기쁜 순간은 도서관과 늘 함께 | 사공귀인



기적과 함께 자라요 | 이나은



도서관과 함께 자랐어요 | 이미경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박수빈



도서관에서 친구들이랑 노는게 좋아 | 김수경



18개월 은솔양 도서관 생활 | 서화정



책은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 김보경



도서관에서 신나게 놀아요! | 이윤희



책으로 떠나는 여행 | 이솔



나의 첫 번째 도서관 | 이아린



도서관에서 물고기도 봐요 | 한예지



아이의 세상 | 정윤미



조남매의 도서관 사용법 | 조민철



도서관에서 자라는 꿈나무 | 김지은

06

|

신기한 기적의도서관

BOOK

저는 조준원이에요

석동초등학교 6학년이구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귀여운 낙서가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답니다.

느낌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티비 보다가 밥 먹다가 놀다가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쓱쓱쓱.

멀리서 봐도 좋아요.

하지만 가까이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더 재미난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누나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동생이 좋아하는 게임기, 외계인과 마법사도 있습니다.

이제 찾으러 가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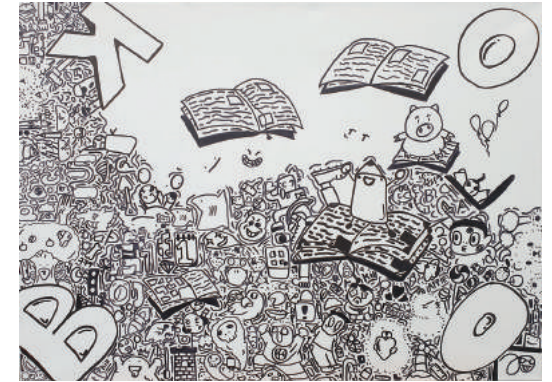
책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놀라운 초능력을 가진 아이, 신비한 마법을 가진 동물, 무시무시한 유령, 말하는 나무들도^^

저는 책 속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 봤어요.

여러분은 무슨 책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세요? 여기 기적의도서관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볼까요?



토끼의 겨울 낮잠

<토끼의 겨울 낮잠> 2023년의 주인공인 토끼가 겨울 설빔을 입고 낮잠을 자며, 떡국을 먹는 꿈을 꾸는 그림이다.

그림 속 토끼의 이름은 하늘이다. 설 전 날에 학교에서 돌아온 하늘이가 낮잠을 자며 내일 있을 일을 상상하는 모습이다.

뒷이야기.....

하늘이는 결국 세 가지 꿈을 다 이뤘다! 첫 번째는 설빔을 입는 것인데 설날 아침에 부모님께 한복 선물을 받았다. 두 번째는 맛있는 떡국을 먹는 것이다. 엄마를 도와 떡국을 열심히 만들어 이 꿈도 이뤄냈다. 세 번째는 개똥이네 놀이터(보리가 만든 어린이 잡지) 표지에 선정되는 것! 이 꿈도 마감기한 전에 결국 그려내 달성했다. 하늘이는 잡지 띠지 색깔이 빨간색일 거라 예상했는데 당선되고 나서보니 초록색 띠지라서 살짝 아쉬웠다.



<개똥이네 2023년 1월호 표지에 작품수록>

물루랄라 친구들

물루랄라 친구들은 2016년생 아이들과 그 가족
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션은 “건강다복” 행복한 아이들, 행복한 부
모, 행복한 가족공동체이며, 비전은 함께 행복
하자, 함께 성장하자, 늘 협력하자이다.

○ 함께 행복하자.

개개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팀원들과
서로의 행복에 대해 자주 이야기 나누고 공감
한다.

생일 챙기기, 팀원등과 함께 긍정, 즐거움, 재
미, 행복을 나눈다. 서로 의지하며 서로의 감정
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자. 아이가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다.

○ 함께 성장하자.

많은 경험과 추억을 만들자. 어떻게 성장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노력한
다.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과거 혹은 지금 당장
에만 머물지 않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추
도록 노력한다.

○ 늘 협력하자.

자주 보고 자주 함께해서 조금씩 가족이 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축복하고 함께 아파
하자. 희생이 아니라 협력하는 마음으로 서로

를 돕는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눈치 보지 않고
도움을 청한다.



진해기적의도서관 개관 20주년 세미나

행사개요

행사명
진해기적의도서관 개관 20주년 세미나

일시
2023. 05. 13.(토) 14:00 ~ 17:00

장소
진해기적의도서관 큰모임방

참석인원
50명(전국 도서관 관계자 및 학계, 일반시민 등)

진행순서

구분	시간	내용	비고
개회식	14:00 ~ 14:2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및 인사말씀 · 개회선언, 세미나진행 안내 · 토론 참석자 소개 	사회 기적의도서관장 내빈 축사 및 격려사
세미나	제1세션 주제발표 14:20 ~ 15:50	90' <p>강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적의도서관이 걸어온 길과 의미 2) 진해기적의도서관 현안과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강인순 경남대 전 부총장 · 안찬수 책사회상임이사 · 김수경 창원문성대학교 교수
	제2세션 토론 15:50 ~ 16:50	60' <p>주제</p> <p>0.78인구절벽 어린이도서관의 방향</p>	좌장 강인순 경남대 전 부총장 · 이종화 창원특례시의원 · 김태석 운영위원장 · 안찬수 책사회상임이사 · 김수경 창원문성대학교 교수 · 이용훈 한국도서관사연구회장
폐회식	16:50 ~ 17:0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회 	



도서관에서 노~올~자!

햇살이 가득한 어느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기적의도서관에 놀러갔다.

이곳 진해기적의도서관은 친구들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책선물을 해주고, 부모님과 영화도 보고, 구석 구석에서 놀기도 했던 놀이터같은 곳이라 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락거리는 곳이다.

그런데 이 날은 살짝 긴장이 되었다. 왜냐하면 평소와 달리 이 날은 멀리 순천에 사는 친구들이 놀러온다고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사는 곳도 다르고, 얼굴도 모르는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하는 마음에 걱정도 되어 갈까 말까 잠깐 갈등도 했다.

어려서부터 같이 놀던 친구도 함께 가기로 해서 별다른 기대없이 그냥 가보기로 했지만 말이다.

역시! 순천친구들이랑 처음 만났을 땐! 예상대로 매우 어색했다.

그런데 내 걱정과 달리 우린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하며 금새 가까워졌다.

'구멍에 콩주머니 넣기, 컵쌓기, 책도미노 등' 여러 놀이들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분명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원래 알고 지냈던 친구들 같았다.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책도미노 활동을 할 때였다.

모두가 힘을 모아 엄청 많이 쌓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쓰러져서 너무나 속상했다.

하지만 우리 팀은 함께 마음을 다잡고 응원해주며 다시 쌓아 나갔다.

예상했던 대로 우린 한번 무너졌었기 때문에 긴 도미노를 완성하지 못해 결국 역시 지고 말았다.

우리 팀원들은 아쉬움에 한숨을 짓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순간, 왠지 모를 뿌듯함, 즐거움이 느껴졌다.

놀이활동을 하며 내가 승리하거나 선물을 받는다는 건 분명 신나고 기쁜 일이지만, 그날의 우린 꼭 그게 아니어도 괜찮았던 것 같다.

아마 서로 즐거움과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며 우정을 쌓았기 때문 아닐까? 싶다.

그래서인지 열심히 참여한 놀이에서 내가 선물을 못받은 순간 약간 아쉬기도 했지만

먼 곳까지 놀러온 순천친구들이 더 받아가서 행복한 마음이 들었다.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던 그 때의 친구들을 다음에 또 만나고 싶고, 다른 팀이라서 같이 어울리지 못했던 또 다른 순천친구들과도 팀이 되

어 재미난 추억을 쌓고 싶은 마음이 든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걱정은 내려
놓고 더 즐겁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참여하겠다.



제천기적의 도서관 탐방기

친구소개로 신청했는데 버스여행은 처음어서 설렘반 우려반으로 신청했습니다.

며칠 비가 많이와서 장거리 포기할까싶었지만 프로그램이 좋아서 비가와도 강행하려했어요 다행히 날씨는 좋았고 초4딸, 7살아들 손잡고 신나게 나들이 나섰습니다.

오전간식부터 점심, 저녁, 물, 콜라까지 센스있게 챙겨주셨고 특히 점심은 제천 특산물 더덕 구이와 수육정식이었어요 아이와 돌솥밥을 먹은건 처음이라 송충만들어놓고 먹는거 알려줬더니 1인 1그릇씩 클리어했어요.^^

문화해설사가 의림지 돌면서 일일이 설명해주시고 사진찍는곳 알려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셨고 급하지않으셔서 저희도 여유롭게 다녔어요 제천 기적의도서관에선 아이들이 깜짝이벤트를 준비해서 저도 감동이었는데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았을거예요 어디가서 이렇게 환영받는다는건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을듯해요.

준비하신 해리포터 놀이와 만들기도 재밌었고 6학년 누나가 7살아들 너무 잘챙겨줘서 커피도 한잔 마실 수 있었어요 알바생인줄요.^^

3시간 30분 내려와야해서 힘들지않을까 걱정했는데 버스서 사귀 친구와 너무 너무 잘노는거예요 저도 할게없으니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었

고 버스타는게 너무 즐거웠다고 말해주네요. 자존감이 훅 올라가는 여행이었을거 같아요. 8월에 도서관에서 1박 프로그램 또 있다고하셔서 꼭 신청하고싶어요. 관장님 포함해서 많은분들이 준비하고 고생하셨을줄 압니다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즐거웠던 제천탐방

진해기적의도서관 제천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초2팔과 알차고도 즐거웠던 제천 탐방을 다녀왔어요.

새로 만난 언니 동생과 제천가는 버스에서 친구가 되어 즐거운 여행길이 되었네요. 날씨가 흐려 걱정했지만 제천에 도착하니 날씨도 너무 좋고 점심으로 먹은 더덕구이정식도 너무 맛있었어요. 점심식사후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가서 관람도 하고 체험도 하고 아이는 물론 저도 즐거운 관람시간이었어요.

역사박물관 관람 후에는 의림지도 둘러봤었는데 안내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설명도 해주시고 멋진 자연경관을 감상했었어요.

의림지를 둘러본 후에는 제천 기적의도서관을 갔는데 제천 기적의도서관 친구들이 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해리포터 기숙사 대항전도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했었고 부모님들과 모여 대화나누는 자리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왔네요.

독서의 중요성과 기적의도서관이 사회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하는지 다시 한 번 느꼈답니다.

제천 기적의도서관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지역에도 기적의도서관이 있다는 게 너무도 감사했어요.

21개월 둘째 케어가 힘들어 도서관 방문을 어려워했었는데 왜 어릴때부터 도서관을 데리고 가야하는지 그리고 도서관은 어려운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네요. 신청하기 전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고민을 했었지만 신청하길 너무 잘한것같아요. 정말 신청안했으면 후회했을거예요.

아이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던 제천 탐방 덕분에 소중한 값진 경험과 추억이 생겼네요. 알차고 소중한 제천탐방을 준비해주신 기적의도서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덕분에 너무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고 소중한 제천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엄마와 세아이의 제천나들이

기적의도서관 개관2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행사 이런 행사는 없었다. 차비, 식비, 간식비 일체 지원해주신다니 보자마자 신청했다.

신청인원이 많아서 포기할까하다 흔하지않은 기회라 대기자로 신청하고 기다렸다.

다행히 우리 가족에게도 기회가 왔다. 우리는 일곱식구인데.. 다같이 가고싶은데 18개월 막내는 장거리여행이라 무리일것같아 엄마와 초등학생인 둘째, 셋째, 넷째와 가기로했다.

나도 태어나서 한번도 가본적없는 곳이라 들뜬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다.

일어나니 비가 온다. 비가 와도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깨우고 떠날 준비를 했다.

제천이 어떤 곳인지 모르기에 가서 그대로 몸소 느껴보기로하고 버스에 올랐다. 버스로 3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제천에 가까워질수록 맑은 하늘과 짙은 햇볕이 우리를 환영해주는것같아 기분이 좋았다.

도착하자마자 미리 준비해주신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드디어 이동을 시작했다.

의림지역사박물관, 역사교과서에서 배운 의림지, 제천기적의도서관 순으로 해설사선생님 설명을 들으며 제천을 거닐었다.

공원과 함께 구성되어있는 역사박물관은 밖에

서 바라보면 배모양이고 들어가니 시간의 함, 역사의 함,문화의 함,생명의 함, 추억의 함으로 전시되어있었고 아이들이 체험하는 곳도 중간중간 있었다. 그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진해에서 볼 수조차없는 얼음낚시 재미에 푹 빠졌다.

강원도와 가까운 제천은 겨울에 눈으로 덮여 아주 추운곳이라는 설명에 눈구경힘든 아랫동네 아이들은 상상만으로도 즐거운듯했다.

의림지는 농업용수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풍경 또한 그림같이 아름다웠다.

우리가 방문한 날은 날씨 또한 한몫했다. 화창하다못해 더워서 자꾸만 그늘을 찾았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듯 소나무숲이 만들어주는 그들은 부채가 필요없었고 용추폭포 유리전망대를 바라보니 시원하다못해 아찔하기도했지만 폭포아래 내려가 발담그고 싶었다.

문화관광해설사 선생님이 설명해주시니 그냥 지나칠만한 풍경들도 다시 한번 쳐다보게되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제천기적의도서관으로 이동했다.

도서관 입구부터 조금 남달랐다. 텃밭과 꽃들과 나무가 가득한 자연속에 자리잡은 도서관은 들어서니 통유리와 여기저기 미로찾기를 하듯 아이들 연령별, 주제별로 나누어진 공간들과

아늑하고 편안한 카페를 연상시키는 공간까지
너무 알차게 꾸며져 있었다.

강당에서 드디어 제천기적의도서관 친구들과
만남이 이루어졌다.

해리포터를 주제로 퀴즈, 게임 등을 하며 아이
들이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우리 아이들은 팀대항전 대표로 나가게되어 남
매의 대결이 되어 지켜보는 나는 더욱 흥미진
진했다. 단시간내 가까워진 아이들은 벌써 가
야하냐고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아이들은 제천기적의도서관은 숨바꼭질을 하
고싶을만큼 즐거운 곳이고 친구들과 게임도 하
고 또 가고싶은 곳으로 기억된다며 다음에 우
리가족 다같이 놀러오자고 했다.

귀한 대접을 받고온 기분이다. 아이들은 아이
들대로 나는 나대로...

제천기적의도서관의 산 증인인 관장님 또한 인
상깊었다. 사서로 시작하셔서 지금은 관장님이
되셨다고하셨는데 도서관을 얼마나 아끼는지
느껴졌기 때문이다.

살짝 우리 도서관도 더 크고 넓었으면하는 마
음이 들기도 했지만 집에서 멀지않은 곳에 진
해기적의도서관이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므로
우리 아이들이 더 자주 도서관을 이용했으면하

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기회가 아니었으면 내가 언제 여기를 와
볼 수 있었을까싶다.

산으로 둘러싸여 아늑하고 또 조용하며 아름
다운 곳으로 기억된다.

도서관에서 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면
그때는 1등으로 신청해야지.

진해로 도착하니 또 빗방울이 떨어진다. 날씨
요정과 함께 즐거운 나들이를 다녀온것같다.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해주신 도서관 관
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천기적의 도서관을 다녀와서

아이들과 진해기적의도서관에 다닌 지 햇수로 10년이 되어갑니다. 진해에서 아이 둘을 낳아 키우며 기적의도서관 혜택을 많이 누린 엄마로서 이 지역에서 이곳이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너무 감사한 곳이지요. 좋은 프로그램과 훌륭한 자원 활동가분들, 입구에서부터 반갑게 맞아주시는 시니어 봉사자분들 덕분에 도서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도서관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적의도서관이 20주년을 맞아 제천기적의도서관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둘째 아이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하여 8시에 출발하는 버스를 탔는데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서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프로그램 일정표를 나눠주셨습니다. 제천 역사박물관과 의림지를 방문하는 일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하니 그곳에 계신 해설가분께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역사박물관에서부터 의림지까지 동행해주시며 제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듣고 나니 먼 지역이라고만 생각했던 제천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그 날 날씨도 좋아서 의림지의 멋진 풍광을 보며 마음이 편

안해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연이 주는 힘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멋진 자연 속에 저희가 기대하던 제천기적의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 도서관 관계자분들이 아이들을 환영하며 맞아주셨습니다. 아이들이 기대하며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제천기적의도서관 학생기자단 학생들과 사서 선생님들이 준비해주신 서프라이즈 환영식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주셨던지 저희 아이가 돌아와서도 자주 이야기할 정도로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함께 간 부모님들은 관장님 인솔하에 제천기적의도서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천에서도 기적의도서관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게 느껴졌습니다. 도서관은 시설 하나하나와 내부 여러 공간들이 이용자의 편의와 요구가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었고,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지역에 아이들이 편하게 들어가 마음껏 독서하고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지역 분위기에 얼마나 좋은 영

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곳이 기적의도서관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제천기적의도서관에서 큰 환대를 받고 돌아오는 내내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고 아이도 왕복 버스에서 시간이 길었지만 힘들어하는 내색없이 너무 즐거웠다고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천, 진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여러 기적의도서관들이 이름대로 아이들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모두에게 기적같은 곳으로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곳으로 오랫동안 남아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행사 준비해주시고 인솔해주신 도서관 관장님, 사서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마치고

오썩 팀

이채아

진해기적의도서관에서 1박2일을 하며 처음에는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무섭고 어색했는데 재밌는 활동으로 인해 금세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체육미니 운동회를 할 때 더웠지만 선생님들의 재밌는 지도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돈까스 집을 갔을 때 더운데 시원한 물이 먹고 싶었지만 음식이 금방 나와 먹었더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룻밤 캠프는 정말 재밌었고 멋진 모험 같았습니다.

배서우

도서관에서 하룻밤 잔다는 게 너무 신났다. 무서운 이야기 할 때 무섭기도 했다. 다음에도 도서관에서 자고 싶다.

권지윤

하룻밤 캠프중 오썩오썩 한여름밤의 도서관이 제일 재미있었다. 친구들과 같이 분장하며 이야기 하는 것이 재미 있었다. 내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면 다시 신청해보고 싶다.

조승원

처음에는 어색하고 재미가 없었지만 친구들과
놀면 놀수록 더욱더 재미있고 랜덤 플레이 댄스
할 때 힘들어 죽을 것 같고 체육할 때도 그랬
지만 또 다르게 친구도 만나고 무서운 이야기
도 하고 그러니 너무 재미있는 것 같다. 또 하면
다시 참가 고고.

박채원

신나게 춤추고 운동회해서 재미있었다. 무서운
이야기했을 때 좀 무섭긴 했지만 친구들과 같
이 있으니 그나마 괜찮았다. 또 오싹오싹한 분
장을 해서 흥미진진하고 무서운 분위가 더 나
서 좋았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친구와 같이
또 캠프를 해보고 싶다.

최민지

처음으로 조금 떨리고 긴장되었다. 그런데 활
동을 시작하고 나니 무이 팀이 내 말도 잘들어
주고 짜증내지 않고 참여해서 너무 고맙고 좋
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손윤찬

시작할 땐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다양한
게임과 놀이를 하니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저
녁을 아쉬운데 돈가스를 싫어해 제대로 못 먹었
다. 그래도 잠자리는 조금 괜찮았다. 만족한다.

성시온

도서관에서 자는 건 처음이라 못 잘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도서관에 대해 좀 알게 되었
다. 잠자기 전까지 재밌는 활동이 많았다. 끝.

한다혜

저는 이 캠프가 재미있었고 뽀샘을 만나 좋았
습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하지훈

재밌었고 친구들과 있어서 좋았다. 모르는 사
람들 있었지만 몇몇과 친해졌다. 그리고 무서
운 이야기를 해서 무서웠다. 영화도 봐서 재밌
었다. 나중에 또 하면 좋겠다. 그리고 밥은 맛있
었다.



주황마스크 팀

이다나

처음에 팀 이름을 정하고 간단한 춤을 열심히 추고 체육대회를 즐겁게, 맛있는 돈가스를 먹고 저녁에는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영화를 보다 잠이 와서 자다가 책을 읽고 싶어 책나라(열람실)로 몰래 나갔다가 선생님께 4~5번 걸려서 마음이 뛰었다.

구가빈

분장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무서운 이야기를 했을 때 무섭지가 않았다. 저녁에 먹었던 돈가스는 맛있었다.

구관민

처음 캠프 들어왔을 때 모르는 애들 투성이라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친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또 하고 싶다. 진짜 재미있었다. ㅎㅎㅎ

최준희

처음엔 내가 아는 사람도 얼마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긴장감이 들었다 하지만 같이 많이 있을 수 있어 친구가 생겼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해서 더 많은 친구를 가질 수 있었다.

김동욱

나는 새벽3시까지 밤을 샜다. 관리선생님께 들켜서 방에서 30분있다가 나왔다.이때가 제일 재밌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와 잘 놀았다. 나중에 또 하고 싶다.

이서윤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재밌게 게임하면서 친구도 조금 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보다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좋았다. 또 도서관에서 영화도 틀어주고 밖에서 운동회를 해서 재밌었다. 앞으로 이런 캠프는 많이 참가하면 좋겠다.

김선우

새로운 사람과 함께 게임을 했다. 처음에 아는 애가 별로 없었지만 많이 친구가 됐다. 재밌는 게임도 하고 영화도 봐서 기뻐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사인 팀

신종현

처음 와서 모르는 친구가 많았는데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해서 친구들과 친해지고 재밌는 놀이가 많아서 좋았다. 그리고 밤에는 무서운 이야기를 다른 도서관 친구들과 함께 해서 더욱 오싹하고 재미있었다. 무서운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다. 이 이야기를 망이 들어 보았지만 유독 기억에 남았다. 그리고 핸덤 플레이 댄스를 했는데 아는 노래가 없어서 아쉽게 탈락했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 모두 재밌어 보였고 밖에서 한 운동 레크레이션은 전부 재미있었다.

박준혁

처음에 캠프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긴장되고 초조했는데 다행히도 어려운 것은 거의 없어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영화가 재미있었고, 흥미로웠다.

안아린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재밌었고 귀신이야기를 듣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만약 내년에도 한다면 권지윤을 끌고 한번 더하고 싶다. 정말 재밌었다.

하제경

처음엔 도서관에서 자는 게 약간 부담스러웠는데 생각보다 편하게 잤다. 랜덤 플레이 댄스부터 시작해 미니운동회, 다른 기적의도서관과 온라인게임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까지 하루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곳 진해기적의도서관에서 할 수 있어서 색다르고 재밌는 하루가 되었다. 그리고 관장님, 뽀 쌤, 마시멜로 쌤, 군밤 쌤, 보라돌이 쌤 그리고 버터 쌤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류가은

도서관에서 놀았고 돈가스 먹고 영화를 봤다 너무 재밌었고 나에게 흥미로운 하룻밤이 될수있던 것 같다. 정말 재밌었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전서후

도서관에서 하룻밤 캠프를 해서 정말 재밌었다.

윤다임

무서운 이야기가 소름 끼쳤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다. 다음번에는 체육활동을 더 하고 싶다.

정주희 작가님 과의 만남

작가님을 기다리며 사람들 앞에서 책을 읽어주는데 책 내용은 기억 안나지만 친구가 있어 부끄러웠다. 하지만 새로웠고 다음엔 더 잘하고 싶다.

작가님 그림 솜씨가 부러울 정도로 최고였다. 채소꽃들이 정말 아름답고 화려해 꽃밭에 온 기분이었다.

사탕 꽃 만들기를 했는데 색감을 이쁘게 사용한다고 작가님이 칭찬해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오남매 모두 한 가족이냐고 물어보시며 깜짝 놀라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작가님 책에 사인을 받아 더 좋았다.



미라클 오케스트라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클 오케스트라를 참여한지 2년째 된 17살 학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 배워온 바이올린으로 여러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언니들, 친구들, 동생들, 선생님들과 함께하니까 더욱더 힘이 나고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주신 덕분에 실력도 좀 느는 것 같아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미라클 오케스트라 화이팅!!



김수경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진해기적의도서관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2000년대 초입, 종이책 사라지고, 도서관이 없어질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난무하던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책읽기 열풍과 도서관 건립 바람이 불었다. 그에 일등공신은 대중매체의 힘과 시민들의 열의였다. MBC TV 예능 프로그램 ‘느낌표’에서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이 전국민 책읽기 운동으로 확산되고, 우리나라 척박한 도서관 현실이 전파를 타면서 시민들의 힘이 모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어린이전용기적의도서관 운동이 펼쳐지면서 우리나라 3호 기적의도서관이 2003년 진해에 세워졌다.

올해로 건립 20주년을 맞이한 진해기적의도서관은 그동안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삶의 양식이 다변화되었지만 그 변화에 발맞추어 여전히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환대하는 진해기적의도서관으로 기적에 기적을 이어가고 있다. 2008년 초대 이종화관장님의 초대로 독서치료 강의로 시작된 인연이 5대 주흥진관장님이 부임하고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어린이의 주도성, 여성의자주성과 공동체 정신이 담긴 진해기적도서관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 앞으로 20년 이후에도 세대를 이어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터같은 도서관,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으로 남아주기를 빌어본다.

김정원 운영위원

진해기적의도서관 개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적의도서관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지식과 교양을 제공해 왔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문학적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휴식처였습니다. 이런 훌륭한 공간이 오랜 시간을 헌신하며 자리 잡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랜 친구처럼 우리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했으면 합니다. 진해기적의도서관 파이팅!

이상현 운영위원

진해기적의도서관이 무려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진해기적의도서관은 책을 사랑하는 아이들과 지역사회와 함께 하면서 놀라운 결실을 맺었다고 자부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모든 어린이들이 어떤 차별도 불평등도 받지 않은 채, 마음껏 책을 읽고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기적의도서관의 모토답게 책임감을 사랑하는 많은 아이들을 길러낸 것이 가장 큰 결실이겠지요.

도서관의 큰 틀을 만드신 이이호재 선생님과 정기용 선생님께서부터 진해기적의도서관을 아끼고 사랑하고 노력해준 여러 구성원들, 활동가분들, 동역자분들, 잘 키운 아이들이 있었기에 이처럼 많은 열매를 맺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동안 따뜻한 환경과 장밋빛 전망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대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성장한 순간들이 쌓이고 쌓였을 테지요.

이제 진해기적의도서관은 과학기술 발전이나 사회적 변화와 같은 여러 어려움 앞에 다시 맞닥뜨리면서 도서관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보니, 고민의 깊이와 폭도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를 헤쳐 나갈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행동해 주실 것을 믿으며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진해기적의도서관이 성년이 된 만큼 더욱 성숙하고 자신감 있게 한발 한발을 내딛어 보길 지원하겠습니다.

주용수 운영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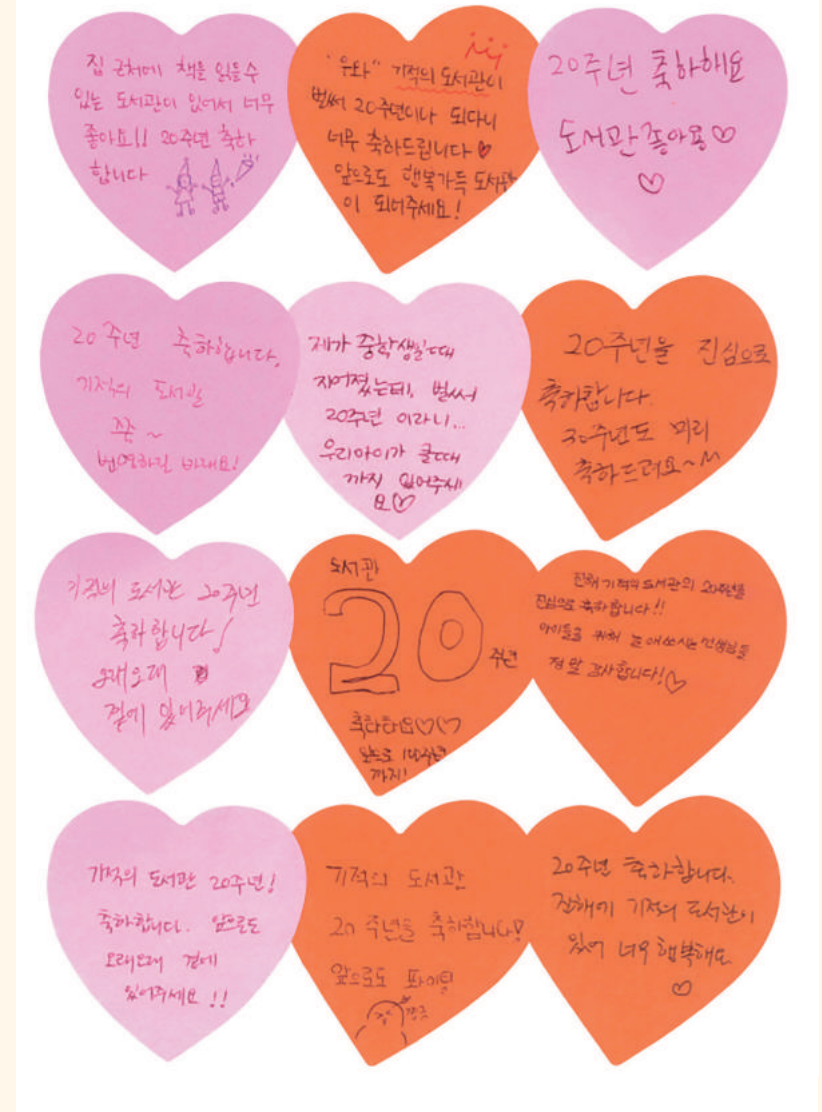
빨리 수요일이 돼서 기적의도서관 가면 좋겠어! 아이들의 기대에 찬 목소리에서 진해기적의도서관의 존재 이유를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꿈을 꾸었는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들뜨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난 20년 동안 도서관을 이끌어 오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도 아이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고 성장하는 공간의 역할을 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진해기적의도서관 개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경호 운영위원

진해기적의도서관 개관 20주년을 축하해요!

2003년 4월, 그 무렵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저는 우리 원생들과 함께 진해기적의도서관 유치 확정이라는 꿈만 같은 소식을 접하며 가슴 벅찬 마음으로 장복산 뱃나무 그늘 아래에서 진해에 방송 촬영차 방문한 MBC방송 '느낌표'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의 제작팀과 진행자인 유재석, 김용만씨를 뜨겁게 환영하며 어린 우리 원생들과 손에 손을 잡고 꿈과 희망의 진해기적의도서관 유치 확정을 기뻐했던 뜻깊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 뜻깊은 추억은 진해기적의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넘어 진해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어릴 때부터 책을 접하며 꿈을 펼쳐 나가는 행복한 문화시민으로의 성장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을 더욱 공고하게 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주말을 이용해 도서관을 가면 언제나 관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자원활동가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봉사로 따스하고 활기찬 분위기에 공간 곳곳에 책읽기와 연결하여 이야기, 노래와 공작, 토론과 연극 등 살아있는 도서관이란 느낌을 흠뻑 주었습니다. 학교 방학 무렵이면 진해기적의도서관 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인기가 워낙 좋아 신청을 서둘러야 했죠. 이렇게 기적의도서관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 온 수 많은 진해의 아이들이 어느새 20년이 되어 이제 성년이 되었습니다. 20년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수 많은 새내기 부모들이 진해기적의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북스타트'프로그램은 아이들과 책을 매개로 놀이하며 정서적 교감의 중요성 및 다양한 양육방법을 이해하는 부모교육 역할을 잘 담당해 왔습니다. 20년 전, 작은 지방도시에 기적처럼 진해 시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건립된 아이들의 문화공간 '진해기적의도서관' 개관 20주년을 축하하며, 20년 동안 진해기적의도서관이 잘 감당해 온 가정과 학교, 도서관을 연결시키는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앞으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해기적의도서관 20주년 세미나 자료집

• 목 차 •

1. 2023 진해기적의도서관 개관 20주년 세미나 행사 계획	3
2. 진해기적의도서관 기본 현황	4
3. 강 연	
(1) '기적의도서관' 이 걸어온 길	9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	
(2) 진해기적의도서관 현안과 지속가능한 미래	14
(김수경 창원문성대학교 문헌정보과 교수)	
4. 토론문	
(1) 이 종 화	35
(창원시의원/진해기적의도서관 초대 관장)	
(2) 김 태 석	37
(진해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장)	
(3) 이 용 훈	38
(한국도서관사연구회 회장, 도서관문화비평가)	

진해기적의도서관 개관 20주년 세미나

행사개요

- 행 사 명 : 진해기적의도서관 개관 20주년 세미나
- 일 시 : 2023. 05. 13.(토) 14:00 ~ 17:00
- 장 소 : 진해기적의도서관 큰모임방
- 참석인원 : 50명 (전국 도서관 관계자 및 학계, 일반시민 등)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식	14:00 ~ 14:2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및 인사말씀 • 개회선언, 세미나진행 안내 토론 참석자 소개 	사회:기적의도서관장 내빈 축사 및 격려사
세미나	제1세션 주제발표 14:20 ~ 15:50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연 1. 기적의도서관이 걸어온 길과 의미 2. 진해기적의도서관 현안과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강인순 (경남대 전 부총장) 책사회 안찬수 상임이사 문성대 김수경 교수
	제2세션 토론 15:50 ~ 16:5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0.78인구절벽 어린이도서관의 방향 	좌장:강인순 (경남대 전 부총장) 이종화 의원 김태석 운영위원장 책사회 안찬수 상임이사 문성대 김수경 교수 이용훈 한국도서관사연구회장
폐회식	16:50 ~ 17:0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회 	

진해기적의도서관 현황

연혁

진해기적의도서관 연혁

- 2002년 11월 : 책임는사회 문화재단에서 MBC문화방송 느낌표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프로그램 방송으로 선정된 도서의 해당 출판사와 작가의 판매수익금 및 인세를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기부
- 2003년 2월 : 진해기적의 도서관 건립신청 및 제3차 건립지역 선정
- 2004년 2월 : 진해기적의 도서관 개관
- ※ 부지 : 진해시, 건물 : 책임는사회 문화재단에서 준공 후 진해시에 기부채납

도서관규모

위치	시설규모	주요시설물	연락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70 진해기적의도서관	부지 : 2,504.8㎡ 건축면적 : 789.17㎡ 연면적 : 842.08㎡ 강당 : 154.10㎡ 수용인원 : 200명	열람실 3, 서고, 사무실, 강당, 아기휴게실, 보존서고	전화) 547-0095, 547-0098 FAX) 547-0955

장서현황

(2023.3.31. 기준 단위 : 권)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총계
장서수	1,686	1,402	631	7,499	7,480	2,859	2,834	4,150	41,191	4,961	74,693
백분율	2.3%	1.9%	0.8%	10.0%	10.0%	3.8%	3.8%	5.6%	55.1%	6.6%	100.0%

비도서현황

(2023.3.31. 기준 단위 : 종)

구분	VIDEO	DVD	CD	합계
계수	63	1,863	439	2,365

대출현황

(2023.3.31. 기준 단위 : 권)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총계
권수	571	483	236	1,490	2,183	926	927	1,323	15,279	2,122	25,540

이용자 현황

(2023.3.31. 기준 단위 : 명)

자료실 이용	문화행사	23년 누적	1일 평균 이용자
29,752	716	30,468	423

2023 진해기적의도서관 20주년 세미나

강 연

- (1) '기적의도서관' 이 걸어온 길
- (2) 진해기적의도서관 현안과 지속가능한 미래



진해기적의도서관

'기적의도서관'이 걸어온 길과 의미¹⁾

안 찬 수

책임은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

좋은 도서관을 많이 가진 나라만이 기분을 갖춘 나라, 품격과 품위를 말할 수 있는 나라, 창조적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나라이다. -도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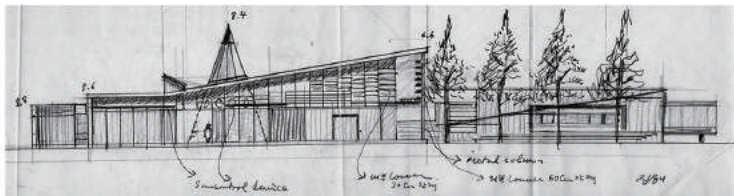


기적의도서관 전경,진해기적의도서관 등 기적의도서관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였다.

1.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창조적 성장환경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회의 사회적 평등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모형의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순천기적의도서관이 2003년 11월 30일 개관한 이래, 2023년 현재 제천, 진해, 서귀포, 제주, 청주, 울산북구, 금산, 부평, 정읍, 김해, 도봉, 부산강서, 구로, 공주, 여주 등 모두 16개관이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인제, 부산진구, 삼척 등 3곳에서는 현재 한창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적의도서관'은 도서관의 새로운 공간과 서비스, 시민 참여형 운영 모형을 사회적으로 제시하고자 했으며, 각 지자체에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도서관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1) 이 글은 <월간 국회도서관> 매겨진 2023년 5월호, '특집주제: 세대공감 도서관' 원고이기도 합니다.



사진은 건축가 정기용의 진해기적의도서관 입면 스케치. 현재 기적의도서관은 16개관이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인제, 부산진구, 삼척 등 3곳에서는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올해는 순천기적의도서관을 비롯해서 제천기적의도서관, 진해기적의도서관이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에 더욱 각별합니다. 기적의도서관의 역사는 우리나라 어린이도서관과 도서관서비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온 역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의도서관이 걸어온 길은 전국의 1백여 관에 달하는 어린이도서관, 1천2백여 관에 달하는 공공도서관, 그리고 학교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모색, 탐구, 실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기적의도서관은 네 가지 혁신적인 모델을 사회에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간 모델입니다. 기적의도서관은 건물과 공간의 차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설계하였고 건축하였습니다. 온돌마루, 아가의 방, 이야기 방, 오목 공간, 다목적실 등 어린이에 대한 배려와 참신한 구성이 도서관 곳곳에 스며들도록 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둘째는 운영 모델입니다. 기적의도서관은 민과 관이 함께 건립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도서관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민관협력(governance)의 모형을 사회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은 온 나라 사람들이 모이준 귀중한 시민성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합쳐서 건립했습니다.

셋째는 프로그램 모델입니다.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들을 즐거운 상상의 나라로 이끄는 매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도서관이 창조적 프로그램의 거점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 창조의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넷째는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관계 모델입니다. 기적의도서관은 단지 도서관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도서관을 매개로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정책의 변화와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순천시가 '도서관 도시'를 표방한 것 등이 그러합니다.

'기적의도서관'이 지난 20년 동안 뚝뚝뚝 걸어오는 동안, 우리나라의 도서관도 함께 변화하고 발전하였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기대 수준도

무척 높아졌습니다. 도서관을 더욱 도서관답게 만들어가는 일은 단지 도서관 직원만의 몫이 아닙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도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합니다. 도서관 업무를 맡은 사서와 이용자인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과거의 도서관을 미래의 도서관으로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은 새로운 공간과 서비스, 시민 참여형 운영 모형을 사회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3. 기적의도서관 건립 운동에는 소파 방정환 선생으로부터 이어지는 어린이 존중 정신, 어린이에게 창조적 성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민의 창의와 관의 자원을 결합한 민관협력의 정신, 새로운 도서관 공간과 운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도서관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창의적인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은 이미 도서관 문화운동의 한 성과로서 국내외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문화정책의 영역에서만 아니라 사회복지, 정보복지, 지역공동체 운동의 차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도서관입니다. 기적의도서관은 루소(J.J.Rousseau)의 사상에서 자극을 받고, 엘렌 케이(Ellen Key)의 『어린이세기』, 『Jahrhundert des Kindes(1900)』의 영향을 받아, 192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온 '어린이로부터'의 생각을 담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무엇보다도 소파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파 선생은 1922년 '어린이의 날' 선언, 1923년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어린이날의 취지'와 함께 '소년운동의 기초조건', '어른들에게 쓰는 글', '어린이에게 쓰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셰이브 더 칠드런의 창시자인 에글랜타인 켄(Eglantyne Jebb, 1876~1928) 여사가 1923년에 만든 아동권리선언의 초안이 1924년 국제연맹에서 제네바선언으로 채택된 것보다 앞선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순천기적의도서관은 2022년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여 어린이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순천 어린이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선언문의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세요."

소파 선생의 '어른들에게 쓰는 글' (1923)의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여기서 '쳐다보다'는 것은 '올려다보다'는 것입니다. 존중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사람이 하늘이며, 만물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사상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운동,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의 정신은 이런 사상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전국의 기적의도서관에서 2009년부터 펼쳤던 '어깨동무 책동무'라는 사업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하고 저학년 읽기부진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도시의 어린이들은 5-6세가 되면 글자를 익히고 그림책도 제법 읽고 학교에 입학하지만 소외 지역과

계층의 어린이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읽기'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학교에 입학해 초등학교 2-3학년이 되어도 읽기부진의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적정 연령 때에 읽기부진을 겪으면 이는 학습장애로 이어집니다. 또한 읽기부진의 상태에서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뚜렷한 자존의 느낌을 갖기 어렵습니다. '어깨동무 책동무'는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낙인효과' 없이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서 함께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읽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획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 존중의 정신을 실천해온 헌장이다. 진해기적의도서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 하자는 북스타트 활동 시간의 모습



좋은 도서관을 많이 가진 나라만이 기본을 갖춘 나라, 품격과 품위를 말할 수 있는 나라, 창조적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나라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독서소외인'을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고 규정(독서문화진흥법 제2조 3항)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읽기쉬운책재단'의 대표인 브로르 잉게마르 트론박케가 작성한 <읽기 쉬운 책을 위한 IFLA 지침서>에 따르면 '독서소외인'이란 지적장애인, 디스레시아, 자폐증, 언어습득 이전의 청각장애, 시각장애인, 심어증 환자, 고령자, 이주자, 미세 뇌기능장애, 주의력·운동인지 장애뿐만 아니라 기능적 문맹자, 교육적 불이익을 받는 사람, 어린이 등을 말합니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독서소외인'은 매우 폭이 넓은 개념으로 장애인은 물론이고, 어린이를 포함하여 '책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개발한다는 것은 '독서소외인' 모두를 존중하며, 독서소외인을 생각하면서 도서관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천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도서관과 함께 우리나라 도서관의 발전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5. 2016년 6월부터 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계의 여러 인사를 모시고 '기적의도서관2.0'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왔습니다. '기적의도서관2.0'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도서관의 미래' (The library of the future)에 눈을 돌리고자 하았기 때문입니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 저출산과 노령화로 일궈어지는 사회 변화 속에서, ①도서관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②시민의 저치·저렴적 삶을 지원하는 도서관, ③지역사회의 변화 발전을 이끌어내는 도서관, ④더욱 새로운 공간과 서비스와 운영을 모색하는 도서관에 대한 논의의 작은 '씨앗'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느덧 개관 20년이 맞이하고 있는 기적의도서관. 자라나는 세대에게 더 나은 창조적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온 기적의도서관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진해기적의도서관 현안과 지속가능한 미래

김 수 경

(창원문성대학교 문헌정보과 교수)

목 차	
1. 들어가며	4. 진해기적의도서관 현안과 과제
2. 창원시 도서관 현황	4.1 진해기적의도서관 운영 현황
2.1 공공도서관의 성립 과정	4.2 진해기적의도서관 지속가능한 미래
2.2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및 전망	5. 나오며
3. 어린이도서관 현황	참고문헌

1. 들어가며

요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며, 미래예측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서 혼란과 두려움이 앞서고 있다. 이러한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통틀어 '뷰카' (VUCA)라고 부른다. 뷰카(VUCA)란 휘발하며(Volatile), 불확실하고(Uncertain), 복잡하며(Complex), 모호(Ambiguous)하다는 뜻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다. 불확실성이 증가한 이유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지식생산성이 급증하고, 도시화와 세계화로 인한 연결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및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참여자의 역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가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는 저출산문제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일 것이다.

이처럼 저출산과 디지털화의 가속화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이다. 먼저, 저출산 문제는 인구 고령화와 경제성장 멈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출산 장려 정책과 육아 지원 정책 등이 있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역시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디지털화는 일부 산업에서 일자리를 대체하고, 불균형한 소득분배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균형있는 소득분배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나아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거스를 수 없다면 인간과 기계가 공존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한편 저출산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디지털 기술은 일부 산업에서 일자리를 대체하고, 일자리 유형의 변화와 소득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디지털 기술은 원격 근무나 유연한 근무환경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일자리와 가족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 모델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원격 의료 서비스나 디지털 육아 서비스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출산 후 직장 복귀를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유용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어쨌든, 디지털 전환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중 하나일 수 있다.

2) "2021년 한국 사회는 어떤 피도를 탈 것인가 : 5가지 분야로 본 2021 한국 사회의 위기와 기회", 한겨레신문(2021. 1. 7.)

예전에는 한 세대를 대략 30년으로 보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로 구분해 왔는데 디지털세대는 한 세대가 10년 단위로 더 세분화하고 있다. 나이로 보면 10대와 20대와 30대가 디지털세대에 속한다. 30대의 경우 나면서부터 피시(PC) 환경에서 자라났고, 20대는 모바일환경에서, 그리고 10대는 스마트폰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세대들이다. 사회에 진출한 30대는 직장에서는 신입사원으로, 시장에서는 주소비자층으로 등장했다. 밀레니얼세대인 20대는 2000년 초반 정보통신기술 붐과 함께 유년시절부터 인터넷과 모바일환경에 노출되어 신기술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소비행태가 전혀 다르다. 10대는 스마트폰 세대도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들잔찾상에서 스마트폰을 움켜쥐었다는 세대다.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을 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는 이 세대를 일컬어 와이파이어 세대라고 말한다. 그는 이 세대가 후천성 자연결핍 상태, 후천성 인간관계 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고 우려한다. 제2차 산업혁명의 부모들과 정보화시대의 아이들, 그리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시대의 아이들은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꿈꾸는 것이 전혀 다르다. 부모와 자녀세대,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절실하다.³⁾

이처럼 디지털전환의 가속화는 생활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서울연구원의 한 보고서⁴⁾에 따르면, 요즘 화두인 MZ세대, 그다음은 알파(Alpha)세대라 하며, 이들은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이다.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가족의 소비가 한 아이에게 집중된다는 의미의 에티 포켓(8-pocket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이모, 삼촌 등 8명의 친척이 아이를 위해 자금을 여는 현상), 골드 키즈(gold kids ; 왕자나 공주처럼 귀하게 키우는 외동아이)라는 신조어로 표현되는 세대이기도 하다.

알파세대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실내놀이시설을 찾기도 한다. COVID-19 팬데믹 이후에는 공원·놀이터 등 야외시설(90.2%), 숲(83.3%)과 같은 실외공간을 재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실내공간 개방률은 도서관(42.6%), 전시 및 체험시설(38.4%)을 많이 찾고 있다. 알파세대 아이의 놀이와 문화활동을 위해, 부모들은 시간을 할애하는데도 적극적이다. 차로 20분 정도의 거리는 마다하지 않는다. 놀이시설로의 평균 차량 이동시간 (평균 23분)이며, 도서관은 15분 정도이다.

밀레니얼세대 부모와 함께 지내는 알파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하다. 4~6세 아이들 중 71%는 평균 1시간 넘게 미디어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휴대폰 보유율은 60%에 달한다. (2018년 기준) 초등학교생은 주로 모바일 게임을 하는데, 아이들의 모바일 이용 증가로 크리에이터, 웹툰 작가, 프로그래머 등의 직업선택도가 높아졌다. 서울연구원은 "알파세대와 같은 미래세대의 특성에 주목해야 하고, 미래세대의 생활양식 변화를 반영한 공공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한다.⁵⁾

이 연구보고서에서 주목할 것은 미래세대에 공급해야 할 공공시설의 방향에 대한 것이다. COVID-19 팬데믹 이후 알파세대를 양육하는 밀레니얼세대 부모들은 아이들의 실내놀이 공간으로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창원시의 유일한 어린이전용도서관 진해기적의도서관 20주년을 맞아 창원시의 미래 도시계획과 진해기적의도서관의 현안을 살펴보고 사회 변화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여 진해기적의도서관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3) X, Y, Z... 디지털 세대 구분법", 한겨레신문(2019. 9. 29)

4) 서울연구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누리과정 미취학아동(만4세~6세) 450명을 대상으로 2020년 9~11월에 가족특성, 시설이용행태, 시설만족도, 이용시간 등에 대해 조사하여 "서울시 미래세대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공급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출처 : 알파세대 탐구생활, 서울연구원 카드뉴스 제15호(2021.11.18), <https://www.sure.kr/node/65298>, [2023. 4. 20])

5) 허자민 외, "서울시 미래세대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공급 방향",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2020).

2. 창원시 도서관 현황

2.1 공공도서관의 설립 과정⁶⁾

창원의 공공도서관 역사는 창원시의 행정자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하여 왔으며, 크게 199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990년대 이전에 설립된 공공도서관으로는 경남 및 현 창원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인 1954년에 설립된 마산도서관과 1975년 설립된 진해도서관이 있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 소속 마산도서관과 진해시 소속 진해도서관은 엄밀히 말하면 2010년 창원시가 마산시와 진해시와 통합되기 전 각각 마산시와 진해시에 속한 도서관이어서 창원시에 위치해 있지 않았다. 이후 창원군이 1973년 기계공업화기지로 선정되고 1980년 창원시로 승격되면서 창원시에 외지인들이 대거 유입되어 교육 문화의 수요가 늘어나고 경주역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83년 경남교육청 소속 창원도서관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1993년 창원시립 의창도서관(현 창원중앙도서관)이 설립되기 전 유일한 창원의 공공도서관이었다. 초창기 창원도서관이 설립된 사회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창원도서관의 역할은 공부방 구실에 치중했다는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공단을 조성해 가는 과정에서 오늘날 창원에서 문화활동 등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세워지는 산실 역할을 한 공간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공존한다.⁷⁾

1990년대부터 2010년 이전까지 창원지역 공공도서관은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 마산시에 진동도서관이 1993년에 설립되었고, 창원지역에는 같은 해 창원시 소속 최초의 도서관인 의창도서관(현 창원중앙도서관)이 설립되었다. 이후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면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에는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즉 마산시 소속 마산회원도서관(1995), 내서도서관(1997), 마산합포도서관(2002)이 설립되었고, 창원시에는 고향의봄도서관(2002), 상남도서관(2002)이 설립되었으며, 진해시에는 진해기적의도서관(2004), 동부도서관(2006) 등이 속속 들어서게 된다.

2010년 창원시는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 통합으로 통합창원시가 출범하여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로 개편되었다. 2010년 통합 창원시 이후 설립된 도서관으로는 창원시 소속 성산도서관(2010), 명곡도서관(2012),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2014), 최윤덕도서관(2022)이 최근에 설립되었고, 경남교육청 소속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2018), 경상남도 소속 경남대표도서관(2018)이 설립되어 창원지역에는 2023년 3월 현재 광역대표도서관 및 진해기적의도서관을 포함하여 18개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어 있다.

운영주체별로는 경상남도 소속 1개(경남대표도서관), 창원시소속 13개(민간위탁 진해기적의도서관 포함), 경남교육청소속 4개이며, 구별로는 의창구(경남대표도서관, 고향의봄도서관, 명곡도서관, 최윤덕도서관), 성산구(창원도서관, 창원중앙도서관, 성산도서관, 상남도서관), 마산회원구(마산회원도서관, 지혜의바다도서관, 내서도서관,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에 각 4개 도서관, 마산합포구(마산도서관, 마산합포도서관, 진동도서관), 진해구(진해도서관, 동부도서관, 진해기적의도서관)에 각 3개 도서관이 분포되어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6) 김수경, “90년대 이후 창원지역 마을도서관운동”, 한국도서관사연구회, 《59회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 자료집 : 마산 창원지역 도서관의 역사와 의의》(2022), pp.53-56.

7) 창원도서관이 그 당시 공공도서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대해 좀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창원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이용자들의 생활사 면담내용, 근무했던 직원, 창원도서관 유일한 간행물 ‘해돋이’ 및 신문기사 등을 통해 그 면모를 그려내고 있는 다음의 책을 참조바람. 양재환,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 태일사, 2000, pp.53-62.

<표 1> 창원시 공공도서관 현황 (2023. 3. 현재)

연번	도서관명	설립 주체	개관 년도	비고
1	경남대표도서관	지자체	2018	의창구
2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교육청	1954	마산합포구
3	경상남도교육청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교육청	2018	마산회원구
4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교육청	1993	마산합포구
5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교육청	1983	성산구
6	고향의봄도서관	지자체	2002	의창구
7	내서도서관	지자체	1997	마산회원구
8	진해동부도서관	지자체	2006	진해구
9	마산합포도서관	지자체	2002	마산합포구
10	마산회원도서관	지자체	1995	마산회원구
11	명곡도서관	지자체	2012	의창구
12	상남도서관	지자체	2002	성산구
13	성산도서관	지자체	2010	성산구
14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	지자체	2014	마산회원구
15	진해도서관	지자체	1975	진해구
16	창원중앙도서관	지자체	1993	성산구
17	진해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2004	진해구
18	최윤덕도서관	지자체	2022	의창구

그리고 2010년 7월 1일 창원시가 통합하면서 창원시 도서관 운영 조직인 창원시도서관사업소가 출범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 창원시가 구를 재구획하면서 의창구에 속했던 의창도서관이 성산구로 편입되면서 도서관명칭을 창원중앙도서관으로 개칭하였고, 2022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 승격이후 도서관사업소 조직도 개편하였는데, 5개 구별 센터도서관을 지정하고, 소속 분관도서관을 재편하였으며, 각 구별 도서관 운영지원 조직명은 구의 명칭을 사용하여 설정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창원시도서관사업소 조직 현황 (2023. 04. 현재)

센터도서관	구별 도서관운영조직	분관
창원중앙도서관	성산도서관과 (도서관정책/시설)	성산도서관
		상남도서관
최윤덕도서관	의창도서관과 (운영지원)	고향의봄도서관
		명곡도서관
마산합포도서관	마산합포도서관과 (운영지원)	마산합포도서관
마산회원도서관	마산회원도서관과 (운영지원)	내서도서관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
진해도서관	진해도서관과 (운영지원)	동부도서관
		진해기적의도서관(민간위탁)

이를 조직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창원시 도서관사업소 조직도 (2023. 4. 현재)



출처: 창원시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 <https://lib.changwon.go.kr/> [2023. 4. 20]

나.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및 전망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창원시 공공도서관수 주요지표는 다음과 같다. 창원시 공공도서관수는 17개관이며, 1관당 장서수(176,851권)는 전국과 경남에 비해 많으며, 1관당 방문자수(198,880명), 1관당 도서대출수(172,275권)는 전국 및 경남에 비해 높은 편이며, 1관당 봉사인구수(60,749명)는 전국 및 경남에 비해 다소 낮아, 공공도서관 건립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창원시는 시민들이 도서관 수에 비해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창원시 공공도서관 주요 지표

(단위 : 개소, 명)

구분	공공도서관수	1관당 장서수 (인쇄자료수)	1관당 방문자수	1관당 대출도서수	1관당 인구수
창원시	17	176,851	198,880	172,275	60,749
경 남	76	107,930	110,566	110,957	43,608
전 국	1,208	100,113	115,016	110,768	42,747

출처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2021년 기준)

한편, 『2040 창원도시기본계획』(2023)에 따른 향후 창원시의 공공도서관을 비롯 문화시설 등의 지표 전망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은 2021년 현재 창원시 관련 계획 및 정부 「생활SOC 3개년계획

(2020~2022)」 지표인 4.3만명당 1개(인구 1만명당 0.23)개를 고려하여 2025년부터 19개소까지 확대하고, 2040년 26개소(인구 만명당 0.23개)로 늘리도록 지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진해문화센터 열린도서관 건립(~24년),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22년) 예정을 포함한 지표이다. 문화시설(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지역문화복지시설 등)은 현재 창원시 관련계획 및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인구 천명당 지표인 2030년 0.1개, 2040년 0.12개를 고려하여 2030년 69개소, 2040년 114개소로 지표(근대항만 역사관 건립 등 2024년까지 8개소 예정)를 설정했다. 공공체육시설은 「제4차 경상남도종합계획」 인구 십만명당 지표인 13.7개소를 이미 초과하는 상황으로 현재 창원시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2030년 170개소, 2040년 175개소 계획(여좌지구 국민체육센터 등 2025년까지 개소 예정)이 설정되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2040 창원시 문화지표

(단위 : 개소, 년/명)

구 분	2018	2025	2030	2035	2040
공공도서관	15	19	21	24	26
인구 만명당 공공도서관수	0.14	0.19	0.20	0.22	0.23
문화시설	53	61	69	87	114
인구 만명당 문화시설수	0.50	0.61	0.65	0.80	1.00
공공체육시설	157	168	170	172	175
인구 십만명당 체육시설수	14.7	25.2	25.5	27.0	26.8

출처 : 『2040 창원도시기본계획』, 창원시(2023), p.193

3. 어린이도서관 현황 8)

『도서관법』(2006년 제정)에 의하면 어린이도서관이란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021년 전부개정된 「도서관법」(2021.12.7. 전부개정, 2022.12.8. 시행)에는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어린이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범주에 속한다.

공공도서관이 국내에 등장한 것은 1900년대 이후이며 어린이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전문도서관의 등장은 1979년 ‘세계 어린이의 해’를 맞이하여 서울 사적공원에 설립된 ‘어린이도서관’ (현재 명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과 대구 ‘유진어린이도서관’과 1980년 5월 광주 ‘시립어린이도서관’을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우리나라 어린이도서관은 민간차원에서 기업체나 시민단체 등이 나서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 에스케이(주)가 인포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면서 국내외로 어린이도서관 22개관을 확산시켰다. 나아가 2003년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 MBC 느낌표 프로그램과 함께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9)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할 때 어린이전문 공공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건립하는 사례가 많아져 공공어린이도서관 수가 확대되었다.

8) 이 장은 김수경 외 공저, 『문헌정보학개론』(대구: 태일사, 2021), pp.198~202, 수정, 보완한 내용임.

9) 김영옥, 『어린이도서관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청주시의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 문헌정보학과, 2011, pp. 1~2.

국내에서 어린이(아동)도서관이라는 용어는 1920년대에 등장하였고 공공도서관의 아동실, 아동문고, 어린이실, 어린이열람실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2006년 「도서관법」에서 어린이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6년 이전부터 국내에는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도서관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먼저 「도서관법」(2006) 제2조에는 '어린이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이라 하여 어린이도서관을 공공도서관 범주의 하나로 포함하였으나 어린이도서관의 종류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한편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연합(2009)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을 운영 형태에 따라 독립적인 어린이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 초등학교 소속 도서관, 사립 어린이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기타 대학이나 국회 도서관 등에서 설립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으로 나누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의 유형을 구분하는 일반적 기준인 설립 주체에 따라서 공립 및 사립 어린이도서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립 어린이도서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도서관이고, 사립 어린이도서관은 개인, 단체 및 법인이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도서관을 포함한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을 시설 및 자료의 기준(대통령령 제21739호)에 따라 구분하면 공공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일부 개정된 「도서관법」과 2012년 제정된 「작은도서관진흥법」에 작은도서관이 규정되었음에도 도서관 현장에서는 이전부터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해 왔고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⁰⁾

여기서는 시설 및 규모에 따라 공공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하여 공공도서관 규모의 전용 어린이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하여 공공어린이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으로, 어린이작은도서관(문고)은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하여 어린이도서관에서 제외하고 어린이도서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3년 현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어린이도서관은 110개관이며,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교육청 소속 3개관(대전 산성어린이도서관(2023),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2018),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1979)), 사립 어린이도서관이 3개관(수원시 화흥어린이도서관(2005), 전주시 마하어린이도서관(2018), 부산시 꿈키어린이도서관(2022))이며, 나머지 104개 도서관은 지자체 소속 도서관이고, 이 중 16개 기적의도서관이 포함되어 있다.

기적의도서관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자체 및 MBC 프로그램 《느낌표》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코너와 협력하여 만들기 시작해, 계속 만들고 있는 어린이전용도서관이거나,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하고 있다. 기적의도서관 건립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2), 부산(1), 서울(2), 경기(1), 울산(1), 인천(1), 전남(1), 전북(1), 제주(2), 충남(2), 충북(2), 총 16개가 건립되어 있으며, 부산(1), 강원(2)에 3개 건립 예정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전국 기적의도서관 건립 현황

연번	도서관명	개관일	연면적 (㎡)	운영주체	비고
1	순천기적의도서관	2003. 11. 10.	1,824	시 직영	전남
2	계천기적의도서관	2003. 1.2 15.	1,069.53	민간위탁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충북
3	진해기적의도서관	2003. 12. 22	789.17	민간위탁 (꿈자람사회적협동조합)	경남계관 (2004. 2. 2.)
4	서귀포기적의도서관	2004. 5. 5.	911.48	시 직영	제주
5	제주시기적의도서관	2004. 5. 5.	728	시 직영	제주
6	청주기적의도서관	2004. 7. 15.	968.53	민간위탁 (대한청소년총효단연맹)	충북
7	울산북구기적의도서관	2004. 7. 28.	728.5	구 직영	울산
8	금산기적의도서관	2005. 5. 5.	528.52	군 직영	충남
9	부평기적의도서관	2006. 3. 10.	926.21	공공위탁 (부평구문화재단)	인천
10	정읍기적의도서관	2008. 5. 23.	1,274.02	시 직영	전북
11	김해기적의도서관	2011. 11. 30.	1,458	시 직영	경남
12	도봉기적의도서관	2015. 7. 30.	1,489.27	공공위탁 (도봉문화재단)	서울
13	부산강서기적의도서관	2018. 10. 23	1,289.18	구 직영	부산 이후 전연령층 대상 봉사
14	구로기적의도서관	2019. 8. 27.	1,106	민간위탁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서울
15	공주시기적의도서관	2020. 5. 7.	4,074.87	시 직영	충남
16	여주시기적의도서관	2022. 3. 22.	1,058.2	시 직영	경기
17	인제기적의도서관	2023. 상반기 예정	2,995	군 직영	강원
18	부산진구기적의도서관	2023. 하반기 예정	2,203	-	부산
19	삼척기적의도서관	2024. 예정	3,000	-	강원

출처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또한 건립된 16개 기적의도서관 운영주체는 10개 도서관은 시군구 지자체 직영, 6개는 민간위탁이며, 그중 2개는 책사회가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부산강서지적의도서관 건립부터는 어린이전용도서관이 아니라 일반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전연령층 대상 공공도서관으로 건립되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의 설립은 공공영역보다는 주로 민간영역의 참여가 많았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이 설립한 어린이도서관으로 1977년에 잠실어린이도서관, 1978년에 유진어린이도서관이 있었다.

10) 김지환, 정연경,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연구 : 1945~200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2019), pp.96~101.

시민단체가 설립한 어린이도서관으로 1982년에 마을어린이도서관이 있었고 1990년대 법인이 설립한 인포어린이도서관 22개관이 있었으며 2000년을 전후하여 개인 및 단체가 설립한 어린이도서관이 100여 개관에 이르렀다. 공공영역에서 설립한 어린이도서관은 1979년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2001년 부천동화도서관이 도서관 등으로 매우 저조하였다.¹¹⁾

특히 인포어린이도서관은 (재)에스케이아하술문화재단(현 (재)이인포재단)이 어린이문화운동 차원에서 시작한 어린이도서관으로 문화적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의 어린이들에게 문화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주로 복지관, 낙도, 공단, 동포거주지 등에 설립하였다. 1990년 5월 4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제1호 북부인포어린이도서관을 시작으로 국내에 14개관(장선, 광주, 구로, 진도, 태백, 월곡, 대전, 인천, 대구, 연제, 가양, 전주), 중국 6개관(연길, 용정, 심양, 도문, 훈춘, 하얼빈)과 알마티, 사할린에 각 1개관 등 총 22개관의 인포어린이도서관이 세워졌다.¹²⁾

인포어린이도서관의 공간은 도서관이 세워지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고 사서를 채움하여 운영하게 하였고, 인포어린이도서관 본부에서는 책의 수서, 정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였고,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면서 분관체제로 관리와 운영을 하였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서교육 워크숍도 진행하였다. 인포어린이도서관은 1990년대 착박한 도서관 환경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세우는 모델을 제시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 설립자의 사망과 모기업의 어려움으로 도서관운영과 지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포어린이도서관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사라졌다.¹³⁾

어린이도서관은 2000년 이전에는 민간에서 활발하게 설립, 운영하였으며, 공공영역에서는 단 2개 어린이도서관만 있었고, 2003년 이후 기적의도서관 건립 운동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 어린이도서관 설립에 힘쓰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9년 한국도서관연감에 의하면, 최근 어린이도서관계의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⁴⁾ 최근 어린이도서관계는 지역의 허브 역할과 문화공간의 역할을 위하여 정량적·정성적 측면에서의 독서환경 개선 및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한 서비스 개선, 콘텐츠 개발, 공간 구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도서관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도서관 운영의 측면에서 위탁 운영의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위탁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의 보장 확립이 곤란하며 지자체와 위탁 단체(기관)간의 책임 범위의 모호성, 조직의 불안정성 및 도서관 운영 전문성의 한계 등의 문제로 지역의 체계의 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사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질적인 처우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이에 어린이도서관은 대표적 인쇄매체인 책 중심의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3D 프린터, 응용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정보와 지식의 창출 및 협업을 위한 공간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변화로 책 중심의 공간구성에서 다른 매체(기기, 장비 등)와 융합된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의 재구성이 도서관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다. 도서관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글 창작, 건축을 만들기, 조립, 책 만들기 등 기존의 물리적 만들기 활동에 디지털기술이 결합한 디지털제작을 통한 창작,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과 공유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어린이들보다 이 분야에 취약한 부모 세대를 위한 도서관서비스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발달로 실용적인 측면에서 디지털기술에 관한 요구와 동시에 철학, 인문학 등과 같

은 인간 본질에 관한 책 읽기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도서관이 문학, 디지털 등의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업체와 협력기관 등을 연계하여 도서관이 창의공간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하여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점점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의 정서적 측면과 더불어 지식·정보·창의 등의 균형된 발달을 위하여 서비스, 콘텐츠, 공간 등을 구성하여야 한다. 특히 메이커스페이스의 구축을 위하여서는 도서관의 모든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도서관의 다양한 역할을 위하여서는 단일 도서관의 한계로 인하여 도서관 자원의 연계·공유·협력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4. 진해기적의도서관 현안과 과제

진해기적의도서관은 어느 기적의도서관과 마찬가지로 2002년 MBC문화방송 프로그램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프로그램 방송으로 선정된 도서의 해당 출판사와 작가의 판매수익금 및 인쇄를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한 기금으로 건축된 도서관이다. 2003년 2월 진해기적의도서관 건립신청 및 제3차 건립지역 선정이 되고, 동년 3월 진해 기적의도서관 건립위원회를 구성(위원장 이이효재)하고, 건축설계는 고정기용 건축가, 시공은 광동종합건설이 동년 12월 22일 준공식을 하여, 2004년 2월 2일 도서관을 개관을 하였다.¹⁵⁾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진해시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민간위탁 과정은 여러 부침이 많았지만 운영의 기틀을 다지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건립위원장이자 초대 운영위원장이었던 우리나라 여성학계의 거목이신 고(故) 이이효재 선생님과 초대 이종화관장의 숨은 노력이 컸으며, 2008년 개관 5주년을 맞아 기념자료집이 발간되었고, 2013년에는 진해기적의 도서관 10년사가 발간되었다.¹⁶⁾ 2010년 통합창원시가 되면서 위탁 주체가 여러 번 변경되다가 2020년부터 공동육아와 그림책도서관 운영을 해온 꿈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을 맡아 주홍진 관장이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6년 통합창원시도서관시스템에 편입되었고, 2020년에는 RFID시스템이 도입되었고 2021년에는 부분 리모델링을 통해 동년 12월 개개관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창원시도서관사업소의 직계 내 진해도서관의 행정적 관리·지원협력 체계하에 운영되고 있다.

최근 출판을 저하, 고령화 심화, 코로나 팬데믹 현상과 디지털문화의 확산으로 생활양식이 전반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독서연구와 독서를 감소로 도서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진해기적의도서관도 예외가 아니어서 도서관을 둘러싼 주거 및 교육 환경의 변화로 도서관 이용율이 점차 감소해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올 초 진해기적의도서관은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통해 현재 진해기적의도서관 현안을 엿볼 수 있다.

4.1 진해기적의도서관 운영 현황

진해기적의도서관은 시설은 부지(2,504.8㎡), 건축면적(789.17㎡), 연면적(842.08㎡), 강당(154.10㎡)이며, 수용인원 200명과 열람실 3, 서고, 사무실, 강당, 아키휴게실, 보존서고 등이 있으며, 창원시 진해구

11) 김지환,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발전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9, p.113.

12) 인포어린이도서관, <http://www.infolib.or.kr/center/info/intro.asp>, [2023.4.20.]

13) 김지환 일의 논문, pp.110~111.

14) 민경록, “어린이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2019 한국도서관연감』, (2019), pp.84~85.

15) 진해기적의도서관, <https://www.inml.or.kr/front/>, [2023. 4. 20.] (※부지는 진해시, 건물은 책있는사회 문화재단에서 준공 후 진해시에 기부채납함)

16) 이종화, 「진해에는 기적의 도서관이 있다」, (서울: 창은출판사, 2008), ; 임영희,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 진해기적의도서관 10년사」, (창원: 동인, 2013).

석동에 위치해 있다. 직원은 관장 포함 7명(관장, 사서3명, 행정·전산·관리 각 1명)이다. 2020년 COVID-19 이전 5년간과 2020년 이후 2022년까지의 도서관자료 및 이용현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진해기적의도서관 자료 및 이용 현황 (2016~2022년)

년도	자료현황				이용현황								운영 일수	
	계	장서	청기 간행물	비도서	도서대출권수		이용자수		장애인 태내 (권)	타권대출 (권)	타관대출 반납(권)	프로그램 참여(명)		
					누계	평균	누계	평균	누계	누계	누계	누계		평균
2016	81,112	84,047	83	2,002	77,477	283	111,384	406	-	2	-	28,240	85	274
2017	88,804	88,870	83	2,071	72,585	287	124,454	510	-	785	-	28,789	97	244
2018	71,386	68,155	83	2,168	77,809	282	178,150	602	2	872	9025	20,494	68	296
2019	75,397	72,975	83	2,258	83,357	291	186,222	698	1	638	11,821	17,857	62	286
2020	77,728	73,314	83	2,948	59,402	307	90,880	515	21	1,488	6,999	1,891	9	194
2021	74,987	72,439	83	2,935	93,798	301	180,191	626	18	2,988	11,985	3,403	14	240
2022	78,749	74,321	83	2,905	94,021	313	114,066	380	57	1,859	15,630	5,584	18	300

출처 : 진해기적의도서관 내부자료 (2023.01.)

진해기적의도서관의 자체 분석에 의하면, 이용율과 대출율은 꾸준히 상승하였는데, 2022년 일시적 약간의 감소현상이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내부요인을 꼽고 있다. 첫째, 내부요인으로 1) 연간 운영일수 변화 원인은 도서관 실내외공사 및 시스템 정비를 들 수 있다. 즉 2016년에는 코라스 작업 30일, 2017년 장서점검 9일, 2019년 자봉 공14일 2020년 코로나 임시휴관, 2021년 리모델링 64일 휴관과 장서점검 9일 등이다. 2) 연도별 현황에서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 및 리모델링공사 특수 상황임을 고려할 때 2020년 이전인 2016년에서 2019년과 2020년에서 2022년도 변화 추이도 변질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3) 2022년 대출권수와 이용자수의 감소현상은 2021년 리모델링 공사 이전 시행한 무제한 대출서비스가 대출권수와 이용자수에 영향으로, 29일간의 무제한 대출권수는 12,043권으로 2021년 총 도서 대출 93,798권의 13%를 차지했다. 4) 2020년 RFID 태깅 및 책이음 전환 서비스 이후 대출자수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1인당 대출권수는 2.3권, 2021년은 2.7권, 2022년은 3.7권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책이음 등급 전환 서비스 이전 2019년, 2018년 1인당 대출권수 2.2권과 비교할 때 증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5) 2020년 자동무인반납기 설치는 팬데믹 상황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타관대출반납권수가 2018년 연간 9,025권수에서 2022년 15,630권으로 173% 증가하였다.

둘째, 최근 이용율 감소의 외부요인으로는 1) 미디어의 다양화로 도서관 서비스 중의 독서에 대한 관심도 저하, 2) 독서문화기반환경의 질적 향상과 공급 확대로 이용자 분산 현상 즉,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2022년 최윤덕 도서관 개관, 마산시립 회원도서관 리모델링, 스마트 미래형 도서관인 창원도서관 책담 개관 등은 젊은 세대의 선호도와 접근성을 높인 도서관 시설의 선진화로 도서관 이용자분산의 요인이 되었다. 3) 창원시 영유아 및 어린이 인구수 감소, 즉 창원시 0세~14세 이내 어린이수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6,300명 감소 및 진해구 어린이수 1,641명이 감소하여 창원시 인구 전체 감소율의 26%를 차지했다. 4) 자가운전 확대와 초등학교 200m 이내 도서관 인근 도로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자 단속 강화로 주차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5) 진해기적의도서관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 내 젊은 세대 출이 증가하여 도서관 인근 초등학교 재학생 수가 감소하고 인근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 신설 초등학교 및

신규 초등학교 재학생수는 점차 확대되고 있어 겹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 이용자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다. 17) 2022년 COVID-19 팬데믹이 종식되었으나 이용자수나 대출권수가 감소한 원인은 도서관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도서관 외부 환경적 요인이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1) 지속적인 어린이 회원 대출 이벤트 신설 2) 자연친화적인 열람 및 휴게 공간 확대(방수 및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옥상 녹화사업 진행) 3)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 도서관 견학 신청 확대 4) 기존 북스타트 책 꾸러미 지급대상을 북스타트, 북플러스, 북스타트 보물상자 3단계에서 초등 책날개 단계로 확대하여 어린이 회원카드 발급 기회 증대 5)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의 연계활동 모색 6) 탄소발자국 캠페인을 통한 도모로의 도서관 방문 권장 등을 모색중이다.

한편, 진해기적의도서관 7명 직원에게 2023. 4. 21.~4. 23. 다음과 같이 무기명으로 열린 질문을 했는데, 7명에게 답변 받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진해기적의도서관 직원 질문지

질 문	답 변				
Q1. 가장 큰 가치	-지역의 어린이들을 온 마을이 키우는 어린이 전문도서관 -결혼과 육아로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도서관 자원활동을 통해 재능 개발의 기회 마련으로 사회 재건술 허브 역할 담당 -어른, 아이 모두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유기체적 공동체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서 역할				
Q2. 성과가 가장 좋은 사업	-북스타트 (7명 모두) - 창원시통합시스템 도입 -FRID 시스템 도입 - KDC 변경 사업				
Q3. 반드시 이어나 가야 할 사업	-북스타트 (7명 모두) -북스타트를 포함한 자원활동가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서관을 이끄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봉사활동				
Q4. 개선점과 개선방안 (시설, 자료, 인력, 예산, 조직체계 중 가장 문제되는 2개)	<table border="1"> <thead> <tr> <th>개선점</th><th>개선방안</th></tr> </thead> <tbody> <tr> <td>1. 예산: 도서구입비 매년 2천만원 2. 노후시설 교체 및 공간혁신 3. 전문사서 부족, 정규인원 부족 4. 자료실 확충 5. 모든 시설 부족(자료실, 문서보존고, 열람실, 강의실) 6. 예산</td><td>1. 증액이 어렵다면 도서공유제나 전자도서 확대 2. 노후된 음향장비 교체 및 디지털 매체공간, 생태체험공간인 지혜의 뜰에 자연친화 연못과 텃밭 조성(기업후원) 3. 인건비 예산 확보 및 증대, 정규 사서 채용 (공공근로 또는 자원활동가에 대한 의존 낮추기 위해 정규직 채용) 4. 자료실 공간 확보 5. 보수 및 증축 6. 예산 확충</td></tr> </tbody> </table>	개선점	개선방안	1. 예산: 도서구입비 매년 2천만원 2. 노후시설 교체 및 공간혁신 3. 전문사서 부족, 정규인원 부족 4. 자료실 확충 5. 모든 시설 부족(자료실, 문서보존고, 열람실, 강의실) 6. 예산	1. 증액이 어렵다면 도서공유제나 전자도서 확대 2. 노후된 음향장비 교체 및 디지털 매체공간, 생태체험공간인 지혜의 뜰에 자연친화 연못과 텃밭 조성(기업후원) 3. 인건비 예산 확보 및 증대, 정규 사서 채용 (공공근로 또는 자원활동가에 대한 의존 낮추기 위해 정규직 채용) 4. 자료실 공간 확보 5. 보수 및 증축 6. 예산 확충
개선점	개선방안				
1. 예산: 도서구입비 매년 2천만원 2. 노후시설 교체 및 공간혁신 3. 전문사서 부족, 정규인원 부족 4. 자료실 확충 5. 모든 시설 부족(자료실, 문서보존고, 열람실, 강의실) 6. 예산	1. 증액이 어렵다면 도서공유제나 전자도서 확대 2. 노후된 음향장비 교체 및 디지털 매체공간, 생태체험공간인 지혜의 뜰에 자연친화 연못과 텃밭 조성(기업후원) 3. 인건비 예산 확보 및 증대, 정규 사서 채용 (공공근로 또는 자원활동가에 대한 의존 낮추기 위해 정규직 채용) 4. 자료실 공간 확보 5. 보수 및 증축 6. 예산 확충				
Q5. 발전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	-독서활동 외 어린이들의 다양한 체험 공간 구성에 대한 전폭적 지원 예) 모야 어린이작업공간, 디지털 독서체험 공간, 어린이방송실 등 -예산확보, 정규직 사서 채용, 인건비 인상 -창원시의 고정예 예산 지급의 개선 -전문적인 정규 인력 보충 및 고용불안 해소 -이용자의 만족도 높은 고품질 프로그램 실시 -기적의도서관이 지닌 고유성 보장 -민관 협력이라는 이상적인 혁신의 틀이 보존될 수 있는 전문성 갖춘 수탁단체 운영 보장				
Q6. 기타 의견	-직원들의 복지 혜택 추가				

17) 진해기적의도서관 내부자료(2023.01.)

〈표 7〉 진해기적의도서관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진해기적의도서관이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서 역할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하기 위해 시설 확충, 예산확보, 전문 인력 충원, 민간위탁 운영의 한계점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진해기적의도서관 가치를 보전하기를 기대한다.

앞서 진해기적의도서관 자체 문제점 분석 및 방안과 직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도서관의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북스타트 사업의 세분화 및 연계 전략 : 주이용자 타겟층(영유아 및 어린이) 맞춤형(책꾸러미 정기배송) 및 학교도서관과 연계한 청소년 북스타트 서비스
 - ① 북스타트 꾸러미, 플러스 및 보물상자 정기배송 서비스 :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영유아 및 유아 자녀와 부모를 위한 책꾸러미 정기배송 및 책읽어주기와 부모 독서지도 교육 (가정(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등 우선),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연계하여 기관으로 찾아가거나 도서관 방문 교육 확대)
 - ②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북스타트 : 학교도서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북스타트
 ⇒ 지자체의 연립별 북스타트 꾸러미 및 방문 정기배송 책꾸러미 예산 지원 확대
- 2) 부모교육의 강화 : 내 아이에서 우리아가 함께 행복한 지역공동체 가치 확산
 - ① 임신부교실 : 태교부터 도서관 이용 활성화, 내아이 첫책, 태교에 도움되는 정보, 좋은 책과 독서지도 교육
 - ②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위한 학부모 교육
 - ③ 자녀독서지도교육 : 온라인 자녀독서교육 콘텐츠 개발, 제공 서비스
 ⇒ 지자체의 관련 기관과 연계 서비스 및 공모사업 활용
- 3) 소유에서 접근으로 도서관 콘텐츠 패러다임 전환
 - ① 디지털콘텐츠 확충을 통한 서비스 실현 및 유비쿼터스 서비스 확대 : 전자책, 오디오북, 영상콘텐츠, AR·VRMR 등 디지털 콘텐츠 및 증강현실 체험북 등 구비
 - ② 디지털콘텐츠 활용할 설비 설치 : 실감서계, VR 체험실, 추천 독서정보 터치스크린, 책읽어주는 로봇(대어 가능) 등
 ⇒ 지자체 시범사업(기업후원 적극 유치)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공유, 상호대차 서비스 시스템 구축
- 4) 어린이청소년 주도적 체험활동을 통한 오프라인 활동 강화를 통한 공동체 체형
 - 메이커스페이스, 미디어 창작실, 예술문화와 결합한 책놀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기주도적 경험 확대, 친구들과 협동활동을 통한 공동체 가치 확산
 ⇒ 정부 및 지자체,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속사업으로 발전
- 5) 도서관 공간 혁신 : 디지털 서비스 공간과 종이책 서가 연계를 통해 이용자 및 독서인구 확대,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확보(어린이 작업실 및 미디어방송국 등)
 - 디지털콘텐츠로 독서흥미유발과 종이책과의 연계를 통해 심화 독서활동 프로그램 개발, 제공
 ⇒ 기업후원 적극 유치 및 지자체의 혁신적인 지원을 통해 도서관 공간 재배치를 통한 서비스 영역의 연계 및 개발

이를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진해기적의도서관 현안 과제에 대한 추진 전략

추진전략	추진 내용	정부 및 지자체 지원협력 방안
북스타트 사업의 세분화 및 연계 전략	주이용자 타겟층(영유아 및 어린이) 맞춤형(책꾸러미 정기배송) 및 학교도서관과 연계한 청소년 북스타트 서비스	지자체의 연립별 북스타트 꾸러미 및 방문 정기배송 책꾸러미 예산 지원 확대
부모교육의 강화	내 아이에서 우리아가 함께 행복한 지역공동체 가치 확산	지자체의 관련 기관과 연계 서비스 및 공모사업 활용
소유에서 접근으로 도서관 콘텐츠 패러다임 전환	디지털콘텐츠 확충 서비스 시설 구축	지자체 시범사업(기업후원 등)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공유, 상호대차 서비스 시스템 구축
체험활동을 통한 공동체 가치 확산	어린이들의 자기주도적 경험 확대, 친구들과 협동활동을 통한 공동체 가치 확산	정부 및 지자체,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속사업으로 발전
도서관 공간 혁신	디지털콘텐츠로 독서흥미유발과 종이책과의 연계를 통해 심화 독서활동 프로그램 개발, 제공 및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확보	정부 및 지자체 각종 공모사업 및 기업의 후원

4.2 진해기적의도서관 지속가능한 미래

영유아 및 어린이가 주이용층인 진해기적의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시대로의 대전환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공간의 변화, 디지털서비스 도입을 통해 진해기적의도서관에서 실현가능한 미래전망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디지털대전환시대 도서관들의 변신은 다양하다. 여기서는 어린이도서관의 공간 및 콘텐츠 변화의 사례로 부산의 들락날락 디지털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인 포아 메이커스페이스 공간구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어린이 디지털복합문화공간 : 부산 들락날락

디지털 기술과 융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사례로는 부산의 들락날락이 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사업은 15분 이내 생활권에 생활 필수 시설을 갖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15분 도시'를 추진 중인 부산시가 2030년까지 7,124억원을 투입해 부산 전역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500곳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구·군별 거점형(1000㎡ 이상) 16곳과 길에서 15분 안에 닿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인 중형(330㎡ 이상) 62곳과 소형(150㎡ 이상) 422곳으로 나눠 추진된다. 기존 공공도서관에 디지털 기기를 결합한 체험관과 미디어아트 등을 활용한 전시관, 인공지능 활용 교육 등이 가능한 학습관, 부모들의 정보 교류와 정보 발달의 장이 되는 커뮤니티관 등의 공간이 규모에 따라 조성된다. 작은도서관 등 공공도서관과 들락날락, 지역임주 공공기관, 문화·예술·체육시설, 민간 기업의 카페, 갤러리 등 기부 공간까지 들락날락 공간으로 활용한다. 또 문화예술,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을 신축할 때 들락날락 공간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공간 운영을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해 독서·교육 상담, 가족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산연구원에도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해 놓았다. 들락날락으로 청년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¹⁸⁾

18) "부산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500곳 조성", 부산일보(2021.10. 18).

[그림 2] 부산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사례



2) 작은도서관 어린이작업실 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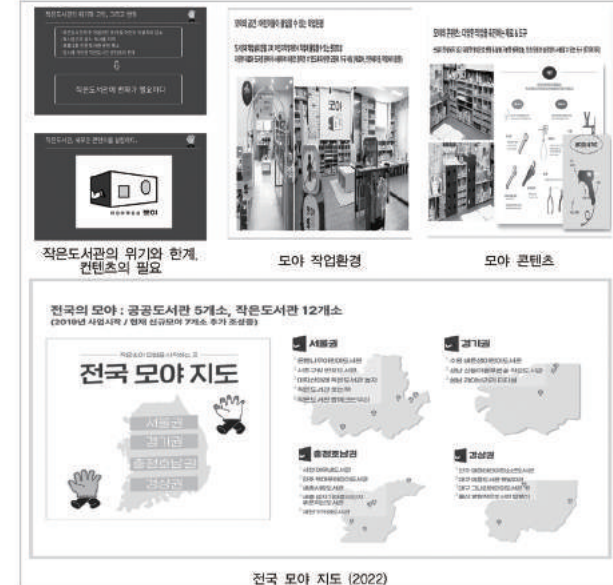
‘모야’는 다양한 지역의 도서관 등 공공 공간에 만들어지는 어린이작업실이다. 집이나 일상에서 떠오르는 영감과 호기심을 손으로 표현하고, 선생님이나 커리큘럼 없이, 아이들 스스로 자율적인 주제로서 하고 싶은 무언가에 대해 마음껏 시도하고 창작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이다.¹⁹⁾

(재)도서문화재단 씨앗에서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일상 속 안전한 공간인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작업실을 확산하고 전체 어린이작업실 모야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도서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더욱 폭넓은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도서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릴리움에서는 (재)도서문화재단 씨앗과 함께 어린이작업실 모야의 브랜딩, 운영 매뉴얼 개발,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작업실 가구 디자인, 시공 등 어린이작업실 모야와 도서관이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어린이작업실 모야가 작은도서관 속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지원한다. 작은도서관과 작업 공간의 융합을 통해 지금까지 동네의 어린이, 이웃, 주민들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온 작은도서관의 확장된 콘텐츠에 대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9년 사업시작 2022년 현재 전국 17개소(서울권 5개소, 경기권 3개소, 충청호남권 5개소, 경상권 4개소)가 설치되었고,²⁰⁾ 2023년 모집 중이다.

19) “어린이작업실 모야”, <https://c-program.org/projects/workshopmoya> [2023.4.20].

20)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새로운 콘텐츠를 실험하다 : 도서관 속 어린이작업실”, 59회 전국도서관대회 자료집, 한국도서관협회(2022).

[그림 3] 어린이작업실 ‘모야(MOYA)’ 프로젝트 사례



출처 :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59회 전국도서관대회 자료집(2022).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작은도서관의 위기에 대한 고민과 그 변화 모색이다. 그 위기는 첫째, 작은도서관의 주 이용자인 유아 및 어린이 이용자의 감소, 둘째, 독서인구의 감소 및 독서를 저하, 셋째, 코로나로 인한 도서관 운영 축소, 넷째, 장서에 기반한 작은도서관 콘텐츠의 한계에서 비롯된 점이다. 이는 비단 작은도서관만의 문제는 아니며 급속한 사회변화와 COVID-19 위기를 지나면서 도서관이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의식일 것이다. 진해기적의도서관도 예외는 아니다.

5. 나오며

기적의도서관은 착박했던 우리나라 어린이도서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올리고 어린이도서관의 질적 변화를 일으킨 대전환 현상이었다. 어린이전용공간으로서 어린이도서관은 1970년대 서울 사직어린이도서관과 대구 유전어린이도서관 등에서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인표어린이도서관이 소외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꿈의 마당을 펼쳐주었고, 2000년대 기적의도서관으로 이어지면서 어린이들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이러한 기적의어린이도서관운동은 학교도서관운동과 함께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기적의도서관 운영 원칙 “1) 한 살때부터 도서관으로, 2) 살아있는 도서관, 3) 가정-학교-도서관의 연결” 21)의 정신으로 조성된 진해기적의도서관의 운영목표도 “1) 차별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배움 권리를 존중하는 도서관 2) 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창조적 성장을 돕는 꿈 나눔터, 3) 지역 어린이들을 함께 키우고 성장하는 마을공동체” 22)로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창원시의 책임과 지원이 따라야 한다. 또한 출산을 저하, 밀레니얼부모와 알파세대 생활양식의 변화와 사회환경과 도서관 주변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처음 진해기적이 탄생할 때의 시민들의 힘 또한 다시 보아야 할 시기이다. 어린이가 주인이 되고 권리가 보장되며, 어린이 본연의 특성에 기반한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어른의 몫이 될 것이다. 20년전 뜻 있는 여러 힘들이 모여 진해의 기적을 만들었듯이 앞으로 20년을 진해 기적으로 너그러이 살아낼 수 있는 가족친화공간, 지역연계공간, 세대연결공간으로서 진해의 기적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 진해기적의도서관의 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포함문화공간으로서 어린이도서관서비스를 지향해야 하며, 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가 중대되어야 한다. 알파세대들의 독서생활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독서는 물론 디지털 실감형 서재, 증강현실 속 독서체험,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책임어주는 로봇 등이 더욱 보편화될 것이다. 또한 AI나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독자의 취향과 오늘의 감정에 맞는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독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새로운 지식을 발굴하는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독서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도서관과 같은 새로운 도서관 형태가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독서의 편리성과 다양성을 높여주는 반면, 종이책의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래 독서생활에서는 종이책과 디지털 자료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즉 종이책으로는 감수성을 기르며, 디지털 콘텐츠로는 연결과 검색을 통한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린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창작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어린이작업실 모처럼 여러 도구를 직접 손으로 다루는 노작활동을 통해 디지털 가상세계가 주지 못하는 진짜로 존재하는 경험을 맛보게 될 것이다. 자유로운 노작활동을 통해 자율성, 창의성, 상상력을 발휘하고 친구들과 함께 만들고 놀면서 공동체의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COVID-19 팬데믹이후 안전한 공유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마침 故 정기용 건축가의 발자취를 따라 진해기적의도서관을 찾은 건축디자이너²³⁾의 다음 대목은 특별할 것 없는 생활에 스며드는 생활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잔잔한 울림을 준다.

정기용 선생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2년에 걸쳐 전국 무주군에서 30여 개의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목욕탕이 있는 편사부소, 등나무 운동장까지, 압도적으로 멋진 건축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설계를 이어갔다.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이 시대에 주인공으로 뜰때는 없더라도 진짜로 필요한 것, 진짜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 진짜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했다. 진해기적의도서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진심을 다한 공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었다.

21) 책읽는사회문화재단, http://www.bookreader.or.kr/working1_3.html, [2023. 4. 20]

22) 진해기적의도서관, <https://www.jhl.or.kr/front/>, [2023. 4. 20]

23) 임태희, “진해기적의도서관이 불러온 기적 : 지역사회 기적을 불러온 공공건축”, 《리빙센스》(2023. 3. 24.)

이처럼 진해기적의도서관은 오래된 미래 가치로서 고(故) 정기용 선생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진심을 다한, 진짜로 존재하는” 그 정신을 면면히 이어받고, “부모에게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함께 행복한 공동체로서 도서관의 가치를 알려주시고, 아이들을 먼저 안아주셨던” 고(故) 이이효재 선생님의 그 마음도 고스란히 이어졌으면 한다.

2003년의 진해 기적과 20년 후 2023년의 진해 기적이 테자부하면서 책놀이터로서 기적의도서관이 탄생되었듯이, 이제 디지털놀이터, 자유로운 노작놀이터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도서관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종이책 술과 디지털 와이파이가 술과의 연결과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가 소통하는 커다란 공동체의 기적을 불러오는 진해기적의도서관의 변모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s://www.libsta.go.kr/>, [2020. 4. 20.]

김수경 외 공저, 『문헌정보학개론』 (대구: 배일사, 2021).

김수경, “90년대 이후 창원지역 마을도서관운동”, 한국도서관사연구회, 《59회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 자료집 : 마산창원지역 도서관의 역사와 의의》(2022).

김영옥, 『어린이도서관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청주기적의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 문헌정보학과, 2011.

김지완,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발전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9.

민경록, “어린이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2019 한국도서관연감』, (2019).

“부산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돌락날락’ 500곳 조성”, 부산일보(2021.10. 18).

“알파세대 탐구생활”, 서울연구원 카드뉴스 제15호(2021.11.18.).

<https://www.si.re.kr/node/65298>, [2023. 4. 20]

어린이작업실 보아, <https://c-program.org/projects/workshopmove>, [2023. 4. 20.]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새로운 콘텐츠를 실험하다 : 도서관 속 어린이작업실”, 59회 전국도서관대회 자료집, 한국도서관협회(2022).

진해기적의도서관 내부자료(2023.01.)

진해기적의도서관, <https://www.jhl.or.kr/front/>, [2023. 4. 20]

임태희, “진해기적의도서관이 불러온 기적 : 지역사회 기적을 불러온 공공건축”, 《리빙센스》(2023. 3. 24.)

인포어린이도서관, <http://www.inpvolib.or.kr/center/info/intro.asp>, [2023. 4. 20.]

창원시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 <https://lib.changwon.go.kr/> [2023. 4. 20]

창원시, 『2040 창원도시기본계획』(2023)

책읽는사회문화재단, http://www.bookreader.or.kr/working1_3.html, [2023. 4. 20]

“2021년 한국 사회는 어떤 파도를 탈 것인가 : 5가지 분야로 본 2021 한국 사회의 위기와 기회”, 한겨레신문(2021. 1. 7.).

“X, Y, Z...디지털 세대 구분법”, 한겨레신문(2019. 9. 29).

2023 진해기적의도서관 20주년 세미나

토 론 문

- (1) 이 중 화
- (2) 김 태 석
- (3) 이 용 훈



‘기적의도서관이 걸어온 길과 의미’에 대해

이 중 화

(창원시의원/진해기적의도서관 초대 관장)

진해기적의도서관 설립 배경

2003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 84세이시던 아이효계 선생님께서 세종문화회관 인근에 있는 ‘동경일식’ 집으로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도정일 이사장님과 서해성 사무처장님을 초대하셨습니다. 평소에 화장지도 반으로 잘라 쓰실 만큼 김소하셨던 선생님께서 김포공항에 내려자마자 ‘중요한 분들을 만나는데 늦으면 안 된다’ 시며 백시를 타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으나 선생님은 평소와 달리 연신 물을 마시며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그 대단하신 선생님이 마음을 풀이하며 긴장하실 정도로 진해에 기적의도서관 유치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선생님의 결연하신 뜻이 통했는지 그해 4월 28일 mbc의 ‘책! 책! 책을 읽읍시다’ 방청에서 진해가 세 번째 진립지로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김병로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빛어낸 결과였겠지만 선생님의 간절함이 더 통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시책 제안을 위해 진해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찾아 연구하셨는데 2001년에는 청소년의 실태를 과제로 삼으셨습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진해를 떠나고 싶어 하는 이유를 ‘청소년 문화의 부재’로 꼽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기적의도서관을 유치하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청소년 문화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관장으로 지목된 저는,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 마음으로 어린이도서관의 운영 형태를 경량하기 위해, 5월부터 국내와 국외의 어린이도서관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도움으로 몇 달 동안 외국 도서관을 둘러보는 사이에 조금씩 자신감이 불기 시작했고 12월 20일 준공식에 이어 다음해 2월 2일에는 50여명의 자원 활동가들과 함께 ‘여성들이 만드는 책 읽는 마을공동체’라는 기적(脚戲)을 내걸고 개관식을 했습니다. 한 달 후 3월이 되자, 남동생이 거주하는 미국 LA에서 저를 보내기 위해 12월에 떠나셨던 아이효계 선생님이 귀국하시면서 도서관 운영은 더욱 활기를 띄게 되었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이 걸어온 길과 의미

도서관의 공간과 운영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한,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중심에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오신 안찬수 상임 이사님의 발재문은 지나온 20여년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던 게지요. 진해기적의도서관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이 중심을 잡아주고 지켜주었기에 가능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년 전,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도 ‘도서관-학습실’이라는 등식을 깨는 기적(miracle)을 이루고자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기적의도서관이 내건, 공간모델, 운영모델, 독서프로그램 모델, 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모델과 같은 네 가지 혁신 모델은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진해기적의도서관이 지역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것도, 위의 네 가지 혁신 모델을 구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간은 지금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햇살이 쏟아지듯 들어와 비추는 밝은 실내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구석들, 뛰고 쫓아 다녀도 제지당하지 않은 자유로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재미있는 책들과의 놀이 그것을 함께하는 얼마 선생님의 지지와 응원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솟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살다 시피 하는 것은 자원활동가인 얼마선생님들의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많이 오셨는데 자원활동가들을 모두 직원들로 여길 만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진해만의 특성이기도 했습니다. 진해는 군사 도시여서 군인 및 국방과학 연구원들의 가족 가운데 고학력 전업 주부가 많았습니다. 그 분들이 자원활동가로 참여하여 급세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10여 명의 팀을 짜서 아이를 둔 엄마의 마음으로 독후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함으로써 아이와 부모 모두의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찬수 상임이사님의 발제문에 깊이 공감하면서 기적의도서관 뿐만 아니라 전체 도서관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적의도서관 설립 초기였던 20년 전과 지금은 사회 환경이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발제문에서 언급하셨듯이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의 상상보다 더 빠른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일하는 여성들의 증가는 도서관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으면서 가정마다 씀씀이가 커지고 일하는 주부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자원활동가를 만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자원 활동가들은 일하는 사이 잠깐 짬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AI 영역의 확장은 일기와 글쓰기의 중심을 흔들리게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의 중심이었던 종이 책이 뒤편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들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안찬수 상임이사님은,

①도서관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②시민의 자치·자립적 삶을 지원하는 도서관,

③지역사회의 변화 발전을 이끌어내는 도서관,

④더욱 새로운 공간과 서비스와 운영을 모색하는 도서관에 대한 논의의 작은 '씨앗' 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둘째, 종이 책이 계속 도서관 자료의 중심이 될 수 있겠는지요?

셋째, 아동·청소년을 도서관으로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문제

1) 그림책 연계 코딩

2) 책과 함께 글쓰기

3)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강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4)유토피아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마무리

지난 20년 간 기적의도서관이 걸어온 길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자연을 거스리게 하지 않은 건축과 공간구성으로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오면 숨죽이며 읽고 조용히 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깨트렸습니다. 책을 친근한 놀이의 매개로 여기며 책읽기의 습관을 몸에 배게 했습니다. 책과 함께 노는 사이 뇌에 끈적이 생긴 아이들은 책만 보면 저절로 하죽하죽 웃음이 터져 나오는 재미있는 놀이를 상상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도서관을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급격한 발전과 출생을 저하는 도서관 운영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서관이 지켜온 가치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인쇄매체의 책이 설 자리를 지키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도서관의 운영 모형을 어떻게 짤아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만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토 론 문

김 태 석

(진해기적의 도서관 운영위원장)

발제자는 진해기적의도서관의 이용률과 대출률 변화의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에 따른 도서관의 변화 방안으로 1) 지속적인 어린이 회원 대출 이벤트 신설, 2) 자연친화적인 열람 및 휴게 공간 확대, 3) 어린이 집과 유치원 대상 도서관 견학 신청 확대, 4) 기존 북스타트 책 꾸러미 지급대상을 확대, 5)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의 연계활동 모색, 6) 탄소발자국 캠페인을 통한 도보로의 도서관 방문 권장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이용률과 대출률을 높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주요 대상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맞춰져 있는 도서관의 장서와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등 청소년층으로 확대해야 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발제자는 또 도서관의 발전방안으로 1) 북스타트 사업의 세분화와 연계 전략, 2) 부모 교육의 강화, 3) 소유에서 접근으로 도서관 콘텐츠 패러다임 전환, 4) 어린이, 청소년 주도적 체험활동을 통한 오프라인 활동 강화를 통한 공동체 체현, 5) 디지털 서기와 종이책 서가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 및 독서인구 확대를 제안했다. 이 역시 도서관들이 미래에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적절한 방안이지만, 3)-5)은 상당한 시간과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므로, 창원시가 설정한 시립도서관의 로드맵을 먼저 분석하고, 그에 발맞춘 추진 계획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서관의 대상을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정, 고등학생, 부모 교육으로 늘리는 것은 어린이도서관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진해기적의도서관을 규모로 보면, 교육청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 같은 대규모 도서관, 그리고 마을도서관이나 평생학습센터 같은 소규모 도서관 사이에서, 중급 도서관 규모를 갖추고 있다. 교육청, 시립도서관은 지역의 거점도서관으로서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해야 하며, 마을도서관이나 평생학습센터는 동네 사랑방의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이 진해기적의도서관은 어떤 정체성을 표방할 것인가? 어린이도서관의 특화를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교육청, 시립도서관의 어린이자료실과는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 도서관의 디지털화에서 과연 우선 순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확보하더라도 감당할 능력이 되는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부산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둘락날락' 사업은 2030년까지 7,124억 원을 투입해 500곳을 조성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라고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과 돌봄시설, 지역업무 공공기관, 문화예술체육시설, 민간기업의 카페, 갤러리 등 기구 공간까지 활용한다고 하고, 문화예술,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을 신축할 때 둘락날락 공간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다시 말하면 부산의 모든 관련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원시도 어린이 디지털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려면 현재 존재하고 운영되는 창원시의 관련 공간 뿐 아니라, 이후 신축 건물에도 이를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 창원시의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창원시정연구원의 연구 용역이 선행해야 한다고 본다. 또, 작은도서관 어린이자료실도 마찬가지로 절차를 거쳐 계획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토 론 문

이 용 훈

(한국도서관사연구회 회장, 도서관문화비평가)

전해기적의도서관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도서관과 함께 애써 오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찬수 상임이사께서 지난 20년 동안 기적의도서관이 걸어온 길을 잘 정리해 주셨다. 기적의도서관이 우리나라 도서관계 전체에 던진 네 가지 혁신적 모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기적의도서관 전과 후가 크게 달랐다는 건 확실하다. 무엇보다도 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참여가 도서관 혁신의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해 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지난 2016년부터 '기적의도서관 2.0'을 논의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논의의 내용과 결과를 살게 기적의도서관 운영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을까 궁금하다. 잘 녹아들기 기적의도서관 모두 새로운 미래를 잘 열어가기를 기대하고, 받는다.

김수경 교수는 창원시 도서관 현황까지 포함해서 꼼꼼하게 분석하고, 전체 도서관 체계 안에서 전해기적의도서관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검토하고 몇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여기에 약간의 의견을 더하고자 한다.

우선 전해기적의도서관이 건립 이후 2016년 통합창원시도서관시스템에 편입되고 창원시도서관사업소 직제 내 전해도서관의 행정적 관리와 지원, 협력 체계 하에 운영되고 있는 것도 격절하다. 생각한다. 다만 전해기적의도서관이 창원시 전체 도서관 체계/시스템 속에 있더라도 기적의도서관 건립 취지와 이념, 활동 방향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도서관으로서 존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근래 전해기적의도서관을 포함해 많은 도서관이 출산을 겨와와 고평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 문화의 급격한 확산, 독서인구 감소 등으로 이용률이 점차 감소하자 이의 계고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긍정적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현재 공공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도서관들 차원에서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서관 성과를 평가하는 인식과 방법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즉, 이제 도서관은 이용자수나 책수 등에 근거한 계량적 평가 관점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쾌적하고 만족스럽게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의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창원시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형 공공시설물 과다 신축이 사업비와 운영비 등 이중으로 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상 공공시설물에는 도로와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화장·장사시설 등이 포함되는데 도서관도 문화시설의 하나다. 따라서 창원시 소재 도서관들은 이러한 시의 조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민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겨우 127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현재 설문조사 결과는 비공개라서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는 알 수가 없다. 도서관에서 이러한 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김택식 운영위원장께서 전해기적의도서관은 어떤 정체성을 표방할 것인가? 어린이도서관 특화를 미래

에도 유지할 수 있을까?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자료실과의 차별화 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셨는데, 본인도 그러한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경우에는 공공도서관 어린이자료실과 어린이도서관에 초등학교 도서관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해기적의도서관은 모든 유형의 도서관 어린이서비스, 나아가 창원시는 물론 민간 부문에서 추진되는 모든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에 도서관 서비스를 접목하는 적극적 노력을 실행하는, 공립의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서 정체성을 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즉,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해 적절한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이를 공공도서관 어린이자료실이나 초등학교 도서관, 각종 어린이 대상 기관이나 행사 등과 협업하고 접목하는 실험적인 전문기관이 되면 좋겠다. 또한 창원시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아카이빙 작업도 병행함으로써 명실상부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창원시나 창원시의회에 있어 어린이에 대한 정책 입안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창원시 어린이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서관으로 발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해기적의도서관에 어린이 정책 연구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면 좋겠다.

안찬수 상임이사께 질문을 하나 드리면, 현재 전해기적의도서관을 비롯해 순천기적의도서관, 재천기적의도서관이 함께 개관 20주년을 맞는다.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책임은사회문화재단 입장에서 기적의도서관 20년의 의미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는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계속해 나갈 것인지 등의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수경 교수께서는 전해기적의도서관이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린이가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필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위원으로 어린이도 참여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니면 아예 별도로 어린이운영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운영위원회 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명단이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좀 더 적극 공개하고 시민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끝으로 전해기적의도서관이 도서관 관계자와 시민들도 참여하는 「창원시 전해기적의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대로 알기 모임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작업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 도서관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곧 미래를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끝)

진해기적의도서관 20년사

스무살, 기적을 이야기하다

발행일 2023. 11. 24.

기획/편집 진해기적의도서관

펴낸곳 비엡

ISBN 979-11-88760-11-4(03810)

진해기적의도서관

주소 5165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70

전화 055-547-0095 / 0098

홈페이지 <https://www.jhml.or.kr>

비매품